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꾼:
제자 훈련을 통한 책임 있는 평신도 사역자 양성

LORD'S STEWARD FOR THE KINGDOM OF GOD:
THE RESPONSIBLE LAY MINISTER'S TRAINING THROUGH DISCIPLESHIP COURSES

BY

OON DON CHOI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Riverdale, New York

2011

This is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꾼
제자 훈련을 통한 책임 있는 평신도 사역자 양성
LORD'S STEWARD FOR THE KINGDOM OF GOD
THE RESPONSIBLE LAY MINISTER'S TRAINING TROUGH DISCIPLESHIP COURSES

presented by

Choi, Oon Don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____
Associate Director for Korean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Advisor's Signature

____
March 2011

NYTS is an Affirmative Action/Equal Opportunity Institution

ACKNOWLEDGEMENTS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며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천국 확장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부르시어 주의 종으로 일하게 하셨음을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 목회학 박사 학업을 수학하게 하시어 더 깊이 있는 주의 말씀과 목회를 감당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통치에 쓰임 받을 주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자 힘쓸 때 함께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기를 소망할 때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이 많은 저를 학문의 터전 뉴욕 신학대학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이 곳에서 3 년간 학문과 연구의 길로 인도해주신 Dr. Keith Russell 교수님과 백창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을 바쁘신 중에서도 철저하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장영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부모님 최태연 권사님 최문정 전도사님, 묵묵히 말없이 기도와 뒷바라지를 해 준 아내 최경미 목사, 영원한 지원자 아우 최용석과 Allison, 그리고 부족한 사람의 영원한 사랑과 소망 성휘와 광휘, 꼬맹이 찬휘와 선휘,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고 site team 으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훈련에 참여하여 준 김동욱장로, 김숙자집사, 임명옥집사, 김영동전도사,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를 도와주신 NYTS 동역자들과 모든 분들 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제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경험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더 신중히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11 년 3 월 Riverdale, New York 에서

최운돈 목사

목 차

I. 연구 배경 소개 (Introduction to Setting)

1. 지역 사회와 교회의 배경과 역사

A. 지역적 배경

브롱스는 미국의 가장 변화하고 큰 도시 뉴욕의 5 개 보로 중 최상단지에 위치하며 인구 약 140 만 명으로 뉴욕 양키스의 본 고장이기도 하고 식물원, 동물원을 포함하여 공원들이 상당히 위치해 있는데 브롱스내만 42 평방 마일의 공원 녹지가 널려져 있다. 브롱스 동물원은 미국내 최대 동물원으로서 4000 여 동물 및 6000 여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태니칼 가든 (식물원)도 상당한 종류의 식물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에게 브롱스하면 가장 먼저 받는 느낌은 대표적인 흑인 동네지만 본 교회는 북서쪽 브롱스로 남쪽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도미니칸과 푸에르토리코)이 주를 이루고 북서쪽 (리버데일)에 백인과 북쪽(Yonkers)에 혼합 인종으로 여러 민족 (유태계, 이탈리아계, 아일랜드계, 아프리카계, 인도계, 남미계, 독일계, 영국계, 중국계, 러시아계, 폴란드계 등)이 함께 주거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중 아시안은 3.6%이며 한국인은 2000 명 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통계되어 있다.[1] 대부분 맨하탄을 중심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일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1] http://www.nyc.gov/html/dcp/html/census/popcur.shtml,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Population, Current Population Estimates.

B. 역사적 배경

브롱스는 네덜란드에 고용된 스웨덴 출신의 Bronck 라는 인물이 이 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지명의 어원이 되었다. 그 후 영국인들이 들어와 살았고, 1898 년 뉴욕 시에 편입되었고 본래 한적한 지역이었으나, 맨하탄과 도로, 철도로 연결되면서 급속히 발달하여 교외 주택·공업지구가 되었다. 거주지역이 많으나, 강과 바닷가는 항구로 부두와 창고 시설이 많고, 일대에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거주환경이 악화되어 백인들은 이곳을 많이 떠난 대신 소수민족이 대규모로 이주해 왔다. 현재는 주민의 대부분이 히스패닉과 흑인이며, 특히 도미니칸과 푸에르토리코 출신이 많아졌다.[2]

911 사태로 맨하탄의 관광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뉴욕 경기가 침체하여 전반적인 다섯개 보로가 경제적 침체에 빠지고 월스트릿의 금융 동향이 나빠지어 브롱스도 타격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 블룸버그가 새 뉴욕시 시장으로 들어서면서 남부 브롱스가 오랫 동안 낙후 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정부와 민간부문을 합쳐 30 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용 아파트(Affordable House)를 포함, 대대적으로 공원들과 상가들을 재계발하고 대중교통 수단도 보수 확충하고 환경미화를 개선하고 있어 주거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상당히 호제를 부르고 있으며 뉴욕 관광등이 다시 회복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C. 교회의 목회적 배경과 현황

본 교회는 1977 년 4 월 10 일 맨하탄 북부 25 Cumming St.에 있는 성공회 교회에서서 장년 32 명, 학생 40 명이 부활의 아침을 깨웠다. 이민의 발자취를 따라 첫

[2] http://en.wikipedia.org/wiki/The_Bronx, Wikimedia Foundation, Inc. "브롱스: 브롱스 역사" 1 January 2011 at 01:26.

10 년 동안에 부흥회를 18 번 드리며 주변의 성도들이 교회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금호감리교회에서 이민의 물결을 따라 성도들이 몰려오는 현상을 통해 시너지 효과로 교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북부 맨하탄 시대에서 브롱스 시대를 열게 되었다. 새벽기도회와 삼일 금요 기도회, 속회, 조직과 선교회 조직, 교회학교로 교회는 날로 성장하여 자체 교회를 갖추게 되었고 450 명 정도의 장년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을 이루었다.

예배와 목회 형태는 전통적인 목회 방식을 갖추어 성도 관리적인 목회(심방 위주)의 목회 구조를 유지했으며 담임 목회자가 교회협의회 회장과 기독교 방송국 이사장 등 교계 지도자 위치에 있었으므로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유명 목회자가 뉴욕으로 올 경우 대부분 본 교회에서 혹은 본 교회를 주축으로 세미나와 부흥회 등을 열거나 지원하여 수많은 말씀의 축제를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여 은혜라는 언어에 익숙해지고 성장이라는 외형적인 부흥에 관심은 있었으나 말씀이 현실 속에 삶의 모습으로 자리잡지를 못했다.

그러나 재정부 문제와 이민 물결의 멈춤 그리고 여러 잡음으로 인해 교회는 갈라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여러 차례를 걸쳐 교회의 큰 상처로 남게 되어 26 년의 1 대 목회자 시대를 마치고 2 대 목회자 시대를 시작할 때에는 백여 명의 장년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의 일꾼들은 대부분 떠났고 소수의 일꾼과 구경하고 관망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더우기 브롱스는 이미 흑인과 히스패닉들의 증가로 뉴욕의 5 개 보로 중 위험한 지역이며 더 이상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지역이 되어 유입되는 한인보다 떠나는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현재 한국인의 정착보다는 잠시 머무는 임시 정착지나 사업상 거주하는 곳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중 다행인 것은 브롱스 서쪽의 리버데일은 같은 브롱스보로 임에도 부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자리하였으며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들이 자리하여 주거지역으로 매우 선호하는 유명한 지역이다. 본 교회는

브롱스 북서쪽의 리버데일 쪽에 가까이 위치하여 안전한 편이며 브롱스와 러리버데일, 브롱스 북쪽의 Yonkers 와 뉴져지에 거주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2 대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여 상처투성이 교회를 맡아 상처를 치료해야하고, 일꾼을 세워야하며, 교회의 구경꾼에서 사역에 관심 있는 자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로, 교회를 책임지는 성도로 변화 시켜 가야 했다.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힘든 노동의 일에 종사하고 있어 네일, 목수, 델리의 셀러든 종업원, 세탁방, 소수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교회 학교, 화요 중보기도회, 속회와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건강한 교회 사역을 시작하여 제자훈련을 실시 하고 있다.

2. 문제 제기와 연구 방향 (Strategy Statement)

A. 목적 (Goal)

21 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이다.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릭 워렌(Rick Warren)의 말처럼 건강한 교회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분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며, 목적이 있는 건강한 교회는 이웃과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3] 물론 교회의 건강도는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을 평가 할 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매주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제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교회인가?" 물론 그것은 중요한 질문들이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질문 속에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이 교회의 성도는 어떤

[3] Rick Warren , *목적이 이끄는 삶*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3), 43.

사람들인가?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비춰지고 맛을 내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목회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있다. 각 교단이 내놓는 여러 통계들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정체 내지는 쇠퇴기에 있다는 분석이 오래전부터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그런 수적인 변화가 아니라 21 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4]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내놓은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는 갤럽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종교인 및 타종교인이 보는 한국교회는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5] 한국교회와 목회는 분명 위기상황 가운데 놓여있으나, 위기는 언제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저 하기 쉬운 말이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 위기는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한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때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일꾼으로써의 개념을 갖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세상 짐진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자리가 된다면 교회는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주의 복음은 믿음 안에 전달되게 될 것이다.

---

[4]권혁률, "위기의 한국교회" *한겨레신문*, 보수로 우향우, 2006 년 7 월 27 일.

[5]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서울: *두란노,* 1999), 14.

B. 목표 (Objectives)

신약성서의 복음서에 수록이 된 예수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가르침의 중심 주제였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가 비유를 사용 하였을 때에도 그 비유의 초점은 언제나 천국이었다 (마태복음 13:11, 24, 31, 44, 45, 47, 52; 18:23; 20:1).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까지 그의 백성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것은 또한 누룩과 같이 전체에 스며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성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맥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본 논문의 연구 동기는 성서의 중심적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며 그 진정한 모델인 예수님의 가르치셨고 지적하셨던 참 모습인 주의 제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줄 것이다.

최근 독일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50 개국의 7,000 여 교회를 대상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설문 조사하여 420 만개의 응답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내 놓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연적 교회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라고 번역하는 이 보고서에서 슈바르츠 박사(Christian A. Schwarz)는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8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a.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 b. 영감 있는 예배, c. 열정적인 영성, d. 전인적인 소그룹 (holistic small group), e. 기능적인

조직, f. 은사중심의 사역, g. 필요지향적인 전도, h. 사랑의관계로 소개하고 있다.[6]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제자훈련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는 이 훈련을 통해서 기대될 수 있는 목회의 열매라는 것이다.

특별히 몇가지 제자훈련의 부류 가운데 현재 두날개 양육 시스템로 불리는 D-12 는 제자훈련의 방법론과 이론을 기초 하여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로 마태복음 28:18-20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로 불신자를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재생산을 이루는 탁월한 양육시스템으로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행의 양면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재와 과정을 통해 일반 성도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며, 더욱이 자신 보다 더 낳은 주의 제자를 키우려는 열정과 사랑으로 진정한 주님을 닮은 제자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 주셨던 사역 전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백성)들은 누구이며 진정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책임질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C.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개념과 복음서의 교훈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 초대 교회의 인식과 원초적 개념의 연구를 위해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의미를 찾고, 신약성서에서 예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개념을 예수님의 교훈들 속에서 찾아 볼 것이다.

---

[6]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고양: 도서출판 NCD, 2001), 23.

또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개념과 의미, 하나님 나라와 일꾼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진정한 주의 일꾼들의 의미와 성경적 배경들을 살펴보고, 제자로 만드는 양육과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일꾼과 제자들 훈련계획, 전략 및 방법론을 다루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 및 실패 원인들과 보완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 하나님 나라와 백성 (Kingdom of God and His People)

1.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성서적 배경 (Biblical Fields)

A.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교회에 참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교회는 무엇에 기준해서 운영되어지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며 성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길로 성도를 인도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가? 더 나아가서 성도 개개인은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여러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곧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사람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변증법적인 긴장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취와 완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현재 그리스도인이 진정 그리스도인 다움을 소유하고 보여주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다. 이 두 용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꾼과 제자됨 의미는 무엇인가?

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운데 성장하고 능력을 더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은 구약 성서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 시키려 하는, 인류를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신 영원하시며 살아 계시는 한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확신에 근거되어 있다.[7] 그 때 하나님께서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시편 2:4) 하셨다. 그 때는 인간 사회의 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인 환경에 내재하는 악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신약성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사렛 예수의 선포의 핵심으로서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 (마가복음 1:15)라고 전파하면서 부터 더욱 구체화 되어 갔다. 하나님 나라 도래라는 이 주제는 예수의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마태복음 5:20,7:21), 예수의 위대한 사역의 의도한 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었다(마태복음 12:28).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마태복음 13:11).

---

[7]G.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성수 역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9), 12-13.

신약 성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에 관한 단어가 100 회 이상 나타난다. 그중 복음서에는 80 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36 번, 마가복음에 14 번, 누가복음에 32 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2 번 나온다. 이 밖에도 바울 서신에서 이러한 용어는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에 의해서 사용되어 졌다. 이들 두 단어중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까닭은 마태복음이 유대적 기독교의 특징을 가지는 책으로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여러 가지 대용어들을 사용하였다. 하늘이란 낱말은 이런 대용어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시고 접근하기 어려운 왕적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유대인의 관심에서 나온 말이었다.[8]

공관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한 뜻을 갖는 용어들이 있다. “나라”(thy Kingdom, 마태복음 6:10, 8:12, 25:34; 누가복음 11:2, 12:32), “그의 나라”(his Kingdom, 마태복음 6:33; 눅 12:31), “천국”(the Kingdom, 마태복음 4:23, 9:35, 13:19, 38, 24:14), “자기 아버지 나라”(the Kingdom of their Father, 마태복음 13:43), “내 아버지의 나라”(my Father's Kingdom, 마태복음 26:29)등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구절에서는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표현 된다.[9]

---

[8]Gehalder Boss , *하나님 나라*, 정정숙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1), 29.

[9]"하나님 나라", *성서 백과 대사전 4 권* (군산: 성서교재 간행사, 1991), 123.

나. 성서에 있어서의 왕국

일반적으로 바실레이아(βασιλεια, basileia)는 왕국이나 나라로 번역 되는데 이 말은 왕의 존재나 본질, 상태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왕에 대한 언급이므로 먼저 그의 영예나 권력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의미는 왕의 영예는 그에 의하여 지배 받는 영역에서, 즉 그의 나라에서 표현 된다. βασιλεια 에 있어서 이 둘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7 장 12 절과 17 장 17 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이중의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10] 신약 성경에서 나라라는 단어의 우선적인 의미는 왕국이나 백성 보다 통치의 개념이다.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하여 비평학자들에 의해 많은 관심이 모여졌으며, βασιλεια의 뜻으로 왕국 혹은 백성 보다 왕의 능력, 권세란 개념이 더 기본적이라는데 실제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조지 래드는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보통 왕국, 나라로 번역되는 βασιλεια라는 말은 모든 다른 용례 보다 먼저 왕의 지위, 성격 등을 지칭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왕에 관한 말이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위엄, 그의 권세를 말한다.[11]

신약성서에서 βασιλεια의 의미는 이 세상의 βασιλεια와 그리스도의 βασιλεια 그리고 하나님의 βασιλεια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βασιλεια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a) 그리스도의 왕국

구약성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생각해야만 한다. 인자는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그의 나라로 부터) 모든 유혹하는 자와 악행하는 자들을 모을

---

[10]R. Kettel, "왕, 왕권", *월간목회,* 고영민 역 (10 월호, 1990), 46-47.

[11]G. E.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신성종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92), 84.

것이다(마태복음 13:41). 예수는 그와 함께 서 있는 자들 중 어떤 자가 그들이 (그의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마태복음 16:28).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나라에는) 마지막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진다(누가복음 1:33). 이 왕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누가복음 22:30).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적은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메시야 왕에게 그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누가복음 23:42). 이 왕국의 양식에 대하여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요한복음 18:36).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의 출현과 그의 지배를 증언 한다(디모데후서 4:1). 사도는 그가 주께서 그를 하늘에 있는 그의 나라로 구출해 주실 것을 알고 있다(디모데후서 4:18). 우리들 크리스챤들에게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어진다(베드로후서 1:11).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언급은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에베소서 5 장 5 절에서 불신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요한계시록 11 장 15 절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의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나라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가 언급 된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예수 자신의 말씀에 의해 입증된다. 예수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누가복음 22:29)고 했다.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골로새서 1:3). 이와 같이 예수는 아버지로 부터 나라를 받으신 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버지께

돌려보내신다 (고린도전서 15:24). 그는 다만 그에게 속한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신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βασιλεια* (*του*) *θεου*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에 이르게 된다.[12]

b) 예수의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자기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인 현재 속으로 돌입했다는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구속적 축복의 새 영역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13]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모든 선교를 함축하고 있다. 만일 신약의 메시지 전체가 복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나라의 언어적 용법에는 *βασιλειατου θεου* (하나님 나라)와 *βασιλεια των ουρανων* (하늘의 나라)와의 병행,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basileia, 부가어, 수식어에 의한 서술 또는 동의어 등이 있다. 앞에서 정의한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이다.[14] 그러므로 basileia 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내지 지배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원수들을 궤멸시키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행위를 지칭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데 모여 그의 통치의 축복을 영위하게 될

---

[12]R. Kettel, "왕, 왕권", 50-51.

[13]G. E. Ladd, *신약 신학*, 신성종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2), 75.

[14] R. Kettel, "왕, 왕권", 50-51.

미래적인 구원의 영역을 지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세대와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15]

c)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바울서신에 나타난 아홉 번의 하나님의 나라 용어를 문장에서 사용된 격별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는 그 정의나 성격 묘사와 관련하여 주격으로 두 번(로마서 14:17; 고전 4:20), 속격으로 한 번(데살로니가후서 1:5), 여격으로 한 번(에베소서 5:5), 목적격으로 다섯 번(고린도전서 6:9. 10; 15:50; 갈라디아서 5:21; 골로새서 4:11) 사용되었다. 그 중 여격으로 사용된 경우와 직접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위에 언급된 다섯 곳 중 골로새서의 본문을 제외한 네 곳)는 모두 ρονομε (유업으로 받다) 라는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용어의 문법적인 면은 이 용어의 내용적인 사례와 관련되어 있다. 예수의 선포의 경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마태복음 11:12-13; 눅 11:20; 17:21 등)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마가복음 8:38; 9:1. 43-48; 13:26. 28ff; 마 10:26; 13:47-50; 19:30; 25:14-30; 26:29; 누가복음 13:28; 17:22-37; 22:18 등)이다. 바울서신에서도 예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술은 현재적인 진술과 미래적인 진술이 함께 나타난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밝히는 두 서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는 로마서의 진술(로마서 14:17)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15]G. E. Ladd, *신약 신학*, 75.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는 고린도전서의 진술(고린도전서 4:20)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위의 문장에서 모두 주어로 사용되었다. 그것도 "성령" (로마서 14:17)이나 "능력"(고린도전서 4:20)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현실적인 삶에 관련되어 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진술은 위의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군데에서 발견되는데(고린도전서 6:9. 10; 15:50; 갈라디아서 5:21; 골로새서 4:11; 에베소서 5:5; 데살로니가후서 1:5)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음과 관련되어 있다(직접적으로는 고린도전서 6:9. 10, 15:50, 갈라디아서 5:21, 에베소서 5:5;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골로새서 4:11, 데살로니가후서 1:5).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 받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섯 구절 모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는 자들의 행실인, 소위 악덕 목록(Laster Katalog)이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6 장 9-10 절에서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곧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린도전서 15:50). 또 갈라디아서 5 장 19-21 절에 의하면, 육체의 일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은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에베소서 5:5). 그러니까 위에 언급된 다섯 구절 모두에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윤리적인 행함과 불가분으로 관련되어 있다.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통해 성도는 현재를 직시하고 삶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함을 나타나게 되며 윤리적인 현실성을 기억해야 한다.

B.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한 이해

가. 구약성서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출애굽기 15:18; 민 23:21; 신 33:5; 사 43:15)과 온 땅의(열왕기하 19:15; 사 6:5; 예레미야 46:18; 시 29:10; 47:2, 9; 96:10; 97 :1; 99:1-4; 145:11) 왕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진다. 다른 성서 구절들은 그가 왕이 되어 “자기 백성” 들을 다스릴 날을 언급하고 있다(이사야 24:23; 3:22; 52:7; 스바냐 3:15; 오바댜 21; 스가랴 14:9).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 반면에,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현된 것이나 그것은 단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에 의해 충만히 경험될 날을 소망하고 있다. 관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소망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재현 되는 것이다.[16]

a) מלכ (Melek)과 מלכת (Malkut)

מלכ (Melek, 왕, 왕국)는 동사 지배하다라는 술어에서 유래한 일상적인 셈어이다. 이 용어는 구약성서 욥기 18 장 14 절에서와 같이 가끔 비유적으로 사용된다.[17] מלכ (Malkut)는 고대 히브리어에 속한 소수의 추상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

[16]G. E. Ladd,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도서 출판 엠마오, 1985), 64.

[17]R. Kettel, “왕, 왕국”, 19.

이 용어는 우선 "왕 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용어가 권력의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 언급하는데 사용될 때에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약간 벗어나게 된다. 구약성서에서 מלכ (Malkut)란 용어는 대부분 정치적인 왕국의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사무엘상 20:31; 열왕기상 2:12). 그런데 이 용어를 시대적으로 고찰할 때 중요한 특징은 다니엘 이전의 종교 사상에서는 이 개념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מלכ Malkut (나라)" 라는 용어는 우리의 선입견처럼 다스려지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 나라라는 용어가 하나님에게 적용 될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왕권(royal power), 통치권(reign)을 의미하는 개념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왕권의 두 가지 면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줄 믿었으며, 그 민족의 번영과 안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믿었다.[18]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지배하시며 역사 안에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신앙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있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선민으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18]"하나님", *그리스도교 사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1131.

첫째, 그들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다.[19]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수여된 십계명 속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출애굽기 20:3; 신명기 5:7)고 명하시고 다른 아무것에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다(출애굽기 20:5;신 5:9). 이 유일신 사상은 가나안 사람들과 계약을 맺을 때 제 1 조건으로 내 세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다른 어떤 권세에도 복종하지 말 것과, 비 실재적인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금지령은 유일신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분" 이시라는 사상은 창세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창세기 2:4 이하). 하나님은 아무 것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로 이 이름은 창조의 기능을 가고 계시다는 뜻이다.[20]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처럼 유일하신 분으로 인식 되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21] 근동의 이교도들에게서는 이러한 특징을 찾을 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제 2 계명(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 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하나님께서 현 역사안의 모든 사건을 지배하신다는 사상이다.[22]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그들의 체험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출애굽사건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성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에나 계시며 -하늘 높은 곳에만

---

[19] 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0), 27.

[20]Ibid., 28.

[21]Ibid., 28.

[22]Ibid.

계신 분이 아니고 땅 어느 좁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백성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며 그가 원하시는 곳에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적인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신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게 했고 주변의 다신론의 이교들과는 대조된 유일신의 사상을 유지하게 했다.

b) 구약성서에서의 백성

구약 성서에서 "백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는 암(אמ, 'am), 고이(גי, goy)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 단어들 중 암(אמ, 'am)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의미상 별 차이 없이 사용 되는데 때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사용 되었다.[23]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하고 막연한 신관을 갖지 않고 자신들과 하나님을 밀접한 관계로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교제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섬겼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로 인식했다.[24]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출애굽기 1:18; 시편 5:2, 47:7, 93:1, 96:10, 97:1, 99:1; 이사야 24:23; 에스겔 2:33), 백성은 선민인 이스라엘이라는 증언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구약 성서에서의 구원은 공동체 생활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체험으로, 풍성한 삶의 길로 안내하는 현관이다. 구원이 목표하는 공동체는 좀 특별한 공동체, 즉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6:7)하는 말씀에서

---

[23]"백성," *성서 백과 대사전 4 권* (성서교재 간행사, 1991), 709.

[24]W. Foroster,, *신구약 중간사*, 문희석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1), 225-256.

묘사되고 있는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계약 백성" (a covenant people)을 뜻한다.[25]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는 문장을 일컬어 "계약 공식" 이라고 한다. 이 공식의 다양한 형태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출현이 바로 출애굽기 6 장 본문의 핵심이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일과 관련해서 단편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다. 거기 보면 계약에 대한 논의와 후손, 즉 한 민족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8)고 선언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내 세울 때에 신앙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윤리를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윤리적 조건만으로는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할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나라의 수호신은 아니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나 물질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 나라와 혈연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와 도덕적 행동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기계적으로 체결된 것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체결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서로 흥정으로 체결된 것도 아니다. 쌍방이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행위 였으나 계약을 체결했으면 쌍무 계약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26]

---

[25]Elmer A. Maltens, *하나님의 계획*, 김의원 역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1), 91.

[26]Ibid., 92-93.

분명한 것은 계약의 한 부분에 요구(demand), 책임(obligation)이라는 윤리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택할 것이니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 때 그 “백성” 이란, 목표로 삼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체결한 계약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계약은 때때로 파기되기도 하고 새롭게 다시 체결되어지기도 하였다.

나. 신약성서에서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의 나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일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로 “나라의 아들들”(υιοι τηs βασιλειαs, 마태복음 13:38), “나라의 상속자”(κληρονομουsτηs, 야고보서 2:5)등으로 표현된다. 특히 누가복음 12:32 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부여하신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인해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 했다(마가복음 16:19).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강팍한 유대인으로 부터 취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마태복음 21:43).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크리스챤들을 그의 나라와 영광에로 부르시며(데살로니가전서 2:12),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골로새서 1:13).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었다(데살로니가후서 1:5). 마태복음 7:21 절에서는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고려는 가장 진지한 결정, 다수로 부터, 소수자의 진지한 선출을 의미 한다(마태복음 22:14).[27]

예수는 여러 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언급한다 (마태복음 5:20, 7:20, 18:3, 21:31, 23:13; 마가복음 9:47, 10:15, 23-25). 여기에 언급된 모든 구절들은 미래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조건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조건이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요(마태복음 7:21),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마태복음 5:20), 그리고 방해나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소유물이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마가복음 9:47, 10:23-25, 10:15).[28]

a)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와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은 크리스챤 신앙과 생활의 핵심이다.[29] 산상설교 중에서도 마태복음 5:3-12 절 까지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라 부른다.[30] 여덟 가지 축복의 말씀은 산상 설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축복의 말씀은어떤 특수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간직할 성품을 다루고 있다. 이 성품들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갖는 성품이다. 둘째로, 이러한 성품들은 어떤 것은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다. 셋째로, 여덟 가지 성품중 어느

---

[27]R. Kettel, "왕, 왕국," *월간 목회,* 고영민 역 (10 월호, 1976), 66.

[28] "하나님 나라," *성서 백과 대사전 12 권* (군산: 성서교재 간행사, 1991), 132.

[29]W. Barclay, *산상수훈 강해*, 이희숙 역 (서울: 종로서적, 1988), 6.

[30]M. Henry, *마태복음 상*,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8), 179.

하나도 천성적으로 소유된 성품이 아니다. 넷째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품이다. 다섯째로, 외형적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품이다."[31]

이 축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으로 가장 큰 행복에 이르는 길은 자기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을 내 맡길 때에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32]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여덟 가지 축복들 각각은 긍정뿐 아니라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축복의 처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3)라고 약속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해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며, 그의 전적인 통치에 절대 순종해야 하며 천국은 바로 이들의 소유가 된다.

마태복음 5 장 3-12 절을 시작하면서 주어졌던 복(천국이 저희 것임이요)이 마지막 여덟 번째의 축복에서 다시 주어진다. 이것은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미래적인 나라 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팔복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대상들인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 핍박 받는 자등은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전혀 복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 대한 궁극적 보상은 아주 명백하다.[33]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들의 상태는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

[31]Ibid., 180-181.

[32]W. Barclay, *산상수훈 강해*, 17.

[33]Ibid., 96.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하는 자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12)에서 "기뻐하라" 는 명령어로 마음에 넘치는 희열을 말하며 즐거워하라는 표정까지 넘쳐 나오는 최상의 기쁨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핍박과 고난은 늘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 왔고 살게 되는 것이다.

b)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백성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고 있다. Barclay 는 비유를 "천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지상의 이야기(an earthly story with a heavenly meaning)" 라고 정의 한다.[34] 비유들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예수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살펴볼 때 주의 제자들이 인식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13 장에 나타나는 비유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태복음 13:3b-9)를 Ladd 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상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예수는 비유로 그 나라는 이미 인간들 사이에

[34]W. Barclay,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희숙 역 (서울: 종로서적, 1990), 7.

도래하였으며 그 목적은 악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고 있는 이 한 명의 농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35]

Kingsbury 는 씨 뿌리는 자의 행위는 말씀 전파로 파종꾼이 씨를 아낌없이 뿌려온 것과 같이, 그것의 먹힘이나 햇볕에 탐이나 숨이 막힘으로 인해 그 씨 중에서 낭비의 양이 많았던 것으로 입증돼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 전파에서의 실패율도 또한 컸던 것으로 입증돼 왔다.[36] 그러나 양토에 떨어져 좋은 수확을 내고 있는 그런 씨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선포에 수용적이었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해 왔으며, 그들 가운데서 풍부하게 계속 결실을 맺고 있는 그 제자들, 혹은 교회도 있게 된다.[37]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은 씨앗이 뿌리어진 밭은 백성의 마음으로 씨앗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삼십배, 육십배, 백배로 수확을 거두게 되며 이것이 주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한다.

둘째로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24-30)와 그물 비유 (마태복음 13:47-50)로 Ladd 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를 붕괴시키지 않고 역사 속에 들어 와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축복에 참예한 것이나 그들은 아직 이 세대 속에 살며 악인과 함께 섞여있다가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도래할 때 분리되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거두어낼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38]

---

[35]G. E. Ladd, *신약 신학*, 75.

[36]J. D. Kingsbury, *예수의 비유*, 김근수 역 (서울: 도서 출판 나단, 1991), 44.

[37]Ibid., 44-45.

[38]G. E. Ladd, *신약 신학*, 104.

셋째로 겨자씨의 비유 (마태복음 13:31-32)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큰 것이 될 것으로 주의 백성들 안에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나중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로 누룩의 비유 (마태복음 13:33)의 요점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성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에 있다. 누룩은 눈에는 숨겨져 있으나 그의 영향은 모든 이의 눈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며 세상에 현존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각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알려지고 인식되어지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영향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39]

다섯째로 감춰진 보화 비유 (마태복음 13:44)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보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요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노력이나 계획을 세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이는 것이다.[40] 또한 보화를 발견한 자의 역동적인 태도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귀한 것으로 주의 백성이라면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들 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알고 자기의 소유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

[39]S. Kistemaker, *예수님의 비유*, 67.

[40]오병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고신대학논문집 14집* (부산: 고신대학 출판부, 1986), 132.

여섯째로 값진 진주의 비유 (마태복음 13:45-46)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적인 표시나 가시적인 영광은 없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현존한다. 따라서 그 나라는 가치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주인 것으로 주의 백성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나라를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날 때도 있고 이같이 애써 찾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방법 보다는 발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41]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재 주어진 위치와 삶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존재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에게 구약성서를 통하여 예시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특별한 윤리적인 삶을 요구 한다. 그 요구된바 특별한 윤리적인 삶은 고난 받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실체화되는데, 그것은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42]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조건을 현재적 삶에서 충족시켜야 한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현재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모형은 이미 초대교회의 공동체에게 주어졌다.[43] 이 땅에서 예수의 비유와 교훈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윤리를 지키는 자는 분명 그 나라의 백성 된 자격을 부여

[41]S. Kistemaker, *예수님의 비유*, 71.

[42]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모욕과 고통속에서도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처럼 주의 백성의 근본도 사랑과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23:34).

[43]사도행전 4 장 32-35 절.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 장 19-20 절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선교대명은 현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는 명령인 것이다. 이 명령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주의 일꾼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신학적 배경 (Theological Fields)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고 성도로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현실 속에 속해 있는 성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 속에 정립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을 이루고 있으며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함인가?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하고 있는 성도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대적 이해와 신학적 개념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자 한다.

A. 하나님 나라 사상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이다 (마태복음 4:17; 3:2).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하여 본질이나 존재를 증명하는 설명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44]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사상에 매우 친숙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와같은 선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요단강 사방에서 나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사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의미에 있어서 상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를 역사적인 흐름에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자.

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고대 근동의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45] 그러므로 전쟁은 부족간의 전쟁인 동시에 부족 신의 세력 싸움으로 그들은 이해 하였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성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어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의 뿌리는 구약성서에서 출발하며, 구약성서 전체의 흐름이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상은 구약성서의 신적 계시와 신앙의 대망 가운데 숨겨져 있다. 본문에 구약성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44] R. Kettel, "왕, 왕국," 56.

[45] G. V. Pixley, *하나님 나라*, 정호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25.

가지고 있었으며 또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기에 구약성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46]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출발점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에 근거할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출발점은 히브리 종교사상에 있어서 실현 되었던 신정정치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상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발전하게 되었다.[47]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여호와의 계약을 알리어 주었으며(출애굽기 19:5), 사사 기드온은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실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에게 주어지는 통치권을 거절 하였으며(사사기 8:23), 사무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강한 왕정정치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상 8:7 ; 12:12)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라는 어휘가 구약성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문장도 피하였기 때문이다.[48] 둘째는 이스라엘이 신정왕국이라는 사상이 구약성서 전체에 깔려 있기에 굳이 이 어휘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에 자주 사용하는 어휘는 말락야웨(מלכ יהוה, Malak

[46]J. Bright, *하나님 나라*, 251.

[47]전경연외 4 인, *신약성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76.

[48]H. Conzelmann, *신약성서신학*, 김철손외 2 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28-29.

YHWH)인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 이 통치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심 (출애굽기 15:18, 민수기 23:21, 신명기 33:5, 이사야 43:15)은 물론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19:15, 이사야 6:5, 예레미야 46:18, 시편 29:10; 99:1-4).

이와같은 사상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서 많은 갈등을 가져오면서 변천하게 된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지 아니하고 청동기 시대에 있을 때 인접 국가인 불레셋은 강한 왕권과 함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 강한 군사력을 앞장세워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자,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강한 중앙 집권 체제인 왕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자연히 군사적 승리로 인하여 인기가 많은 사울을 왕으로 등극 시켰다. 그러나 사울의 왕권은 과도기적인 왕권 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에 가서야 비로서 이스라엘의 군주체제가 확립된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사상을 국가의 부흥과 연결을 지었다.[49] 이같은 변천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이스라엘이 찬란한 영광을 누릴 때에는 이와같은 사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나 바벨론이나 그밖의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을 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강대국의 압박 밑에서도 유효한 것인가? 라는 물음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같은 갈등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래의 하나님 나라 소망이 싹텄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강대국을 물리치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소망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이사야 24:23; 33:22; 52:7, 스바냐 3:15, 스가랴 14:9). 미래에 오는 그 나라는 이 땅위의 역사 가운데 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다윗의 후손에 의하여 성취될

[49]G. V. Pixley, *하나님 나라*, 37-40.

것이다’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하였다.[50]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묵시문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 묵시문학의 하나님 나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나 하늘 나라의 어휘가 없으나 신약시대에는 이 어휘들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친밀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 어휘들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중간기인 묵시문학 시기에 정립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포로기 이후에는 예언활동이 점차로 사라진다. 그 뒤를 이어서 묵시문학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 묵시문학은 구약시대의 예언과 상이한 점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사상은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다.[51]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강한 힘을 소유한 절대적인 왕이 등장하여 현실에 처해 있는 정치적, 종교적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하나님을 마음놓고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이룩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바람이며, 또한 그와같은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 가운데 이와같은 소망이 사라지자 예언자들의 외침은 호소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상도 바뀌게 되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를 통하여 임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현실의 역사를 포기한 역사

[50]G. E. Ladd, *신약신학*, 84.

[51]G. E. Ladd, *하나님 나라*, 98-99.

밖에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다.[52]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이 지상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회복 되리라는 종래의 사상을 바꾸어 장차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에 현실의 역사적 발전이 아니라 갑자기 이 현실 가운데로 임하는 것이기에 현실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상의 변화는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강대국인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이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간주하여 그들과 현실적인 투쟁을 행하던 것을 중단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강대국이 적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주관하는 사단이 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물리치는 것은 현실적인 투쟁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53] 이와같은 묵시문학에서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변천은 현실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다.[54] 즉 현실은 악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묵시문학가들은 "현실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으며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 하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55]

이와같은 사상이 묵시문학 전체에 일관되이 흐르며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의 사상을 전통적으로 그대로 담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다윗의 집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또 이 세상에 마지막 세대의 메시야가

[52]G. E. Ladd, "묵시문학", 87.

[53]전경연외 4 인, 77.

[54]G. E. Ladd, "묵시문학", 87.

[55]Ibid., 88.

통치한 후에 초역사적인 메시야가 나타나 새로운 천상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과도기적인 사상을 지닌 작품도 있다.[56]

묵시문학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인간의 노력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57]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묵시문학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묵시문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암울한 역사의 현실 속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58]

다.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출생할 때의 팔레스틴 지역은 매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곳이였다. 당시의 강대국 로마는 급기야 팔레스틴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있던 팔레스틴 지역은 쉽게 헬라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였다.[59] 물론 외형적인 건축물 등은 헬라화 되어 갔지만 내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과 가정제도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여기에 로마의 융화정책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60] 헬라문화가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인 반면에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는 공납제 생활양식 (a tributary

[56]Ibid., 88.

[57]J. Bright, *하나님의 나라*, 220.

[58]Ibid, 220.

[59]G.V. Pixley, 92.

[60]Willister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외 3 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11.

model of production)의 문화로 촌락구조를 가지고 있었다.[61] 이와같이 상이한 문화의 양식 가운데 이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많은 갈등을 하여야 하였다. 무조건적으로 헬라문화를 이식하고자 하였던 통치자와 전통을 지키려는 유대인들 사이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2 세기 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리한 개혁을 단행하다가 마카베오 형제와 그의 후계자들이 단합하여 민란을 일으킨 것이다.[62] 또한 때로는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를 잘 이해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 부터 합법성을 인정 받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헤로데이다. 그는 무력과 공포로 통치를 하여 부를 축적하는 한편, 큰 성전을 건축하였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합법성을 인정받았다.[63]

혼란의 시기에 유대인 안에서도 이 혼란에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엣센파이다. 이들의 지대한 관심사는 성전 정화에 있었다. 이들은 부당한 사제직에 의하여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단정하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적 생활과 성전 생활을 떠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도와 성서 연구에 치중하였다.[64] 이와같은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라고 이들은 생각 하였다. 다음은 사두개파 사람들로 이들은 로마와의 타협을 모색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로마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의 행정적인 조처들을 인정하고 지지하였다.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 세상으로 오는 것이며, 현실의 이스라엘을 통한 도래였다.

[61]G.V. Pixley, 93.

[62]Ibid., 94.

[63]Ibid., 95.

[64]Ibid., 97.

다음은 바리새파 사람들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한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65]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적 배경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66] **묵시문학적 입장에서는 초자연적인 인물을 통하여 인간역사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었다.**[67] **현실의 역사를 종식 시키고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야에 매우 큰 관심과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현실의 역사를 종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여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를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었다.**[68]

두 개의 사상이 양립되어 있었으며 사상적인 정리가 되지 않은 혼란의 시기였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된다. "전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요한복음 7:26-2 에, 후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마태복음 2:5; 21:9; 22:4, 요한복음 7:40-42 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의 환호성으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복이 있도다." (마가복음 11: 10) 고 외친 사실과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기에 조롱의 어구로 십자가 위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후자의 모습을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69]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의 변천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인 신정정치 시대까지

---

[65]Ibid., 98.

[66]Norman Perrin, *The kindom of God in the Teaching of Jeaus* (London: S.C.M. Press, 1985), 113.

[67]G. E. Ladd,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98-99.

[68]Ibid., 98-99.

[69]Norman Perrin, *The kindom of God in the Teaching of Jeau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3), 113.

거슬려 올라간다. 이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 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었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통치는 어느 한 국가만을 그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영역으로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왕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상이 이스라엘 국가의 이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바뀐 사상은 계속하여 전통적인 사상으로 후세에 전달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강성함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몰락은 이와같은 하나님 나라 사상에 일대의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세상의 인간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새롭게 인식된 것이다. 묵시문학에서는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적인 도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도 국가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의에 의한 것임을 밝히 말하고 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적임을 밝히는 것이다. 묵시문학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상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개념을 바꾸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혼란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던 시기였다. 전통적인 국가의 이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가 하면 묵시 문학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70]

[70]이형의, "유대 묵시문학에 있어 이방인의 시판과 구원" *교회와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9), 106-119.

B.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현재성과 미래성

가.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신약성서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제로 말하여 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미래가 아닌 현재에 인간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다 (마가복음 4:3 이하).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과 기대가 자기 안에서 성취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이처럼 현재적 실체로 성취된 사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했다고 선포하셨다.[71]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적인 능력의 행하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활동과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들로 이해되어 진다(누가복음 11:20; 마태복음 12:28, 13:).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눈으로부터 숨기어져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존 브라이트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here and now)” 현존한다.[72]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신약성서가 그 나라에 관하여 언급할 때 이미 시상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구약성서의 미래 시상이 현재 시상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가복음 1:15)라는 선언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약속과 성취의 구조를 실현시키고 있다.

신약성서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누가복음 11:31-32), 아니 성전과 율법보다 더 위대한 이(마태복음 12:65-68)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는 종의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났다(누가복음 4:17-21).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다(마태복음 11:2-6). 이것은 과거의 모든 사람이 보려고

---

[71]V. Kerry Inman, *당신의 천국 개념은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이길상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53.

[72] John Bright , *하나님의 나라*, 291.

했으나 보지 못한 그 날이 온다는 것이다(누가복음 10:23-24).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의 긴박성의 징조를 급박하게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복음 17:21) 있기 때문이며[73]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실재로 하나님 나라가 주의 백성 안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28 절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는 말씀에서 예수는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더러 귀신들의 대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었다고 비방하는 것에 대한 대답에서 사탄과 그의 왕국과 적대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임의대로 하시는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의 능력과 현존이야말로 예수께서 귀신들 위에 권세를 가진 것의 설명이 된다.[74]

Ladd 는 이와 더불어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그는 이미 떨어졌으며(누가복음 10:18) 그것은 이미 결박되어졌으며(마가복음 3:27), 그의 권세 아래 졸개들은 이미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굴복되었다(마가복음 1:27-39, 3:11)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류의 기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현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권능이 그 기적 속에 현존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마귀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는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고 마귀세력에서 승리하셨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실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로

---

[73]Ibid., 282.

[74]Ridderbos,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102-103.

말미암아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이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의 이적과 사탄을 물리치심뿐 아니라 그의 설교 가운데서도 메시야의 도래와 그 나라의 도래가 성취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누가복음 16 장 16 절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언급한다. 여기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와 대조되어 등장한다.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오로지 대망만 되었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말이다. 복음의 전파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주의 백성들 안에 임하였다는 증거이다.[75]

이 밖의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Cullman 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래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생활 속에 임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Stewart 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천국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민족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성격이고, 둘째,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이며, 셋째, 이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라고 했다.[76]

Fuller 는 절박한 종말론적 왕국과 실현화된 종말론을 인정하며 결론짓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벌써 그 앞을 적용하고 있다고

---

[75]Ibid., 116-117.

[76]이상용,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연구* (서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33.

주장하면서 예상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흔적 속에 들어오고 있으나 결정적 사건은 미래이지 과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77]

구약시대에 예언 되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미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현재 속에 임하였다. 예수님의 비유인 마태복음 13 장과 교훈인 마태복음 5 장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다음으로 미래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복음서의 교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현재와 미래, 양쪽에 연관시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와 미래, 양쪽에서 그 자체를 드러낸다.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영역과 미래의 영역, 이 양쪽 모두를 창조한다.[78] 복음서 자료는 그 나라의 미래적 종말론적 측면을 단순히 현재적 측면에 부수하는 것이 아닌 우선적인 시제적 교훈으로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79]

산상 설교는 현재적 의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만 그 의를 소유하는 것은 현 세상을 사는데 필요함보다 그 미래적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제로서 이해된다. 그 나라는 왔던 나라가 아닌, 주의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그것의 도래를 예비해야만 하는 나라이다.[80]

---

[77]Ibid., 35.

[78]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27.

[79]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 71.

[80]Ibid., 72.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그 나라를 현재적인 것으로 나타낼지라도 그것의 충분함과 완전함은 현존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시대의 완료 때 까지는 함께 그 나라 밖으로 내어 쫓기지 않으며 오직 그 때에 가서야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마태복음 13:38-43). 하나님 나라는 현시대의 완료시에 선과 악이 분리되기 까지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마태복음 13:47-50).[81]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 장 7 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다. 또한 마태복음 7 장 22 절에서 '그날' 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즉 미래의 심판일,로 언급하였다.[82] 이것은 미래의 사건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26 장 29 절에는 또 하나의 그날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여기서 예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였다.[83]

이 밖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3),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것이다" (마태복음 21:43)등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찾을 수 있다.

---

[81]Ibid., 73.

[82]D. Guthrie,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 이중수 역 (서울: 한국 성서 유니온, 1989), 316.

[83]Ibid., 317.

예수께서 교훈해 주신 비유들 중에서도 달란트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등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몸의 부활 등에서 확실히 앞으로 올 천국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나라임을 확신한다.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씨중에 가장 작은 씨가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완성된 그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광의 모습으로 그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C.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본질

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을 그들과 연관지신 그의 역사적인 백성의 연속과 성취로 볼 수 있다. 즉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생겨났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 장 18 절)는 말씀을 미루어볼 때,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구속사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이라는 사상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창세기 12 장 1-3 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많은 후손을 보증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84]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 자기

[84]D. J. Harrington, *God's people in Chris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4.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이 재확인되었다.[85]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산발적인 지도를 거부하고, 왕정을 세운다. 하나님의 성실성이 언약을 지키심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되풀이되는 배반으로 말미암아 결국 벌을 받아 망하게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시하신다. 새언약 사상은 예레미야 31 장에 나오는데, 이 새언약의 완성적인 실현은 한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메시야 약속의 성취자로서 그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 장 12 절)라는 언약 원칙의 핵심을 자신이 완성하신다. [86]여기에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서의 새로운 백성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 즉 교회와의 관계를 바울은 로마서 9 – 11 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는 육에 따른 이스라엘(로마서 9 장 6-13 절)이라기 보다 교회이며, 구속사의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로마서 9 장 14-23 절),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구속사의 현재적 목표라고 한다 (로마서 9 장 24-29 절).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상을 제시한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자연적 후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며,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새언약은 옛언약에 대하여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초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85]John Bright,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197.

[86]G. P.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원, 1983), 275.

새 언약은 역사 안에서의 구체적인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의 피(고린도전서 11 장 25 절)에 근거되어 있으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특권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87]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사의 현재적 목표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불러 모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 백성에 속하는 것의 전체적 구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의 특성에 의거한다[88]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만인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부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회의 출발점은 신자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과 사랑으로 교회는 새로운 백성이 된다.[89] 그리고 이 소명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항구적인 것이어서 새로운 백성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갈라디아서 5 장 8 절,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4 절).

그러면 참 이스라엘인 새로운 백성으로 구성되는 교회 개념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징은 보편적인 교회의 개념이다. 이스라엘이 한 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였는데(출애굽기 19 장 5 절),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에베소서 1 장 4 절, 갈라디아서 2 장 14 절). 이러한 정의는 구원의 보편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보편화를 의미한다.[90] 바울 서신들에서 이 보편주의는 더욱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

[87]김의원, "예레미야 31:31-34 에 나타난 새계약의 새로운 면 연구", *신학지남* 203 호, 8.

[88]Herman, Ridderbos, *바울신학*, 박영희 역 (서울: 지혜문화사, 1985), 406.

[89]Hans. Ku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7), 87.

[90]Ridderbos, *바울신학,* 397-398.

구속사적, 성서적 근거 위에서 한스 큉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a)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명확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성령에 의하여 성화된 사람이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한 계급 또는 신분이나 교회 내의 어떤 특정한 당국 또는 관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 에클레시아이며 온 신앙인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91]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라오스 (laos)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하여 그처럼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라이코스 (laikos), 즉 평신도라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확정된 것은 3 세기 이후의 일이다.[92]

b) 교회는 개개의 개인이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인화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는 결코 단순히 종교적 동지들의 자유결사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교회는 만민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부르심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출발점을 신자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잘못이며, 이는 그릇된 개인주의적 교회관이다. 하나님의 부름은 신앙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행위에 선행하고

---

[91]Kung, *교회란 무엇인가?*, 85.

[92]Ibid., 86.

하나님의 온 백성을 상대로 하므로 신자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존립하며, 나아가 각 개별 공동체도 교회라는 한 공동체 내에서 존립한다. 따라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합계나 종교적 욕구의 소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교도들, 자유인과 노예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 등 상이한 모든 부류가 집결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의 제도로써, 본질적으로 전체성을 강조한다.[93]

c) 교회는 인간적인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구체적인 인간과 인간의 결단을 추월하는 존재가 아니다. 각자의 인간적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본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부름의 선택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순종하는 신앙의 응답 없는 교회란 없다고 본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의 신에 준하는 실체로 보는 것은 그릇된 교회관이다.[94]

d) 교회는 역사상의 백성이다.

교회는 역사상의 백성이므로 교회를 이상화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결코 지상의 시간과 현세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초연히 존재하는 정적.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를 모든 현세적인 것, 모든 과오, 모든 죄악과 무관한 존재로 보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잘못된 교회관이다. 이러한 죄악도 오류도 없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성서가 증언하는 교회는 항상 새로이 사죄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95]

---

[93]Ibid., 86-91.

[94]Ibid., 89-91

[95]Ibid., 91-93.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새언약을 세우시는 것까지 이어진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보존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조성케 하였다. 이 새 이스라엘은 혈통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이다. 성서적 고찰에서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 말씀하심은 구속사 가운데 이어져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조성하실 것을 말씀하심이며, 또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형태를 이 약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마태복음 16 장 18 절)

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와 연합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지 신자들의 친교뿐만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 자신의 친교가 본질적이고 일차적[96]이라는 것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다.

a) 로마서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이해

로마서 12 장 3 절 이하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훈계하기를 모든 사람은 전체로서의 교회 속에서 자기의 고유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하며, 이것을 많은 '지체' 를 갖고 있으나 그 기능이 각각 다른 '몸' 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한

[96]Ridderbos, *바울신학*, 425-426.

몸의 지체로써 모두가 조화와 협동 속에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체들이 각자의 특수한 직무에 충실함으로 하나의 몸에게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체의 비유에서 하나의 우주적 교회(the Universal Church)와 많은 지방적 교회(Local Church) 개념을 캘 수 있다.[97]

그리고 Calvin 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해석하면서, 한 몸의 각 부분에 서로 독특한 기능이 있으며, 어떤 부분도 동시에 모든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부분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게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분배해 주시고 있다[98]고 했다. 깔뱅은 로마서 12 장 3-8 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함으로써 교회의 통일성, 상호연합, 그리고 다양성을 말한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참여함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연합,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집합적인 연합을 말한다. 결국 로마서에서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지체가 겸손과 상호존중의 기초를 이루고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조화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b) 고린도전서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이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고린도전서 6 장 15 절)과 성례전과의 관계 속에서(고린도전서 10 장 16-17 절, 11 장 29 절),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관계되어서(고린도전서 12 장 12-31 절) 나타난다. 특히 고린도전서 12 장 12-31 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로마서 12 장 4-5 절의 내용을 확대한 개념으로써, 교회의 일치성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

[97]이상근, *로마서*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4), 289.

[98]John Calvin, *로마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388.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협력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는데 사용된 것이었다.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지체가 된 것을 강조한다.

c)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이해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통일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몸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집단이나 사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몸인 것이다. 어떤 지상적인 다른 공동 사회와 비교할 수 없으면서도 지상의 현실이며, 교회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비유의 일차적인 강조점은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통일성이다. [99]

다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근거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장한다.” [100] 몸 전체가 머리에 붙어서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란다(골로새서 2 장 19 절). 그리스도의 몸은 신앙과 인식과 사랑의 내적 성장과 새로운 지체들의 선교를 통한 외적 성장을 하게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 성장이며 목표인 한, 교회는 이 머리에 순종함으로써만 성장이 가능하다. 머리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리 분주하게 활동한다 하더라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다.[101]

[99]이상근, *고린도전서*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3), 171-174.

[100] Kung, *교회란 무엇인가?,112.*

[101]Ibid., 112-113.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로마서 12 장 5 절)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 몸은 사람들을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맺어주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생명과 의의 공동체로 연결시켜준다. 이러한 교회는 결코 하나의 기구로서 파악되지 않고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인격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정초되는 공동적 삶으로 파악된다.[102] 즉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의 친교공동체이다.

또한 교회를 성만찬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편이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입이며 목소리[103]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조직된 기구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 조직이 없이는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구적인 구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직 기구적인 번영에만 관심을 두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도구이어야하며, 이는 교회가 현 시대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정신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04]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연합과 성장, 다양성과 통일성, 은사와 직분, 유기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시적과 불가시적, 형식과

---

[102]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98.

[103]A. J. Lindgren, *교회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52.

[104]Ibid., 49.

성령으로 구분하는 모든 이원론은 바울의 교회관에는 없다. 바울서신에서의 교회의 가시적인 세움은 은사와 직분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잘 나타난다. 즉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에게 다양하게 부어주신 바를 말하고, 직분이란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은사적 직분과 비은사적 직분에 대한 구분은 그의 은사 개념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기독론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에 강조점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인 것이다.

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과 성취로 교회를 이해하는 보편적 개념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기독론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계시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몸된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서로 연합하며 성장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실재로서 가시적 교회의 설립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 장 4-5 절)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 장 8 절)고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사도행전 2 장 1-4 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삼천 명이 세례를 받고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였다.

Arther T. Pierson 은 사도행전을 주석하면서 그 제목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아마도 우리는 이 책을 감히 "성령행전"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분이 오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그러나 (오직) 하나의 참된 행위자요 수행자 (Actor and Agent)만이 여기에서 인정되고 있다. 모든 행위자 또는 일꾼들은 그가 그것을 통해 행동하는 수단이다" [105]라고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Pierson 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사도행전의 내용만 살펴보아도, 성령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본질적인 요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에서 시작하여 사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사도행전 4:23-31), 속이는 자를 징계하시고(사도행전 5 장 1-11 절), 사마리아인에게도 임하시며(사도행전 8 장 14-17 절), 빌립을 인도하시며(사도행전 8 장 29 절),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임하시고(사도행전 10 장 44-48 절),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시며(사도행전 13 장 1-4 절),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도 임하셨다. 그리고 바울의 장례를 예언하시기도 하시고(사도행전 20 장 22-23 절, 21 장 11 절), 교회의

[105]John Stott, *땅끝까지 이르러*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2), 30.

감독을 세우기도 하셨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의 은사, 성령을 부으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인도에 대한 언급이 도처에 나와 있다. 만약 성령의 역사를 제쳐 놓는다면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같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고, 있어야 한다면, 오늘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이 채워져 활동하는 영적 공동체이다. 즉 교회는 '영의 집'이라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17)는 말씀에서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영이 채워져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성령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성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이지 교회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106] 한스 큉의 말처럼 교회의성장, 발전에 위축과 퇴보가 거듭 나타나는 까닭은 성령과 교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b)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이다. 성령은 교회를 위한 그의 목적을 수행하신다.[107]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직접적인 임무이며, 성도들을 향해서는 가르침으로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106]Kung, *교회란 무엇인가?,* 96.

[107]이종윤 외 공저,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6), 198.

일이다. 그리고 그 각 영역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 능력이 주어지고 조성되는 것이다. 성령의 일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은, 먼저 교회가 사랑의 일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는 곧 성령이 사랑의 영이며, 교회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진리를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 중 지극히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베드로전서 1 장 12 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고, 디모데전서 3 장 15 절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고 한 점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c) 교회는 성령의 은사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공동체이다. 교회 내에 나타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활동은 교회 내의 개인을 향한 것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 장 4 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 장 6 절),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다. 이에 대하여 한스 큉은 "카리스마의 재발견은 특히 바울의 교회론의 재발견이다" [108]라고 하면서, 여기서 카리스마는 봉사와 본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카리스마와 소명과 봉사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카리스마를 각자가 가지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은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질서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았기에 과거지향적이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명하였으므로 현재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성령께서

[108]Kung, *교회란 무엇인가?,* 102

교회에 계시며, 교회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도전하시므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구성되어지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D. 교회의 사명

앞서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구성되어지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하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삼고자 택하여 불러낸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응답하는 공동체'[109]로서의 성격이 담겨져 있다. 즉 부르심의 공동체라고 할 때, 이미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이 둘은 동시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이므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성격이 부르시는 분의 의지에 종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진 부르심의 성격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응답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내리신 모든 명령에 대하여 교회는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역시 부르신 제자공동체에게 새 계명을 통하여 부름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하도록 하셨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109]Harvey Cox, *세속 도시*,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21.

사랑하라는 명령(마태복음 12 장 37-40 절, 요한복음 13 장 34-35 절)이 그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그의 공동체를 부르실 때에 응답의 방향을 정해 주셨다.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것이었다(마태복음 22 장 37 절). 직접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실천하고 있다.

a) 예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주요 기능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요한복음 4 장 24 절). 이러한 예배는 교회의 생명의 일면에 속한다.[1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다.[111]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시되었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행하신 바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자들에 의하여 착수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신이 먼저 호의를 베풀어주심에 대한 좋은 인식인 것이다.[112]

---

[110]Donald Miller,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53.

[111]출애굽기 3 장 12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12]Donald Miller, *교회의 본질과 사명*, 188.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의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인간이 행하는 응답인 것이다.[113]

때문에 예배는 즐거움도, 가르침도, 사업을 위한 계획도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로 참된 예배는 거의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이런 것들 이상의 것이며, 이것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배로 바꾸는 것과 예배하는 자들의 관계를 하나님께로 전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예배자들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114]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찬양과 더불어 경배의 요소[115]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성서적 예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찬양과 경배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회답으로, 인간은 생명과 모든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을 시인하여, 경앙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숭고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된다. 즉 예배의 핵심은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다.[116]

그러나 예배자의 체험에서 생기는 것에 의하여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는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장식이요, 하나님의 힘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요,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종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117]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

[113]Ibid., 185.

[114]Ibid., 186.

[115] 시편 122 편 1 절,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18 편 1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6]Donald Miller, *교회의 본질과 사명,* 189-190.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모든 진정한 예배의 목적인 것이다.[118]

이러한 예배는 독창이 아니요, 합창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앞에 모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됨을 인식하기 위하여 각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인 것이다. 따라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 장 25 절)는 말씀은 집단적인 교회의 특징의 본질적인 표현[119]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이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독으로보다는 오히려 단체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은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졌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가질 때에 우리는 성령이 부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친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규칙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생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는 표현은 교회의 초창기의 기록이다 (사도행전 2 장 44 절). 이것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교회의 생명이 영속하는 표상인 것이다.[120] 따라서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는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

[117]Ibid., 191.

[118]Ibid., 192.

[119]Ibid.

[120]Ibid., 192-194.

b) 말씀 선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궁극적으로 그가 택정하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 장 2 절)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의의를 가진다.[121]

참 교회는 세계 안에서 세계를 위하여 인간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이다.[122]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 세상에 파견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의 구원과 다가오는 해방의 기쁜 소식을, 이미 시작했고 곧 완성될 하나님 통치의 복음을, 교회는 전해야 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 이 세계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은 세계요, 타락했으나 결코 끝내 타락하도록 내버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할 그런 세계[123]이기 때문이다. 즉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또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를

---

[121] J.C.Hoekendijk, *흩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42.

[122] Kung, *교회란 무엇인가?,* 195.

[123] Ibid., 196.

통해 기독교인의 삶은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만한 진정한 예배[124]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응답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이 명제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a) 타자를 위한 섬김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할 때, 교회는 공동체의 속성상, 교회 구성원들이 몸소 서로를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개개인의 차원과 공동체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써 이웃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다. 주님의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 장 34 절)는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함의 표는 바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교회가 이 세상을 섬겨야 함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말론적 구원공동체로서 온갖 형태로 봉사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125]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섬기는 본을 보여 주셨고(요한복음 13 장 4-17 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

[124]로마서 12 장 1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5]Kung, *교회란 무엇인가?,* 197.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 장 45 절)고 말씀하시므로, 스스로를 섬기는 종으로 나타내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공동체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히 남을 위한 삶이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상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는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죄인들, 여자들, 어린이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과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 장 18-19 절)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사역의 방향을 천명하셨다. 예수의 말씀과 삶 속에 드러난 이 사회를 향한 태도는 바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스 큉은 만일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들끼리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126]고 주장하였는데, 교회는 이 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b)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할 교회" (Ecclessia semper reformanda)라는 명제가 타당하다면 개혁의 역동성은 교회 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의

[126]Ibid., 203.

개혁의 필요성과 그 결과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그것이 부름을 받은 이유다.[127] 우리는 사회 변혁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음을 자각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정의를 생각하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사회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나라의 정의에 포괄된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신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 장 6-8 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은 모두 다 사회 변혁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따로 평화를 위해 힘쓰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모든 것이 포괄되어 모자람이 없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데서 평화가 깨어진다고 볼 때, 정의와 공의가 서는 곳에는 평화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128]

성서가 말하는 정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인권 보장이며, 공정한 재판, 신의와 진실, 억압과 약탈의 폐기, 곤경 속에 있는 자의 구원이다. 그리고 나눔이 실현되는 것이 정의이다.[129]

---

[127]Moltma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26.

[128]김명용, "성서에서의 정의", *교회와 신학 24 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2), 231.

[129]Ibid., 235-245.

김명용 교수는 성령이 정의의 영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무지를 지적[130]하면서, 정의의 영인 성령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정의의 세계를 만들기 원하신다고 주장한다. 미래가 오늘 이 사회의 결과라고 본다면, 교회는 세계를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c) 창조세계에 대한 교회의 책임

앞으로 다가오는 21 세기에는 지구 생태계와 환경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기독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인간 영혼에 제한시켜 이해해 왔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간의 영혼의 죄악을 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으로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신학에서 발전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화해라는 새로운 기독론의 개념은 화해와 구원에서의 인간 중심적인 개념을 타파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인간의 영혼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1 장 20 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언급하고 있다.[131]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으며, 성령 또한 전체 피조 세계를 썩어짐과 허무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영이라는 것이다.[132]

때문에 교회는 인간중심적인 활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동물과 동물,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

---

[130]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268.

[131]골로새서 1 장 20 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32]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122.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져 있는 참된 평화의 세계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듯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인식해서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133]

d)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교회공동체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즉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제자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 위에 기초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으며,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고, 몸소 본을 보여 주시며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제자들의 본이 되셨다. 그것은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원형인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은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e) 종말론적 관점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

그러나 한 가지 교회의 사명 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종말론적 소망을 끊임없이 지향하며 세상 속에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스 큉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가 기도해야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를 실현하게 하소서” 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하였다. [134]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초월적이며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떤 동일성도,

[133]Ibid., 53-54.

[134]Kung, *교회란 무엇인가?,* 69-71.

나아가 어떤 연속성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서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135]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이웃에 대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 완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행위로써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이다.

3.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Social Fields)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실현되는 사회를 향해서 해야 할 사회적 책임 이행의 길은 무엇일까? 사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되심의 실제(reality)이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

판넨베르그는 교회가 성례전적 사귐을 통해서 인류의 정치적 이상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 실현할 실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정부나 정치적 혁명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질서에서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도 아니다. 개인과 사회의 반목의 최종적 해결은 인간 역사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종말론적 이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맞는 인류의 최종적 상태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지배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지

[135]마태복음 6 장 9-10 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않을 때만 비로소 사람의 사람에 의한 지배와 이 지배와 어쩔 수 없이 관계되는 정의롭지 못함이 끝이 난다.” [136]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사람의 사람에 대한 지배가 없는 사회를 가져 올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종국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미래의 실재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시사하는 바와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상하는 메시지의 출발점이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도 일치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역사의 마지막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에 근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인류의 보편적 정치적 이상의 선취(prolepsis)이다. 이 미래 실재에 대한 판넨베르그의 강조는 그의 보편 역사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기원은 19 세기 후반 때 바이스와 슈바이쳐가 주창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격 회복에 거슬러 올라간다. 판넨베르그에 따르면,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상징적인 방식으로만 오늘에 임한다. 교회가 갖는 성례전적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질 인류의 보편적 정치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선취적 형태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 성례전적 사귐은 인류가 역사의 종말에 실현할 공동체적 삶의 표징이다. [137]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다스리는 삶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선지자적 사명에서 찾아야 한다. 이 사명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미 실현되었고 미래의 최종적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전제한다. 칼빈과 바르트가 잘 지적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시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희생의 사랑(agape)을 세상에

---

[136]John Calvin, *Calvin's Commentary on Psalm*, 118:25 와 W. Pannenberg,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52, 70.

[137]W. Pannenberg, *The Church,* Keith Crim 역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151.

계시하였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실재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세상을 어두운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였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역사의 미래는 이것의 최종적 실현이다. Oscar Cullman 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 성육신(incarnation)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미래는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 하였다. 칼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Regnum Christi*)는 그가 이 땅에 온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138] 하늘로 올라간 후에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성령 안에서 진보를 이루고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된다(consummation)고 해석했다.[139]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에 실현될 인류의 마지막 보편적 정치 질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재이며, 복음 선포를 통한 이 하나님의 현재적 진보 역시 미래 실재에 이르기 위한 잠정적 실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재이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인 미래의 실재는 바로 이러한 과거의 시작과 현재적 진보에 기초한다. 왜냐하면 이 시작과 진보가 미래의 실재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매개하기 위한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은 첫째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이 땅 모든

[138]T. F. Torrance, *Kingdom and Church: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6), 115.

[139]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John T. McNeil and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II 권 16 장 14 항.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며 세상 사람들도 따르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자유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인간이 갖는 품위와 사람답게 사는 권리가 보장되는 삶의 공동체가 포함된다. 이 일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구속의 차원 곧 정의를 넘어서서 자기희생적 사랑의 원리가 현실에 실현되는 사회에까지 섬김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로, 선지자적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실재인 하나님의 나라를 매개하는 교회의 사명은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주는 것과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매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매개하는 교회의 일은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가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의 공동체가 되는 것과 늘 같이 간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이 주되심에의 순종이며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순종은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공동체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해 가도록 그리스도로부터 부름 받았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다스림을 받아 삶에 실천하도록 하게하고 나아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될 수 있다. 그 표징의 현실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는 사회 속에 있으며 사회는 교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교회가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와 사회를 성과 속이라는 이원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모습을 가르치고 행동하는 데는 소홀했음을 교회안에서 볼 수 있다. 교회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공부를 비롯한 교육도 성경의 지식을 축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인들이 많은 반면, 사회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방법을 배울 것을 목표로 교육을 받는 교인들이 적은 것도 한 예이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때에 하나님나라의 선포와 함께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등의 필요도 함께 채우심으로 선교 즉, 전도와 섬김을 함께 행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즉, 돌봄이란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돌볼 사람에게 부탁하고 부비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 섬김의 깊이를 가르치셨다. 즉,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결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A. 사회적 섬김을 위한 교회 이해

가. 칼바르트의 교회이해 - 세상을 위한 교회 공동체

20 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론은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을 기점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이는 신학이 강의실 에서만 맴도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교회의 신학이라는 구체적인 자각을 가져오게 하였고, 교회의 메시지, 선교, 위탁형태, 파송 등 신학의 중심문제를 등장시켜 성서의 기준에 비추어 음미하고 검토함으로 지난 2 세기 동안 프로테스탄트 근대 신학에 소용돌이쳤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주관적 경험주의와 주체적 실존주의를 그리스도론적으로 극복하는 길을 닦아 놓은 것이다.

바르트의 신학이 전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세력이 된 것은 그의 신학이 각 교회에다 영향을 끼친 것과 같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신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교회론을 가장 중요시한데 있다. 이는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과 이 계시의 증언으로서의 성서이고 교회는 신학하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바르트의 기본적 신학개념은 성서적 계약사상으로 하나님의 역사참여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창조의 관점에서 신학과제를 형성한다.[140]

그러기에 바르트는 교회를 하나의 사건(event)으로보며, 교회 속에 들어나는 계시를 그리스도의 전사건으로 보아 전적으로 그리스도론적 해석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며, 그리스도의 전 사건을 통하여 불림을 받은 백성들이 교회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는 것으로 이를 교회형성을 이루게 한 본체론적 근거이며 그 내용이 된다고 한다.[141]

바르트는 그의 교회교의학 Ⅳ/3 에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존재, 세상을 위한 교회존재의 본질을 '봉사'를 위한 교회공동체로 보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화해하시려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존재의 봉사와 제자직 안에서 세상과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바르트는 말한다.[142]

바르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와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면서도 동시에

---

[140]박봉랑, "교회의 신학(2)", *세계와 선교* (서울: 한신대학 발행 27 호, 1972), 22.

[141]은준관, *칼바르트의 교회론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121.

[142]Karl Barth, *Church Dogmatics Ⅳ/3* (Edinburgh: T.S.T. Clark, 1962), 762.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안에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임무가 있음을 말한다.[143]

첫째 교회가 세상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화해행위의 계시와 인식에 근거한 세상지식 속에서 세상과 대면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가 세상과 연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성령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는 곧 전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써 세상과의 연대성을 인식하고 확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피함을 의미한다. 교회의 특수성은 세상과의 진정한 연대성에 있다.

셋째 교회가 세상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관하여 앎으로써,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연대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으로써, 교회는 세상에 대해 함께 책임적이게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대성 아래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세상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들의 요구에 응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면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행동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또한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제의 근거에 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네 가지로 답변한다.[144]

첫째는 교회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오로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

[143]Ibid., 763-778.

[144]Ibid., 786-795.

반사하도록 허락 받은 빛이 됨으로서 오직 그에게 남은 것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뿐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 행동하시는 그래서 오로지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 없이 계시지 않으며, 항상 어디서나 인간과 더불어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친히 개입하고 희생하길 원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행동하시는 교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하며, 세상에로 보냄 받은 그의 운명에 함께 해야한다.

넷째 교회가 이미 왔으나 아직은 다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선행적 묘사, 지시 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립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유, 반사체와 반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 받은 세상의 소명은 교회의 존재의 비유 안에서 계속 됨으로써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나. 본 회퍼의 교회이해 -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

본 회퍼의 박사학위 논문인 Sanctorum Commuio 은 교회의 참된 형태에 관한 논문이고 교수자격논문인 Akt und Sein 은 그 당시 신학적 조류가 안고 있는 난제를 교회공동체에 집중함으로서 해결하려한 논문이다. 1933 년 그가 27 세가 되었을 때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교회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이기 시작하자 본회퍼는 학문의 길을 제쳐놓고 본격적인 교회투쟁과 정치투쟁을 벌이면서 교회의 본래적인 자리와 교회의 바른 실천에 관한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옥중에서

죽기 전에 성숙한 세상과 비종교적 해석에 관한 저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그는 이 저서가 교회의 장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145]

그의 교회이해를 위해서는 시기를 구분하여 그 시대 상황과 그의 전기적인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첫째시기(1926-32) 에서는 교회의 참된 형태, 둘째시기(1933-39)에서는 세상 안에서 세상과 싸우는 교회, 셋째시기(1940-45)에서는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교회를 말했다.[146] 이처럼 시기가 변함에 따라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도 그 역점이 교회에서 세상에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 시대의 이런 사상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의 밑바닥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가 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이다. 이같은 교회이해는 그의 신학의 핵심이므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세 시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a)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인 교회의 본성

본회퍼의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교회론은 1929 년-32 년에 이루어졌다.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인 베를린 대학에서 배운 본회퍼는 새롭게 등장한 계시의 신학에 공감하면서 교회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교의학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자유주의 신학과 계시의 신학을 종합하려 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시도의 산물이었다.

본회퍼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 인격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6 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깊은 고독과 죄를 경험하면서 한 민족의 죄를 경험하였듯이 타인과 인류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나는 너 없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없이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죄인들의 공동체(Peccatorum

[145]박재순, "본회퍼의 교회이해", *신학사상 55 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765.

[146]Ibid., 765.

Communio)를 경험함에 있어서 이미 성도들의 공동체가 보인다." [147] 본회퍼에 있어서 아담은 한 개인이면서 인류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한 그리스도인과 연합하면서 동시에 전 교회와 연합하신 것과 비교된다. 교회로서 실존하시는 그리스도는 개인과 집단으로의 교회와 연합하셨다. 따라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개인과 동시에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본회퍼는 인간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및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은 불가분리하게 얽혀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 있는 개인과 집단이 그리스도 안에 개인과 집단으로 개변될 수 있나를 문제 삼는다. [148]

본회퍼는 교회공동체를 원상태, 아담의 타락, 그리스도의 대리행위란 구원사적 맥락에서 논한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직접적인 친교(공동체)는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파괴되었다. 이 죄와 타락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이며 각 인간들의 의지가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감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파괴되고 인간은 전적인 고립 속에서 살게 된다. 죄의 깊은 고독은 죄의 공동성과 연결된다. 죄의 공동성은 죄의 인격적 고독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킨다. 죄의 공동성을 나타내는 인류의 집단인격이 아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대리적 죽음이라는 신학적 진술에 근거하여 본회퍼는 교회론을 전개한다. 죄에 의해 인간들이 극단적인 고립 속에 빠지고 공동적인 죄책의 사슬에 결박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에서 이런 고립과 결박이 지양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서 인간과의 친교를 회복하고 인간사이의 친교도 회복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친교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라는 옛 인간이 그리스도의 새 인간으로 바뀐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

[147] 이형기, *교회와 사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7), 90.

[148] Ibid., 90-91.

이루어진 새 인류, 새 공동체이다. 따라서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이 교회의 존재적 근거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로소 교회를 창조했다고 말한다.[149]

b) 세상과 대립하는 교회

본회퍼는 성도의 교제(1930)와 행동과 존재(1931)에서 교회정체를 분명히 하였다. 후자의 경우 바르트의 객관적 초월주의나 몰트만의 주관적 초월주의를 극복하고 계시의 구체성을 교회론에서 찾는다. 그런데 1930 년과 31 년의 교회론은 히틀러주의를 경험하기 이전의 것이었다. 1937 년의 제자의 길은 히틀러주의의 경험이후에 무엇보다도 고백교회시대의 경험과 더불어 쓰여졌다. 본회퍼는 이 작품에서 교회의 거룩한 삶, 그리고 세상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본회퍼는 값비싼 은총을 전제한 값진 순종이 세상을 향해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을 교회 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한다. 성화는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움츠러드는 성화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화이다. 제자의 길에 대한 표준은 십자가라고 한다. 이 때의 십자가는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순종의 표본이요, 순종의 모범이다. 그는 무엇보다 옛 사람의 죽음과 세상적 가치에 대한 죽음이 이 십자가의 길에로의 첫걸음이라고 하며, 분명히 옛 사람과 세상에 대립하는 새 사람 내지는 그리스도 왕족이 있음을 말한다.

성화의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인(교회)의 십자가는 복음적인 고난을 전제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서 오는 모욕을 감수해야 한다. 용서야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다.[150]

---

[149]박재순, "본회퍼의 교회이해", 767.

본회퍼는 산상수훈 풀이에서 교회와 세상을 날카롭게 대립시킨다. 그는 제자들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당시 독일 국가교회의 대표자들과 설교자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말한다. 참교회의 모습은 제자들 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찾음으로 당시 독일 교회에 대한 대립을 선포했다.

본회퍼는 교회의 세상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하는 이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교회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그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교회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요, 이 땅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주의 성도라고 한다. 그래서 본회퍼에게 교회란 자기 고유의 주권 영역과 삶의 장을 갖는 제자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교회(에베소서 5:27), 성도들의 공동체(고린도전서 14:33), 창세전에 채택된 사람들(에베소서 1 장)이라 주장한다. 교회란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직접개입으로 이 땅위에 세워졌다. 이 교회는 성 위에 세워진 등대이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과 이 땅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한다.

본회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세상을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싸워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이 교회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교회는 교회가 세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교회와 세상의 분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역확보를 위해서 쟁취해야 할 십자군의 싸움 그것이다.

---

[150]이형기, *교회와 사회,* 193-194.

c)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교회

본회퍼의 신학에서 계시적 교회론보다 경험적 교회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곳은 윤리학과 옥중서신이다. 이 후기 작품들은 교회가 역사적 상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적 메시지나 세례, 성찬, 신앙고백을 포함한 기독교적 예배를 통한 세상에의 대면보다 크리스챤의 올바른 행동에 의한 세상에의 대면을 강조한다.

본회퍼의 사상은 초기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에서 후기의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로 발전해 나갔고, 본회퍼는 신약성경시대 이후 문제된 두 왕국의 갈등을 비관적으로 관찰하면서 한 영역은 신적이고 거룩하고 초자연적이고 다른 영역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며 자연적이고 이성적이며 비기독교적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계시와 신앙에 입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현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151]

왜냐하면 교회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한 조각의 영토를 빼앗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시 세상은 세상인데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받은 세상이요, 하나님께 화해된 세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을 선포해야하기 때문이다.[152]

윤리학속에 나타난 본회퍼의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관계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사회참여 문제는 옥중서신에서 결정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통해 교회의 갱신을 부르짖고 있다. 옥중서신의 끝부분에서 그는 교회의 특수성과 사명을 세상과의 관계에서 말한다. 즉 교회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얻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151]Ibid., 252.

[152]D. Bonhoeffer,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74.

전적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실존한다. 즉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자를 위한 실존에 유비하여 오직 세상을 위해 실존해야 한다.

히틀러를 옹호하는 독일 국가교회에 반대하여 교회의 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153]

"교회는 인류를 위해서 실존할 때만 참다운 교회가 존재가 된다. 교회는 새로운 출발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사회생활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 교회는 무슨 직업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타자를 위해서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야 한다." [154]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 인간으로서 살면서 타자를 위한 실존(Being for Others)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용해되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교회요, 세상은 세상이지만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자체 안으로 대항하는 중세기적 이중구조를 무너뜨리고 한 기독교인은 하나의 참된 인간으로서 타자를 위해 실존해야 한다는 것이다.[155]

다. 몰트만의 교회이해 – 삼위일체적 봉사의 교회

몰트만은 그의 교회 이해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없으며, 모든 교회이해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빛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인격의 그리스도이다. 그는

---

[153]이형기, *교회와 사회,* 290.

[154]Dietrich Bonhoeffer, *옥중서신* ,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42.

[155]이형기, *교회와 사회,* 297.

단지 하나님의 신격만을 대리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대리한 분이다. 예수는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활동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이 역사 속에서 앞당겨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주가 되셔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앞당겨 일어난 것이다.[156]

a)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를 기초로 하여 교회 공동체를 종말시의 출애굽 공동체로서 이해한다. 종말론적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교회이해를 전개함에 있어서 제 2 이사야서를 중심하는 예언자적 전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적 선교는 제 2 이사야서의 예언적 지평 안에서 살펴진다.
제 2 이사야서는 포로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며 곧 도래할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와 승리가 선포되고 있다. 예언자들의 이런 선포는 종말론적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 안에서 앞당겨 일어났다.

종말론적 출애굽 운동은 공간적 운동이 아니라 억압의 과거로부터 자유의 미래로 향하는 역사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종말론적 출애굽 공동체는 죄, 죽음, 율법의 악순환적 사슬로부터 하나님의 의, 생명, 은혜로 향하는 존재 자체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 운동의 목표는 노예생활을 하는 피조물이 모두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것이다.

---

[156]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외 4 인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88-90.

그는 출애굽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논의하면서 교회의 자리에 관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서 교회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명을 강조한다.[157]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 곳에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도직과 성례전, 신앙공동체의 형제적 사귐 가운데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5:31-46 의 약속에 따라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곳으로 가야한다. 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사이에 계시므로 교회는 현존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158]

b)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를 따라서 교회를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 이해한다.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은 구약성서의 제사장적 직무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교회 안의 제사장적 직무 이상의 것을 지시하며, 전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해방에까지 이르는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를 이어받은 교회는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 율법주의적 삶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이며, 지배권력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버림받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인 것이다.[159]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은 삽자가 아래에서 이 세계의 기존질서의 희생자들과 함께 고난받고 또 함께 유대를 가짐으로서 이 세계의 변혁에 봉사하는 것이다. 몰트만에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교회가 이 세계의 고난에

---

[157]Ibid., 138.

[158]Ibid., 146.

[159]Ibid., 101.

참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에서 더욱 분명히 경험된다. 교회는 이 세계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곧 가난한 자, 불구자, 갇힌 자들과의 유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들어가며 동시에 정치적 사명을 실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의 정치적 사명과 사도적 고난의 사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언급함에 있어서 이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거룩함은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교회의 가난함에 있으며 이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의 고난받음에 있고, 이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보편성은 힘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당파성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결국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사명을 부여받으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계승하는 동시에 정치적 사명을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160]

c)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동료 공동체로서의 교회이해를 전개한다. 죽는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이 세계는 주님으로 인정되었으며,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가 되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높여진 것과 그가 자유의 영 안에서 왕적인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161]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확립되는 것과 결부되는데, 이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역사적 예수가 왕으로 군림하는 예수의 인격숭배로서 이해하지 않는다.

[160]Ibid., 110.

[161]Ibid., 119.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의 왕이며 주님이신 분이 역사적 예수의 낮아진 삶을 통하여 섬기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이 세계의 주님이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셔서 버림받는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통치는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따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데에 있다. 여기에 모든 가치의 전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는 이 세계의 군주들의 억압적 지배와 전혀 다른 것이다. 참된 통치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나타나듯이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랑과 봉사의 실천에 있으며, 섬김을 받는데에 있지 않고, 섬김을 통하여 해방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지배자들의 권력을 통하여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세우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나타난다. 교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왕적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를 따라서 이 세계의 해방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162]

B. 교회의 사회적 역할

가. 세상에서의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유대교에 있어서 교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는 흩어지고 감추어져 있으나 장차 모여서 이루어질 종말의 하나님 백성을 가리켰다. 이에 해당하는 희랍어 *εκκλεσια του θεου*가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으로 통용되었고, 오늘날 간단히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는 말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 복잡한 의미와 뉘앙스를 띠게 되었는데,

[162]Ibid., 124.

희랍어형인 κυριкε로서 주님께 속한이라는 뜻이다. 즉, 주님께 속하는 집이요 주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163]

70 인역에는 이 말이 약 100 번 나오는데 거의 모두가 세속적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קאהאל (카할, 소집된 모임)에 해당된다. (법적, 종교의식적, 공동체로서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synagoge 로 번역되어 있다.) 에클레시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주님의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이다.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이어받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참 하나님의 집회, 참 하나님의 공동체, 참 종말의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이며,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164]

교회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상으로부터(from the world) 불러내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성장한 후, 다시 세상으로(into the World) 파송되어지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성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며,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내포하는 것이다.[165]

C. W. Williams 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의 사건(event)이며 하나의 운동이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며 이동하는 순례의

---

[163]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813.

[164]Ibid., 812.

[165]박철수 외, "교회의 본질과 모습", *오늘의 기독교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서울: 대장간, 1991), 70.

백성이다. 이 참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건이며 또한 이 사건은 제도적 유산으로 보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166]라고 정의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의 요청과 희망을 중심으로 종의 형태를 취하는 장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인류의 삶에 따르는 문제에 해답을 분배하거나, 현대의 변화하는 질서 속에 완전한 참여자로 왔고, 세계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의 소유자로 왔으며, 상정된 안정과 질서의 장벽을 넘어서는 공동체 창조력인 종의 사랑을 가지고 온 것이다.[167] 또 그리스도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세상에 내어주었으며 종으로서 세상 속에 살으셨다. 이같이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 종으로서의 참여가 지당하다. 이제 교회는 세속 속에 신(God)의 개입을 위하여 성스러운 영역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던 옹졸한 태도를 타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개방적 태도로 옮겨감으로서 교회는 현대의 중대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현존의 종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168]그리고 교회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사건이요, 돌발사이며,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사건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사건의 종인 것이다.

나. 선교적 교회의 사회 사명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복음의 선포요 증거로서 나타나야 한다. 그 선포의 모습은 하나인데 그 나타내는 방식은 여러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됨을 볼 수 있다.

---

[166]C. W. Williams, *교회(The Church)*,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25.

[167]Ibid., 29-30.

[168]Ibid., 37.

a) 선교의 일반적 정의

선교란 단어는 영어로 미션(Mission)인데 이것은 라틴어 미토 (Mitto)에서 나온 것으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8:18-20 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구절에서 이 단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169]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의 영역을 떠나 다른 문화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선교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먼저 선교라는 단어를 다시 연구해 본다.

b) 선교의 어원적 정의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없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마 태복음 28:28 에서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가 있고 마가복음 16:15 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으나 이 단어들이 mission 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8:18 과 마가복음 15 장 모두 '포류텐테스' 로서 어근은 '포류오마이' 이다. 이 뜻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다'라는 단순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 단어의 용법은 대단히 다양함을 볼 수 있다.[170]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가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미션(mission)이라는 단어 '보낸다'는 뜻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선교의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와 요한복음 20:21 "예수께서 또

[169]김성환, "기독교 선교에 관한 연구" (서울: 총신 대학 부설 설교 연구소, 1990), 1.

[170]Friedrich G.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 T.* (Michigan: Eddermans, 1973), 915.

가라사대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이다. 요한복음 17:18 의 보낸다는 것은 모두 '아페스테이라스' 이며, 20 장 21 절의 경우는 '아페스탈켄' 과 '펨포' 이며, '아페스탈켄' 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펨포' 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신약에서 문자적으로는 가다, 여행하다는 뜻을 가지며(누가복음 13:33, 19:16 ; 사도행전 9:3, 10:20 ; 고린도전서 16:4, 6) 때로 출발점을 나타내기도 한다(누가복음 13:31). 또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뜻을 나타낸다 (누가복음 22:22). 선교의 의미도 나타낸다(마태복음 3:5 ; 누가복음 4:42 ; 마태복음 19:15 ; 누가복음 9:58). 사도들은 이곳 저곳으로 다니는 것을 의미하며(요한복음 20:17) 도덕적 종교적 의미도 갖는다.[171]

여기서 '아페스테일라' 는 '아포스텔로' 가 원형으로 그 뜻은 '펨포' 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차이가 있다.[172]

그러나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이 단어가 단순히 보낸다는 의미에 집착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는 자와 보내는 자와의 관계에 더욱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c) 전도와 선교와의 관계

선교라는 단어와 전도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먼저 선교사라는 단어의 사용 기원부터 살펴본다. 영어의 미션나리(missionary)라는

---

[171]Ibid., 67.

[172]'템포' 와 '아포스텔로'는 희랍어에서 통상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다. 물론 두 단어상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템포'는 '펨페인'에서 나온 것으로 '보내게 되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며 '아포스톨로'는 보내는 것이 특별 하고도 독특한 입장에서 보낸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히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의 관계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활과 관계 성을 강조한다. Ibid.

언어는 13 세기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다.[173] 의미는 세상에서 사도생활과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someone who is sent)이다.[174] 그러나 이 단어가 오늘날의 선교사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다. 또 선교사 또는 선교라는 단어가 이 이후부터 그 의미를 가지고 꾸준히 사용되어 진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선교(mission)라는 단어보다는 전도(propagation)[175]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도 예외가 아니다.[176] 선교 (mission) 라는 단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1786 년 영국에서 [서부 인도 감리교 선교회] (Methodist Mission to the West India)를 세웠을 때이다. 그렇다고 미션(mission)의 의미가 오늘날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역시 전도 (propagenda)의 의미였다.[177]

오늘날처럼 선교라는 단어가 정착된 것은 바르넥(Gustau Warneak)이 1897 년에 저술한 복음주의 선교학 (Evanyelishe Missionslehre)으로 본다.[178] 그러므로 이당시까지만 해도 선교와 전도의 관계는 전도가 더 포괄적 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선교가 전도의 의미를 포함내지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같이 된 이유는

---

[173]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 문서 선교회, 1988), 13.

[174]Ibid., 13.

[175]K. S. Latourethe, *A History of the Eopansion of Christianity: Three Centuries of Advance, 1500AD to 80AD* (Michigam: Zandervan, 1970), 9. Tomas Thampson 이 1752 년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면서 사용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174 까지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한 단어이다. Moravian 들이 선교할 때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했을 때도, 또 신대륙으로 이주한 자들을 위한 전도도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Ibid., 186-246.

[176]1622 년 Gregory 15 세는 Congregatio de prepaganda fide(신앙 전파 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고, 1822 년에도 Association for the prep- agation of the Faith (신앙전파를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Cross, *The Oxford Dictiono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1963), 908.

[177]Ibid., 908.

[178]H. Bavinle,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16-17.

1910 년 에딘 버러 대회의 결과라 고 본다.[179]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전에는 선교학을 일명 사도학(apost-elics) 또는 증가학(Prosthetics)이라고 하였다. 이들 개념은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사도학의 경우 복음증거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냄은 곧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도적 권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180] 이에 비해 교회인원이 복음 증거 결과 증가한다는 의미를 강조함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에딘버러 (Edinbugh) 선교대회와 1928 년 예루살렘 선교 대회를 기준하여 선교의 방향이 복음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사회 복음으로 기울어 진 것이다. 이같이 된 이유는 각 선교단체가 교리적 일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 교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업 즉 통계 수집, 마약제거운동, 교육, 성경번역, 출판, 병원 설립 등에 힘을 쓰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선교의 개념은 전도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고 과거의 순수한 개념에서 보다 이탈되고, 확대되어 결국 하나님 선교(mission Dei)의 앞길을 예비하였다.

선교는 여러가지 교회의 기능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안에서 가까운 지역 선교(전도) 에서부터 세계적인 선교를 충성스럽게 담당해야만 한다.

지역선교인 전도나 세계선교는 타문화권 선교가 불가피하며 타문화권 속에서의 선교활동은 선교사가 지니고 가는 문화와 현지 문화간의 조우를 불가피하게 한다. 현대 선교신학에 있어서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방법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실제로

---

[179]채은수, *선교이슈들* (부산: 광야출판사, 1988), 6-7.

[180] H. Bavinle, 18-19.

1920 년대 부터 선교학은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한 타문화권 선교(Cross-Cultural Missionary Enterprise)를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문화 인류학의 통찰과 방법론을 도입하여 세계선교의 체제를 정비 하면서 선교사들을 재 훈련하여 세계 선교를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181] 왜냐하면 지리와 역사, 언어와 민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문화적 장벽을 올바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다.[182]

문화와 전도 그리고 선교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배경을 넘어 선교를 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접촉점에 관한 것을 재평가하고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며 이것을 통해 선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눈을 뜨기위한 것이다.

접촉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실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 사건이라 가정할 수 있다. 주의 말씀은 모든 문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유일한 예이며,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재 - 이기 때문이다.[183]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선교문화인류학적인 접근방법인 타문화권에서의 경험(Cross-cultural experiences)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

[181]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0), 5.

[182]Ibid., 6.

[183]Sherwood G. Lingenfelter, and Marvin K. Mayers, *문화적 갈등과 사역,*, 황태종 역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89), 12.

인종과 나라 자체가 전혀 다른 타문화 선교를 위한 기본태도(Basic assumption)를 설정하고, 실제로 타문화 선교사역에 임하는 선교사의 성육적 선교의 자세와 이를 위해 타 문화권 선교사가 준비해야할 것들을 통해 현 우리의 뉴욕이라는 지역적 환경과 시대적 여건을 준비하여야 한다.

C. 문화와 선교 (Culture and Missions)

가. 문화의 일반적 정의

문화라는 말은 경작하다, 개간하다(to till or cultivate)라는 뜻의 라틴어 *colore* 에서 온 말로써 개화된다 (having culture) 또는 문명인이 된다는 말과 같이 사용된다.[184] 문화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룩마커 (H. Rookmaker)는 문화란 용어는 지적이고 심미적인 탐구들에 제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이중성은 우리의 근대 문명의 부조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 생활은 하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는 단순히 우리의 자연과 그 자원에 대한 이용뿐만 아니라 생활의 형식과 습관과 제도의 창조이다. 한 농부가 밭을 갈 때 그의 방법들과 도구들은 모두 문화의 부분이다" [185]라고말한다.

Kluckhohn 은 문화를 "한 백성의 총체적인 삶의 방법이요, 개인이 단체로 부터 얻는 사회적인 유산이요, 삶에 대한 인간의 설계" [186]라고 정의하며, 문화는 인간과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인간의 자발적 영역에서 오는 인간 본연에 심어진 영적 충동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다.[187] 문화인류학적(Cultural Anthropology) 정의로는

---

[184]김재수,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자유출판사, 2008), 2.

[185]H. Rookmaker, *The Creative Gift* (Westchester: Cornerstone Books, 1981), 42.

[186]채은수, "선교와 문화", *신학지남* (봄호, 1983), 163.

[187]채은수, "문화적 측면에서 본 선교", *신학지남* (여름, 1983), 40.

“문화는 모든 역사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과 경험의 형태와 시나리오의 통전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이 이 체계를 공유한다”[188]이며 간결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적 정의로는「뉴 브리태니카 백과사전(The New Encycolpaedia Britannica)」(1977)의 문화 항목으로 “문화란 행위의 일부인 물질적 객체들과 아울러 특별히 인간에게 행해진 행위(behavior)이다. 문화는 언어, 이상, 신념, 습관, 규범, 제도, 도구, 예술 작품 등등으로 구성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정의에서 문화는 인간활동의 총체적 과정과 결과로서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것을 개량 내지 연단하는 활동이며 인위적이고 이차적 환경이라 할수 있다.[189]

나. 문화의 성경적 근거

a) 인간과 문화적 책임 : 창세기 1,2 장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의 문화적 책임은 다스리다(dominion), 정복하라 (subdue),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에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첫째로 인간이 문화적 책임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땅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는 문화적 존재이다. 둘째로 인간의 이 문화적 책임은 하나님의 뜻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실존구조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문화적 책임을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이라고

---

[188]김용복, “문화선교의 신학과 그 과제”, *기독교 사상* (9, 1983), 19.

[189]김영한, “기독교적 문화이해”, *신학사상* (39 집 겨울, 1982), 843.

부르는데 그것은 땅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하나님 뜻에 근거한 종교적 의무라는 의미이다.[190]

b) 타락과 인간의 문화 사역 : 창세기 3 장

창세기 3 장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의 모습과 그 저버림이 문화사역에 미친 영향이 나타나 있다. 문화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미친 이 언약파기의 결과는 심판이다. 그러나 두 가지 희망의 표적(sign)이 있는데 첫째는 여자가 모든 산 자의 어미란 뜻에서 하와라고 이름지어진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께서 겉옷을 지어 남자와 여자를 입히신 일이다.[191]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긴 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씀(창세기 9:6, 야고보서 3:9)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과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직을 감당할 것(창세기 9:1-3,7)을 기대하시며, 일반은총을 허락하셔서 모든 인간들이 노력을 통해 발명을 하고 능력을 보이고 결실을 보게 하신다.[192] 인간은 아직도 인간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190]Holbert E. Weber,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34.

[191]Ibid., 35-36.

[192]Willow Bank Report, "Gospel and Culture", *복음과 상황* (Willowbank, Bermuda: Somerset Bridge), 1991), 186.

c) 문명과 문화의 시작 : 창세기 4 장

4 장에서는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온 땅에 퍼져 나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풍성한 통찰력을 제공한다.[193] 즉 카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갔고,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두 계열의 인류와 문화 발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화를 발전시켜 보려는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찾아 볼 수 있다.[194]

d) 인간의 부패와 문화의 파멸 : 창세기 6-8 장

우리는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간 문화의 건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 이야기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표현하면서 죄가 인간 전 실존의 구조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써 인간에게 닥쳐온 이 나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자기 파멸적인 역사의 경로를 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으신다. 바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며 새 창조하시기를 준비하셔서 인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195]

---

[193]도시를 건설하고 가축을 기르고 악기와 철기도구를 만들어내는(창 4:17-22) 문화적 혁신자들은 바로 타락한 카인의 후예들이었다.

[194]Holbert E. Weber, 40.

[195]Ibid., 44-45.

e) 인간의 문화적 책임의 갱신 : 창세기 9-11 장

인간은 다시금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1)는 명령을 받게 된다. 여기에 모든 피조물이 "매우 좋았더라" (창세기 1:31)하는 처음의 가치판단은 생략되었다. 이미 창조의 질서 (Hamony of Creation)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과 스스로를 즐겁게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이 새로운 시작에서도 그의 본질적인 성향으로 남아 있게 된다.[196]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단지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계열을 통해서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197]

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문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 계시를 듣는 사람들의 자신의 문화를 통해서 주어졌다.[198] 신약성경의 언어와 사고형태는 유대적, 헬라적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고, 바울에게도 또한 희랍철학의 어휘로부터 뽑아낸 것이 있다. 그러나 성경기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단어와 비유들을 빌려서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은 성경에 의해 인도되었으므로, 성경기자들은 그릇되거나 악한 의미들은 씻어내고 진리와 선을 전달하는 매체로 변형시켰다.[199]

---

[196] 이 개념은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인간은 자신들의 이름을 낼 건축물을 만듦으로써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욕망을 자아낸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숭배와 자기 영화 추구의 욕망은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고 말았다.

[197] Holbert E. Weber, 45-48.

[198] Willowbank report, 187.

[199] Ibid., 188.

라. 그리스도와 문화

하나님과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을 지으셨기에, 그에게 문화가 전혀 무관한 것일 수 없고, 무책임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문화에 초월하신 분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문화를 매개체로 삼는 사실을 볼 때, 문화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매개체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초월자이신 그 분을 인간 문화에 속박시키는 것도 불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200]에 이어서 H. Richard Niebuhr 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말하고 있다.

a)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이것은 하나님은 문화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전적인 권위를 단호히 긍정하는 것과 문화에 대한 충성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201] 타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15-17)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과 문화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 또는 문화의 양자 택일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서 양자택일을 말하고 있다.[202]

그러나 신약의 세상이라는 "*kosmos*" 라는 말은 악의 세력에 감염된 특수한 문화의 어떤 면을 언급함이지, 결코 전체문화를 말함은 아닌 것이다. 즉, 하나님보다 문화적인 삶의 원리에 고착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함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문화를 사용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

[200]장중열 박사는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크게 3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서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는 사상이며(separational), 둘째는 교회는 세상과의 담을 무조건 제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태도요(identificational model), 세째는 문화 속에 많은 악이 있지만 적극적 자세로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상(transformational model)이다. 장중열, 146.

[201]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52.

[202]Ibid., 151.

문화를 송두리째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문화의 종목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203]

b) 문화 안의 그리스도 (Christ in Culture)

이 주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화를 해석하는데 문화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사업과 인격에 가장 일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동,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등에서 문명 안에 있는 최선의 것과 일치된다고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그리스도와 조화시킨다.[204] 여기서 그리스도는 인간문화의 최고의 개화이며 휴메니티의 교육가가 된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205]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초월적인데서 상대적인 곳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방법, 세계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분 옳을지 모르나 온전하지는 못한 것이다.[206]

c)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신은 세계를 창조한 후에 인간문화 밖에 초월해 있으면서 인간문화속에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207] 이러한 견해는 성서에 기록된 인간에 관심을

---

[203]채은수, *선교와 문화 (Missions and Culture)* (서울: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90), 54.

[204]H. Richard Niebuhr, 89.

[205]장중열, 153.

[206]채은수, 55.

[207]장중열, 154.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며 그 문화까지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성서의 증언과도 거리가 멀다.

d) 문화와 역설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니버의 신과 문화사이의 관계개념은 신은 문화를 초월한 존재로 보며 또한 "그러나 신은 문화를 신과 인간과의 상호관계의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는 분"으로 보고 있다.[208] 이 견해는 그리스도나 문화가 다같이 순종되어야 할 권위이며, 믿는 자는 두가지의 원리를 함께 존중해야 함으로 긴장 가운데 처한다는 것이다.[209]

e) 문화의 변혁자이신 그리스도 (Christ and Transformer of Culture)

이 견해는 문화란 타락한 인간의 산물이므로 분명히 죄성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로 인간이 속량받을 때, 문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그의 뜻을 실현시키겠끔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문화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문화는 운반자(Vehicle)로서 인간에 의해서만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것과 비 기독교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형태가 따로 없는 것이다. 그것을 기독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210]

---

[208]Ibid., 156.

[209]채은수, 56.

[210]Ibid., 56.

D.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선교 (Service and Mission)

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섬김의 개념

a) 섬김의 의미

섬기는 공동체로서 교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로서 섬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섬김(디아코니아)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여 왔고 다의적이다. 헬라어의 디아코니아 (diakonia)란 말은 일반적으로 섬김 혹은 봉사로 번역하는데, 신약성서에는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식탁에서 시중들기, 육신의 양식을 조달하기, 혹은 식사를 관장하여 식사를 공궤하는 일을 의미한다. 둘째, 넓은 의미로서 사랑에 찬 섬기는 일을 의미한다. 사랑에 찬 섬김이란 다양한 봉사들인데,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 이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화목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에서의 중심사상이다. 셋째, 어떤 의무들의 수행을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나 마가와 같은 조력자들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넷째,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행위를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로마서 15:31, 고린도후서 8:1, 사도행전 11: 29-30) 모금하는 행위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모금이 결코 부수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봉사이기 때문이다. 디아코니아를 한 마디로 하면, 디아코니아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11]

그런데 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섬김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화해의 섬김, 봉사 혹은 사역이란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20:28)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의 봉사는 참으로 큰 사명이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에 있는 동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211]김종렬, "섬기는 교회상의 회복과 정립", *기독교 사상* (5, 1989), 57.

전하였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눌리고 소외당한 자를 위로해 주었다. 누가복음 22 장 26 절-27 절의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에서 예수의 관심사는 단순한 부양이나 자선이 아니었다. 그의 근본 관심사는 남을 위한 존재에 있다.[212] D. J. Hessel 은 그의 저서 Social Ministry 에서 디아코니아에 대한 성서적 개념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디아코니아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해방시키는 목적이 있다. 둘째, 단순히 교인 증가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값어치가 있다. [213]

이런 점에서 섬김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봉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섬김은 그리스도 사건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그리스도 중심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를 향한 섬김(diakonia)의 정의는 곧 복음의 핵심인 구원과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회를 향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b)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섬김의 목표

디아코니아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최우선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교회협의회의 '디아코니아의 현대적 이해' 에 관해 제네바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세상에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 봉사를 통하여 투쟁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성서에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본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

[212]R. C. Cushing, *The servant church* (Boston: Daughtes of St. Paul, 1966), 127.

[213]D. J. Hessel, *Social Ministr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47.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사야 65:17-25) 그리하여 우리들은 장차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의 봉사사역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져야 할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적인 차원이다. (마태복음 25:31-46)" [214]

한편 아시아 교회협의회는 1984 년 9 월 3 일-8 일 말레이지아의 포트 닉슨에서 디아코니아 협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회봉사의 목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주의 모든 백성들이 코이노니아의 정신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즐거움이다." [215]

c) 하나님 나라 섬김의 기능 및 특징

교회의 사회적 기능은 이웃과 사회를 향해 섬기도록 요청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의 기능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종 되심으로 표현된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몰트만도 교회를 종말론적인 이해와

---

[214] W. C. C. "Diakonia Consultation"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Diakonia* (Geneva, Switzerland: WCC Publication, 1983).

[215] C. C. A., "Diakonia consultation" (말레이지아 포트닉슨 사회봉사협회, 1984). 홍은해, "교회성장과 사회봉사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장신대대학원, 1989, 9.

종으로서의 교회사명을 소개하고,[216] R. C. Cushing 은 종(Servant)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는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단순히 선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실현을 목적으로 자신을 몸소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이웃을 향한 섬김, 치유, 화해를 위해 오셨고, 그러한 삶의 독특한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양식속에 나타난다. 그는 세상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인간의 입장을 취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 위해 기꺼이 주셨다. 그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실제로 죽으시며 또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의 종이 되신다. 그는 고난의 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종의 모습을 지닌 교회 (The Servant Church)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회는 말, 설교와 전도로써 만이 아니라 화해, 치유, 섬김의 구체적 실천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가 타인을 위한 존재처럼 교회 역시 이웃을 위한 공동체 (the community for others)가 되어야 한다.[217]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으로 교회의 참 모습을 세상에 세울수 있게 되며, 성직자는 일반 세속 인간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되, 지배적 성격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자세로 적극 참여해야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디아코니아 기능은 이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교회협의회(W. C. C.) 총회[218]는 사회 봉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19]

---

[216]J. Moltmann, *Theology of Hope* (London: SCM Press, 1967), 32-75.

[217]Richard C. Cushing*, The Servant Church* (Boston Daughtes of St. Paul, 1966), 6-8, 고용수, "교회의 사회봉사와 기독교 교육적 이해",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53-154.

[218]1983 년 벵쿠버에서 열린 총회에서 결의 된 내용.

첫째, 디아코니아는 교회생활과 자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질적인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이며 섬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 것처럼 제자된 우리의 도리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섬김의 중심에는 성만찬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로써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던 것이다. 사회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둘째, 섬김의 출발은 지교회에서 하여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지역의 주도권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디아코니아는 출발한다. 섬김은 봉사기관에서 하는 일이며, 개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고쳐야 하고 기독교의 섬김은 개교회 공동체의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섬김이라기 보다는 사업으로 전락하기 쉽다.

셋째, 개교회의 봉사활동은 세계전체의 디아코니아와 연결된다. 세계 전체의 봉사활동과 연결될 때 좁은 안목에서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되고, 특수하거나 특정영역에 국한되었던 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세계전체의 안목에서 봉사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빈곤과 질병의 정치적 국제적 경제구조를 보게 되고, 그 구조를 인식함으로서 교회의 봉사활동에 국제적 연대의식이 요청되어 국제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의식하고 투쟁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오늘의 디아코니아는 예방적이어야 한다. 지금가지의 구제사업은 문제이후의 해결중심의 일들이었는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을 없이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디아코니아가 예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혹은 정치적 국면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빈곤의 구조, 억압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조적

---

[219]서광선, *디아코니아의 현대적 의미* (서울: 기독교사상, 1983. 6), 101-103.

투쟁과 정치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정의의 문제가 직결되고 인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으로 봉사의 목적은 정치적이 아닐 수 있지만 정치적 봉사는 빈곤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억압의 악순환을 제거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여섯째, 디아코니아는 인간주의적이어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기독교회나 기독교인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전체 안에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다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교회가 봉사활동을 할 때 그 봉사는 모든 사람을 향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격차를 넘어서는 인간적이며 범인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디아코니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참된 섬김은 받는 자의 귀중함을 인식하며, 따라서 주는 자의 우월감은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를 취하셨고,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의 자리는 주님의 고통과 함께 섬기는 종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주는 자가 가진 물질이나 특권이 있다면 그것 역시 없는 자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기득권에 불과한 것이니 권력이 있는 자는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그 기득권에 불과한 것이다. 권력이 있는 자는 디아코니를 통하여 그 기득권을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주는 자는 나누어줌으로써, 소유 때문에 생기는 절망과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니, 소유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이웃과 동등한 입장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덟째, 디아코니아는 해방하는 것이다. 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한다. 받는 자가 주는 자와 동등한 입장에 서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하니 교회는 억눌린 자들과 함께 동참하여야 한다. 그들의 문화적 틀 안에서 참여와 권리 획득을 위하여 눌린 자들은 스스로 의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섬김에 대한 성서의 이해

a) 구약성서의 섬김에 대한 이해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봉사의 사상은 모세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엑소더스(Exodus)사건으로 귀중한 자유를 얻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극빈자, 이방인, 노예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소외되고 약한 가난한자들에게 사랑을 기울였다.

ㄱ) 계약법전에 따른 섬김의 사상

계약법전은 이스라엘법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정을 수립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법전의 근간은 이스라엘 12 지파 연맹의 사회생활의 규제를 위한 관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전이 전제하는 사회상은 정착사회이다. 즉 정착화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첫 시도였다. 이 법전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고리대금을 금지하며 담보에 관한 새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며 특권층에게 사회의 불의에서 취할 기본적인 태도를 제시한다.

ㄴ) 빈곤자에 대한 생존권

i) 극빈자의 대상

기원전 7 세기의 앗수르 니팔 왕은 천한 자, 병약자, 가난한 자, 고뇌에 빠진 자, 아들이 포로에 끌려간 어머니, 광야의 목동이 빈자들이라 하면서 그 중에 관약을 기울인 대상은 가난한 자 등이었다.[220]

ii) 가난한자에 대한 생존권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채권자는 이자난 빚을 못 갚는 채무자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취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도 부채는 노예를 만드는 방편이 되었으나계약법전은 고리대부를 단호히 금지하였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출애굽기 22:25)라고 규정하였다. 반대로 무이자 대부는 형제적 유대와 백성의 일치를 위하여 추천하였다. 당시의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에서 고리대부가 죄악시된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 형제를 착취하는 죄악으로 간주하였다. 계약법전은 못 갚는 빚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221]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것이 이 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26-27) 고 규정한다. 담보의 지나친 요구를 제한하여 좀더 인도주의에 입각한 제도로 개선시켰다. 담보를 돌려주라는 이 규정은 생존권을 위한 빈자의 정당한 권리를 의미한다.

---

[220]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1987), 16.

[221]N. C. C.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71-72.

c) 나그네에 대한 생존권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2:21)고 했다. 이방 나그네(ger)는 나라 안에 이민 와서 사는 자유인으로서 시민권의 일부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유재산권이 없고 보호해 주는 법적 후견인도 없다. 이들은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계약법전은 이민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한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의 견제와 학대를 거울삼아 이민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독려한다.

"너는 6 년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 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출애굽기 23:10-11). 7 년째되는 해의 휴기는 당의 다산을 위한 금기도 아니며 유목민적 현상에서 유래한 것도 아니다. 휴한의 법령은 출애굽의 정신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왕정시대에 거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백성의 가난한 자는 바로 이를 뜻한다. 이 법령이 실존상으로 실천에 옮겨진 기록은 없으나 빈휴화현상을 막고 사회적 불평등을 억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d) 고아와 과부에 대한 생존권

구약시대의 과부와 고아는 불행한 상태에 있었고 흔히 억울한 대우를 받기 쉬웠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언급된다.[222]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2:22-24).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요 고아의 보호자라고 선포한다. 따라서

[222]신명기 10:18 과 예레미야 49:11.

과부와 고아도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돌보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요 야웨가 사랑하는 야웨의 백성이다. 그들에게 지상에서 보호자가 없을 경우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로 나선다.

e) 노예의 생존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 년동안 섬길 것이요, 제 7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출애굽기 21:2-4). 가나안 정착이 진전되어 가면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부채 때문에 자기 몸을 종살이에 넘기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부채 때문에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일이 비록 이스라엘 안에 허용되었지만 계약법전은 히브리 노예에 대한 해방과 그 밖의 인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계약법전은 사회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예의 출현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이스라엘은 형제들로 구성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형제가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도 마음대로 착취할 수는 없고 안식년이 되면 노예에서 풀려날 권리가 있다.[223]

다. 신명기 법전의 섬김에 대한 이해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에 이스라엘은 균등한 사회적 조건에서 살았다. 그러나 B. C 10 세기에서 8 세기에 이르는 200 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오면서 왕정이 수립되고 균등한 사회가 깨어져 부의 축적이 가능한 사회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위기 앞에서 신명기법전은 사회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신명기법전은 이미 성문화한 전승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고대 율법을 다시 모아 새 시대에 부응하는 법적

---

[223]서인석, Ibid., 75-77.

조치를 강구한다. 이 법전이 꼴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경제적 번영의 전성기였던 B. C 787 –747 년이었고, 당시 10 지파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정신은 토지의 소출을 골고루 나눠가져 극빈자의 속출을 막자는 것이다.

a) 극빈자를 위한 십일조

십일조는 자기 소출의 10 의 1 을 바치는 규정으로 이스라엘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의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이란 점에서 이스라엘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십일조는 바치는 것과 함께 사용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서는 십일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함도 분명히 한다.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일조를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과부와 고아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6:12). 여기서 십일조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의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십일조의 정신은 주님을 섬기는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그 중심사상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b) 면제년의 규례

면제년의 규례는 극빈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그 대상은 지불불능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만일 면제받은 자가 그 뒤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생기면 양심적으로 갚아야 하나 법으로 배상케 할 수 없다.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찌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신명기 15:1-2). 이 빚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타국으로 도피함을 막고

영세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규정이다. 면제년을 통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됨처럼 사회에 진리의 말씀과 섬김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c) 안식년

안식년은 히브리 달력의 7 년 주기에서 마지막 해였다. 이 해는 땅을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과 동물들을 돌보고, 빚이 탕감되고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되는 해로 다로 마련된 민족적으로 중요한 해였다. 7X7 년 다음 해인 50 년마다 희년(Jubilee) 안식년제도를 더욱 연장시킨 것이다.[224] 안식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규정하여 놓은 한 해를 뜻한다. 이 규정에 나타나는 정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회복과 섬김 그리고 약한자를 향한 사회정의가 엄격한 것이었음을 알게 한다.

라. 성결법전의 사회봉사

성결법전은 제단과 제물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의식서와 성결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한 것이 없다. 그러나, 성결법전은 극빈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계약법전, 신명기법전과 동일하게 극빈자들이 생존을 위해 부자의 추수에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들이지 말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말라 너희 포도원을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몸붙여 사는 이민자가 따먹도록 남겨 놓아라. 나 야웨가 너희 하나님이다.” (레위기 19:9-10) 여기서 “나 야웨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빈자의 권리옹호가 하나님의 권위 하에 선포되는 최상규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결법전이 다른 법전보다 더 크게 외친 것은 율법이 분배정의를 위해

---

[224]서인석, Ibid., 108.

있다는 것이다. 성결법전은 율법이 분배정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단호히 그 정의가 복구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사상은 희년선포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희년은 7 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7 번 거듭된 다음해 즉 50 년째의 해로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그 해가 온 것을 알게 하였다. 이 해를 자유의 해, 나팔의 해, 또는 기쁨으로 번역되며 다른 해와 달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규정하여 그 땅의 모든 거주자에게 도로르를 선포하라고 명령한다. 도로르가 선포되면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던 사람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희년사상은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빈부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데 의도가 있었으며, 종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제도를 방지하려 하였다. 희년에 대한 규정들은 정의와 사회적인 공정성의 이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마. 신약성서의 섬김에 대한 이해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봉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승, 승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마가복음 12:31, 누가복음 10:27)이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5]

a) 이웃의 대상

이웃사랑에 대한 최선의 행위가 빈민구제의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고한 명령으로 내렸다. 이웃사랑의 정신이 "원수를

[225]유구웅, *기독교사회복지의 근거로서 예수의 행적에 관한 연구* (한국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3). 12.

사랑하라” 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또 사마리아인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비유(누가복음 10:36)에서 사랑해야 할 이웃은 어려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자는 자비를 베푼 자로써 즉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의하면 상처입은 이웃을 치료해 주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돌보아 주는 자가 이웃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의 실천을 구제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잔치에 초대되어야 할 이웃은 바로 구제행위 대상인 가난한 자들이다.

b) 이웃의 위치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동일시하였다.[226]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된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예수 자신을 대접한 것이다.” (마태복음 25:40)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이 땅에 온 근본적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며,(누가복음 7:22) 또 복음의 형태는 빈곤에 대한 투쟁이었고, 빈민이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을 말해 줌으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예수의 복음은 빈민을 위한 것으로 빈민은 예수의 사상과 인격의 전부였다. 인간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는 구원자로 나타났고, 예수는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볼 때 항상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 (마태복음 14:14).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때 임마누엘로 왔다.

[226]누가복음 9:48 과 마 18:5, 25:40.

c) 이웃에 대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원행위는 구체적으로 질병치료로 나타났다.[227] 4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의 질병치유의 활동은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빈곤을 타파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었다. 예수를 쫓는 무리들은 상당수가 병자들이었고, 예수는 병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건강한 육체로 회복시켜 주었다. (마태복음 12:15) 예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4 복음서에 나타난 병자들은 소경, 문둥병자, 앉은뱅이, 혈루병자, 열병들린자, 간질병자, 귀신들린 자 등이며 빈곤한 하층계급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이들을 위한 구원자였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보낼 때에 병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1). 이에 제자들은 천국복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린 자를 고치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다 (마태복음 10:8).

d) 빈민구제 행위를 통한 영생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빈민구제행위를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예수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의회원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자들이 지상에서 재물에 애착을 가지는 것은 영혼 구원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였고, 필요 이상의 재물을 송하고 축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며, 근심에 얽매이며 쾌락의 비속한 생활로 타락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였고 (누가복음 13:13)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227]마태복음 8:17, 9:35, 11:5.

어렵다고(누가복음 18:25) 하면서 부자들의 재물에 대한 애착을 경고하였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오직 부자라는 신분과 지위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부자의 문 앞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이것은 부자에게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신 예수의 생각을 볼 수 있다. 부자의 구원은 재물에 대한 애착과 소유욕에서 떠날 수 있을 때 이루어짐을 예수는 거듭 강조하였으며, 구제행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됨을 깨우치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요약하면 예수의 구원계획은 인간의 개인적 관계, 가족, 사회, 경제, 정치 및 종교적 관계를 포함한 인간 자체와 인간사회의 전체적 해방을 의미하는 근원적인 것이다.[228]

E. 교회의 사회 섬김 역할

세상을 위한 봉사 공동체로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 세상을 위해 고난 받는 전적인 타자로서의 교회, 삼위일체적 봉사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21 세기 교회의 사회섬김을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화와 생산활동, 분배활동, 즉 경영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통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십일조와 같은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모든 재화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이며 이 경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피조물의 사회경제적 생태적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21 세기에 전개되는 경제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제정의를 토대로하여 인간의 기본생활과 생명을 파괴하는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들을 자기살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며 무수한 경제적 희생자들을 보살피며 희망을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

[228]Nicolas Adolf, "해방신학에로의 초대", *자유에의 소명*, (왜관: 분도출판사, 1977), 7.

둘째, 전 세계의 지구화는 모든 국가의 경계선을 개방하고 국가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변화시킬 전망이 있어서 개인의 존재와 가치관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개인의 삶에 수립하면서 동시에 21 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있어서 참여와 연대를 위한 주권적 참여와, 기본적 인권을 위한 참여와 연대를 위한 섬김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는 신앙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모든 계층간의 정의로운 화평, 지역간의 균형, 모든 집단간의 반목과 대립의 평화로운 조정,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평화와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교회는 사회문화창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21 세기를 들어서면서 사회문화의 발전과정에서 뒤쳐지는 내지는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 졌다. 이제는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건하고 창조적 문화창달을 위한 구체적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시기에 달하였다. 사회문화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재건하기 위해 교회는 사회문화에 대한 신학적 태도를 개방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지구가 하나의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세계시장의 문화적 잠식과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회문화의 정체성은 물론 지역적 가치관, 삶의 양식, 심지어는 민족 문화적 감각까지도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는 이런 문화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문화의 장을 창조이고 생명력 있는 축제의 마당으로 발전시켜 문화적 혼란 속에서 희생되는 정서적 붕괴와 전통적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새로운 교회문화 창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21 세기의 지구화는 사회의 기존 정신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그것은 모든 종교들에게 획기적인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직된 사고를 가진 종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사회가 극심한 사회적 아노미를 겪으면서 자신들이 체험해보지 않신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뒤의 통계자료

로 통해 보게 될 이슬람교가 전혀 근거도 없었던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기존에 존재하던 샤마니즘에 해당하는 종교들이 쇠퇴하며 사람들은 새로운 정신적 공백과 혼란을 맡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계 시장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적 혼란과 공백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대응하면서 확고한 정신적 기반과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적 섬김을 감당하여야 한다. 교회간, 교단간의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교회의 에큐메니즘적 협력을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섯째, 세계시장의 지속적 팽창과 성장은 생태계를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환경적 위기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동산으로서의 공동체를 지키고 가꾸는 청지기적 경영자로서의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4.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영성 (Spiritual Fields)

육신을 가진 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 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실존하고 있는 사람으로 죄의 문제를 과연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원이 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신약성경에서 성령의 이해

성령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뉴마(pneuma)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총 385 번 나타나는데 때로는 인간론적인 용어로 49 번, 때로는 성령 또는 거룩한 영을 가리키는 말로 200 번 사용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악한 영을 표현하는데 26 번 사용되기도 한다. 이 용어가 성령 또는 거룩한 영을 나타내는 200 번의 사례 중 77 번이 바울서신에서 나타난다. (로마서 19 번; 고린도전서 15 번; 고린도후서 8 번; 갈라디아서 15 번; 에베소서 10 번;

빌립보서 1 번; 골로새서 1 번; 데살로니가전서 3 번; 데살로니가후서 1 번; 디모데전서 2 번; 디모데후서 1 번; 디도서 1 번)[229]

B. 바울서신에서 성령 용어의 사용 의미

바울서신에서 성령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용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그 현재성과 미래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우선,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구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한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린도전서 12:13).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님'(κυριοσ) 으로 고백하게 하며(고린도전서 12:3; 참조. 고린도후서 4:6),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자의 영이다(갈라디아서 4:6; 로마서 8:14).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로마서 15:16; 참조. 갈라디아서 5:5; 고린도전서 6:11; 로마서 14:17) 성령을 통해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로마서 8:15-16).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 뜻대로 성령의 선물인 은사 (charisma)를 다양하게 나누어 준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생명으로 인도한다(로마서 8:1-2). 그리하여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라디아서 5:22)의

[229]J. B. Smith, "πνεθμα성령", *Greek-Englisch Concordance To the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1955), 296-297.

열매를 맺게 한다. 요약하면,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한 몸되게 하는 성령,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령,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서 성령,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성령, 이 모든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현재,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과 함께 하나를 이룬다는 공유됨을 보여 준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미래적인 구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바울에 의하면 성령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고린도후서 5:1)을 위한 '보증'이다(고린도후서 1:22; 5:5).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장차 영광의 처음 익은 열매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장래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의 근거 (로마서 5:5; 8:10-11)가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자는 현실에서 벌써 생명 (로마서 8:10)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세례 받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갈라디아서 6:8).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로마서 8:11). 게다가 그것은 살려 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윤리적인 의미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바울의 경우 성령의 신학적 의미는 성령이 현재적 · 윤리적인 관련 의미 안에서 언급될 뿐 아니라, 미래적 · 종말론적인 관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은 자를 현실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구원의 보증이다.

C.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바울서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각각 구원의 현재 및 미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이 두 용어가 동시에 언급되는 진술을 찾아 보면 단 한 곳만 발견할 수 있다. 곧 바울서신에서 로마서 14 장 17 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용어가 한 구절 안에 나타나며, 여기서 구원의 현재와 미래가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상관성에 대한 해명은 방법론적으로 로마서 14 장 17-18 절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 세계에 있으므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적 관계를 올바로 맺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III.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우는 제자훈련 (두날개 양육 시스템 중심)

1. 교회의 시대적 변화

A. 미국과 한국 안에 현 시대 교회들의 상황 분석

교육의 평준화와 함께 교회도 이제는 평준화 시대에 들어서서 수많은 세미나와 책들의 등장으로대형교회나 소형교회 모두가 비슷한 목회 형태를 이루어 비슷한 예배 형태(찬양과 영상), 목회 비전, 교회 성장 방법론, 성경공부 세미나, 특별기도회, 선교, 특별행사 등 유행의 홍수 속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신이 된 마당에 교회 성장과 부흥에 몰입 해 있으므로 독특한 자신의 목회 철학을 찾기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고 어떤 특별한 부흥 성장하는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원활한 양적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모두가 목숨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B. 성장하는 교회를 모방한 비슷한 사역의 패턴

현 미국과 한국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유사한 사역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ㄱ) 현대적 감각의 예배 모습으로 형식에서 자유로와 졌다.

ㄴ) 복음주의적 모습으로 성경의 권위와 선교를 강조하고 있다.

ㄷ) 교회의 전통음악에서 현대 음악으로 장르가 바뀌어 현대의 문화가 상당히 교회 음악에 영향을 주고 있다.

ㄹ) 평신도 리더십을 강화하여 평신도가 교회 사역에 많은 부분들을 관여하는 목회 성향으로 변환되고 있다. 목회자 팀 사역에서 평신도 팀사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학력과 전문화 시대로 교회에도 고급 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ㅁ) 지교회 운영 체제를 이용한 프렌차이즈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다. (multi site technology) – 2008년 현재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교회는 오클라호마 에드먼드에 본 교회를 둔 life Church TV 인데 본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미국 13 곳의 지교회로 실시간 중계된다. 미국의 10대 교회중 휴스턴에 Lakewood (조엘 오스틴 담임)교회를 제외한 9개 교회가 다교회 형태를 이루고 있다.

ㅂ) 불신자 전도에 상당히 공을 드리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단순한 한번의 만남이 아닌 관계전도 등 새로운 패턴의 전도 형태를 살려내고 있다.

ㅅ) 설교의 내용과 가르침이 현대인의 특징에 맞아 떨어지도록 한다. 50-70년대까지만 해도 도덕적 설교였으나 현대인은 내세 보다는 현세, 죄책감 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와 성공, 긍정적 사고 그리고 볼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ㅇ)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여 자녀 교육에 누가 더 많이 투자하고 시설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C. 매가 처치 (대형교회)의 등장과 사역 패턴의 전환

위의 현상들은 현대적 개념의 사람들은 교회의 무한한 확장과 교회 전통 개념을 초월한 매가교회의 형태로 확장을 꿈꾸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로 교회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무한경재시대에 돌입하여 작은 교회는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지고 대형 교회는 더 성장에 탈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변화가 대형교회를 만들어

내서 마켓, 병원, 식당 등 모든 편의 시설이 대형일수록 각광을 받는 논리가 교회에도 적용되고 있게 된 것이다.

1995 년 미국교회 전임 인턴 목사로 사역할 때 당시 교회 출석이 1800 명의 미국교회였는데 이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전국 모임에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에 실제 출석 성도가 2 천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이 급증하는 반면 전통교단의 작은 교회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며 (물론 미 전역의 바이블벨트를 제외한) 매가 처치 (대형교회)의 기준은 미국에서 2000 명이 넘는 교회로 분리하는데 약 1200 개 교회로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ATTENDANCE	# OF CHURCHES	WEEKLY WORSHIPERS	PERCENT
7-99	177,000	9 million	59%
100-499	105,000	25 million	35%
500-999	12,000	9 million	4%
1,000-1,999	6,000	8 million	2%
2,000-9,999	1,170	4 million	.4%
10,000-plus	40	.7 million	.01%
TOTALS	approx. 300,000	approx. 56 million	100%

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Approximate Distribution of U.S. Protestant and Other Christian Churches by size (excluding Catholic/Orthodox) Research.

이 도표에 따르면 대형교회의 교단별 분포도는 독립교단 34%, 남 침례 16%, 일반 침례교 10%, 순복음 6%, 연합감리교 5%, 갈보리 채플 4.4%, 크리스챤 4.2%로 전통교단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 속에 성장한 반면에 독립교단과 최근에 성장한 신생 교회들은 급속한 속도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다.[230]

목회자도 30-40 대 젊은 목회자들이 많았으며 대형교회의 83%가 현 담임목사에 의해 대형 교회가 되었다. 교회 성도들도 36 세 미만이 대부분으로 나이가 60 세 이상은 대부분 정통교단에 모여 있고, 40 세 이하는 대부분 무교단 대형 교회에 모여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면 연합교회 체제를 만들어 윌로우크릭 연합교회들, 새들백 연합교회들, 빈야드 연합교회들, 갈보리 채플 연합교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목회와 사역 패턴의 상호 작용과 동시성

A. 시대적 흐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바로 이점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얼마 지나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물결이 반대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 한인 사회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를 볼 수 있으면 한국이

[230] 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Approximate Distribution of U.S. Protestant and Other Christian Churches by size" (excluding Catholic/Orthodox). http://hirr.hartsem.edu/research/fastfacts/fast_facts.html#sizecong.

어떻게 될 것을 볼 수 있다. 새들백 교회의 한국 분점은 사랑의 교회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한국 분점은 온누리 교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 문화와 교회의 역동적 관계

한국과 미국은 다음의 분야에서 매우 비슷한 양상의 사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교회가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교회가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히트치는 대중 문화에 의해 교회도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도시화와 위성도시의 활성화, 최첨단 미디어와 통신설비,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 등으로 인해 시대적 동시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이름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그 외에도 많은 대형교회들은 이미 비공개적으로 프렌차이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많은 소형교회들과 전통적인 교단의 교회들은 미지근한데 전체 상황과 시대 변화는 점점 빠른 문화변화와 세상의 경쟁 속에 뜨거워져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C. 우리 교회는 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성도들 중 35세 이하 성도가 50% 이상인가 아니면 이하인가?
- 담임목사는 문화의 흐름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 담임목사를 포함한 교회 리더십들의 신학과 예배에 대한 융통성이 어느 정도인가?
- 여러분의 Bland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3. 현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분석

A. 윌로우크릭 교회의 32 년 역사 반성문

윌로우크릭 연합교회에 속해 있는 여섯 교회가 함께 작업을 거쳐 1 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3 년간 조사한 결과 교회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치중했다는 것이며 그 결과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결론이다.[231]

수많은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영적인 성숙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미흡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제자훈련과 양육의 필요성이 언급되는데 제자훈련의 교회인 사랑의 교회는 오히려 윌로우크릭 형태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순서의 중요성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같은 일을 해도 목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쉬운 말로 제자가 되어서 크리스챤의 사역을 하는 것과 크리스챤의 사역을 위해 일반 성도가 일반적 리더십 훈련을 받고 일을 감당하는 것과는 의도와 속 내용이 영적인 깊이가 다른 것이다.

---

[231] Hawkins, Greg L. Cally Parkinson, *Reveal Where Are You?* (South Barrington, IL: Willow Creek Association, 2007), 176.

B. 사역철학의 부재

넓이와 깊이의 심한 비대칭 (넓이는 1 마일인데 깊이는 1 인치)으로 정신과 근본 본질은 없고 프로그램만 있는 상태로 현 교회의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관심사가 거룩한 삶의 추구에서 세상에서의 만족, 여가선용, 자아실현, 자기 중심적 성공 메시지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영성과 사랑의 인격 그리고 성령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선교 역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관심은 퇴색하는 가운데 초자연적 치유의 능력과 세상적 성공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줄기와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프로그램만 있는 상황에서는 줄기만 무성한 그래서 움직이고 많아 보이는데 근본도 없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영적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성장하여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James Packer 는 Rediscovering Holiness 에서 "현대의 복음주의 교회는 건강한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목회자는 건강함과 온전함을 세우는 일을 하는 자들이지 성공적 사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232] 목회와 신앙 생활은 승리이지 성공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말이며 제자 교육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공부, 제자훈련, 성령 회복 운동, 리더십 훈련, 소그룹 운동, 선교와 전도 폭발, 가정교회 이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중요한데 이 소중한 목회 도구들 (프로그램들)도 우선 순위가 있고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각자의 목양에 대한 분석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

[232] Miles J. Stanford, "DR. JAMES I. PACKER Rediscovering Holiness" http://withchrist.org/mjs/packer.htm.

C. 이기적 집단으로 공격받는 교회

지난 100 년을 돌아볼 때 이슬람교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기독교는 실제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체 되거나 다소 쇠퇴되고 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카톨릭 교인의 비율은 증가했으나, 개신교와 정교회 교인의 비율은 뚜렷한 감소 추세 (개신교 6.4%에서 5.6%) 에 있다. 감소 추세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체로 경제 수준, 사회복지 수준, 그리고 남녀 평등 수준이 높아 질수록 교회는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감소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체로 경제 수준, 사회복지 수준, 그리고 남녀 평등 수준이 높아 질수록 교회는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세계 교회의 흐름 속에 한국교회는 지난 1960 년대 이후 급성장하여 교인 수가 1960 년에 60 만명에서 2000 년대 970 만 명으로 무려 16 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1990 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교인수의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현재 이민 목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금의 마이너스 성장을 바라 볼 때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그 증거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1998) 한국 교회가 영적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자 전체에 81.4%로 나타났고,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가 76%,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가 71.1%, 봉사 등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62.9%로 나타났다. [233]

물론 교회와 목회 그리고 신학적 배경 등을 그들이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대답의 중요성이 약간 감소하겠으나 일반적 응답인 것을 감한 할 때 분명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별 이미지인 종교적 인상에 대한 비교 조사를 통해 보면 불교에 대한 인상은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카톨릭에 대한 인상은 지도자가 우수하고 대사회적 역할을 잘 한다. 개신교에 대한 인상은 교세 확장 치중, 헌금 강조, 규율 강조로 언급 했다. 한국 교회의 고칠점에 대해서 개신교 자체 성도들은 내부적 갈등으로 교파분열, 양적 팽창주의의 경쟁의식, 자기교회 중심적 순으로 성도들은 지적을 했으며, 비 종교인들은 양적 팽창주의, 자기교회 중심적, 교파 분열 순으로 거의 비슷한 대답을 내어 놓았다.

결과는 자기들만의 축제라고 비꼬고 있으며 특히 남성, 젊은 층,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 수보다 매년 쏟아지는 목회자 배출이 포화 상태를 넘어 과잉 상태에 이르러 교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경쟁적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를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개신교 성도의 59.7%가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는데, 이중 교회를 세 번 이상 옮겨 본 교인이 절반 이상이니 이 통계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의 소속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미약한 신뢰와 충성심, 그리고 책임의식의 결여 속에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옮기는 현실이 되었다.

---

[233]김기홍, "교회와신앙의 소망 잃어버린 희망과 부흥의 꿈 한국교회에 돌려주고 싶다," 교회와 신앙, http://www.amennews.com/com/com-1.html (08:52, 3.21, 2011).

D. 수평이동으로 인한 소형 교회의 고사

미국의 경우 대형 교회는 전체교회의 1% 미만이지만 교인 수는 미국 전체 교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40%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대형교회에서 실시하고 목회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고, 42%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44%는 라디오 사역을 통해 교회를 알리고 있으며, 38%는 TV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4]

반면 한국 교회의 실정은 대형 교회가 불신자를 통해 대형교회가 된 경우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 것을 보더라도 소형교회들은 자신들의 교인을 지키기도 바쁜 실정에 놓여 있다.[235]

4. 현대 교회 성장 트랜드 이해

A. 한국 교회의 성장 주도 흐름 분석

가) 전통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 되고 훈련 된 목회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 전략에 의해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며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

---

[234]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Ibid.

[235]크리스탄 뉴스, "올바른 전도 교회 성장 이끈다!" JESUS 119 . http://jesus119.net/html/news06_view.html?&page=4&page=4&id=215 (09. 28, 2009).

나) 제자훈련

70 년대 말 80 년대 초에 등장한 선교단체을 통한 제자 훈련은 네비게이토와 CCC 의 영향을 받으며 급속도록 한국 교회에 확산되었고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교회를 기초로 하기 보다 선교단체식의 존재로 인해 교회와의 마찰을 빚으며 교회가 대예배와 성경공부 중심이었다면 제자훈련은 강도 높은 예수 제자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여 말씀 읽기, 기도, 한생명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그리고 제자 만들기에 열정을 쏟아 일반 성도와 차별화된 진정한 예수 제자로서의 삶에 신앙생활의 모범을 추구했다. 12 명의 제자를 스승이 선택하여 동거동락하며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도로 세우고 세워진 뒤에도 멘토로서 끝까지 제자를 돌보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다) 경배와 찬양

예수 전도단의 영향과 온누리 교회의 찬양과 경배가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의 트랜드를 바꾸어 놓았다. 비록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일지라도 청소년들과 젊은 그룹 사이에 이미 팽배하기 시작했던 밴드와 함께 하는 찬양 예배는 현 모든 교회의 예배 기본으로 자리를 잡아 버렸다.

라) 소그룹 운동

속회에서 시작된 소그룹 운동은 구역회, 순, 가정, 목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지역과 연령별로 모여 작은 교회 소그룹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대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지원하며 교회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단위를 이루고 선교와 지역 전도, 그리고 봉사의 역할과 돌봄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자의 특성과 취미, 그리고 관심사에 따른 활동을 기반으로 교회와 사회 섬김의 역할까지 감당하여 교회 부흥과 사회를 향한 관계 발전에 일익을 감당하게 되었다.

마) 셀과 G 12

소그룹 운동이 전문화되어 번식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예수 제자 번식의 공식을 갖고 12 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기본 단위를 만들고 전도하여 그룹을 키우고 그룹이 증가하면 둘로 세포 분열하듯 번식해서 계속적인 성장해 나가며 몇 개의 그룹을 묶어 운영하는 관리자가 있고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제자훈련과 다른 것은 제자훈련은 참 제자를 키우는데 있다면 세포가 번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번식하지 못하는 셀은 죽거나 암 세포정도로 여겨 새로운 리더나 새로운 조직으로 바꾸어 다시 시작하는 새 구조로 만들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 윌로우 크릭이나 새들백 영향을 받은 구도자 예배, 평신도 사역자 활성화 목회등을 포함해 한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 지속을 꽤해 왔는데 본격적인 메가 처치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은 제자훈련에 성령론을 더하고, 선교단체와 전통교회의 연합 현상을 이루어가며 성장했으며 특히 199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선교단체 출신들이 목회에 진출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몇 몇 선교단체들은 지역교회로 탈바꿈함으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교단과 교단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의 색깔과 특징으로 바뀌며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부흥과 새로운 시도에 민감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행태를 들어내며 교단의 특징이나 목회 패턴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B. 현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의 목회 대처 방안

어떤 교회가 현 시대를 적응하고 앞서 가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는 이런 수많은 목회 방법 중에 자신 만의 확실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등의 자신 만의 색깔을 가진 것처럼 자신만의 목회 방향을 결정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금세기 최고의 리더쉽 연구가 중 하나로 평가되는 Howard Gardner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 교수)는 깊은 영향력 있는 리더란 자기만의 Story 가 명확한 사람이라고 했다.[236] 이 말은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되는데 무엇이 목회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목회철학이며 결국 목회 철학은 선택이란 것이다. 교회는 어떤 차별화된 색깔과 방향을 잡는냐에 따라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성장이론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필요한 것들은 흡수 통합하여 차별화 된 자신의 만의 독특한 것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유연한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 21 세기 대두되는 훈련 프로그램들

LPM (Lay Pastors Ministry, PACE 사역) 이 사역의 모델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나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꽤 많은 교회들의 핵심적인 성도 양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특징은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돌봄(Care)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교 회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정 교회는 휴스톤 서울 침례교회에서 개발 된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의 나눔을 통한 치유와 지역 전도에 초점을 두며 성숙한 믿음, 투철한 책임감과 모범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도와 보살핌의 은사를 가진 가정에서 이웃을 초청하여 대접하고 섬기며 복음의 산 증인의 모습을 감당하는 소그룹 전도 프로그램이다.

제자훈련은 미국 네비게이토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인데 이것을 사랑의 교회 옥한음 목사가 지역교회에 맞게 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LPM, 가정교회의 모델보다는

[236]Howard Gardner, *체인징 마인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7 가지 지렛대*, 이현우 역 (서울: 재인, 2005) 198.

훨씬 강도가 있고 말씀공부와 삶에서의 적용 훈련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도 제자훈련 출신이다.

두날개 양육 시스템 (D-12)은 NCD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 컨설팅을 받은 전 세계의 교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의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네비게이토와 선교단체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평신도 수준에 맞추어 약간 훈련 강도를 낮추었으며 거기에 몇가지 지역교회 토양에 맞는 리더십과 영성 수련를 덧붙이고 관계 전도와 양육을 통한 재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나. 교회 성장 이론들과 프로그램 요약

앞에 제시한 대두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예배의 영적 충만함으로 영혼의 영적 갈망을 해소하는 감성 넘치는 예배와 둘째, 생활의 갈망을 해소 할 수 있는 의지적, 지적 훈련, 그리고 셋째, 관계의 갈망을 해소하는 소그룹 (전인적) 운동을 통한 행동적(실천적이며 실제적) 신앙 생활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ㄱ)전도와 선교를 통한 지상 명령의 성취, ㄴ)사회 섬김을 통한 세상 변혁(세상의 빛과 소금)을 위한 복음화 사역과 ㄷ)교회 안에서의 기능적인 평신도 사역, ㄹ)깊은 말씀의 묵상과 QT, ㅁ)열정적인 기도 모임인 새벽기도와 중보기도, ㅂ)새가족을 내 가족처럼 담당하는 섬김이 사역을 첨가하여 총체적 목회의 모습을 이룰수 있게 된다.

다. 교회 성장 이론을 지탱하는 성령과 리더쉽

이와같은 교회 성장 이론들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핵심적 두가지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역사와 리더쉽이다.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도구들로 성령 충만한 예배, 가족 같은 소그룹, 변화의 훈련, 평신도 팀 사역이 제시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인간

노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역사이며 지도력의 핵심에는 설교, 영성, 인격, 비전 제시, 의사 소통, 창조적 예배 능력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고 소그룹은 훈련지향적, 전도지향적, 돌봄지향적으로 나누어 지지만 대부분 세가지가 성려의 도움 안에 잘 겸비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특별히 리더쉽은 거의 모든 교회 성장학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요소로 담임목사의 신앙노선이 대형교회로 가면 대부분 보수적인 신앙노선을 지키는데 복음주의 계열 56%, 오순절 16%, 정통계열 7%, 중도 신학 계열 7%로 나타나고 있다.[237]

성도들이 담임목사에게 기대하는 리더쉽으로는 설교 및 비전 제시가 51%로 가장 많았고 영적 도전이 17%로 두번째이며 봉사활동 지지가 12%, 일치와 안정이 11%, 목회적 돌봄이 9%로 하드포드 신학대학교 메가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38]

5. 제자 훈련의 필요성과 의미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명예, 권세, 지식, 건강, 과학도 필요한 것이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삶의 기쁨과 희망을 줄수 있는 복음이다. 그런데 믿음생활을 한다는 사람 중에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인생의 승리이다. 복음은 믿는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237]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Ibid.

[238]Ibid.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엄청난 영적인 대혁명을 체험하게 된다.

제자훈련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양육하는 훈련으로서 이 채널이 막힌 교회는 마치 고인 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곧 썩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 때 크게 부흥했던 유럽의 기독교 국가의 교회가 문을 닫고 회교사원이나 지역사회 회관정도로 전락하고 있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 또한 예외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의 종이라는 것이며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를 정복했으며, 4-50 만에 불과했던 중국의 기도교인을 1 억이 넘는 성도로 부흥시킨 초대교회의 전도소그룹 복음운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제자훈련 과정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주의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양육과 훈련으로 사역자는 길러지는 것이다. 제자 훈련은 거듭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좇은 군사로 훈련하는 신앙의 제련소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장교로 만들고 중요한 사역들을 훌륭하게 감당해내게 한다.

제자훈련은 따르던 주님의 영적 군사가 평신도 사역자의 삶으로, 훈련을 더해갈수록 리더로 세워지고 더나아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내는 것을 진정한 목표로 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이다. 양육과 훈련에 있어서도 목표가 있어 마태복음 28:18-20 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고 명령하셨다. 이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우리가 이뤄야 할 사명이다. 주님 역시 공생애 사역동안 주님의 일을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셨다.

제자훈련의 초점은 가치변화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방법을 제시하고 세상나라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여 변화된 사람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제자로의 부르심과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의 가치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제자로의 부르심과 가치에 눈 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며,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A.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

제자훈련을 통한 코이노니아(koinonia)의 회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Robert E. Coleman 은 4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원리를 선택, 동거, 헌신, 나누어 줌,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의 여덟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239] 이것을 여기서는 현재 본 교회의 제자 훈련에 입각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가. 부르심 과 선택

예수님의 계획의 우선적인 목표는 그의 생애를 증거하고 그의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이었다(요한복음 1:35-40, 마가복음 1:19, 마태복음 4:21, 누가복음 5:27-28). 당시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회인의 모든 계층을 총망라한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대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의 전략이었다.[240]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지냈다. 제자들은 수업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는 제반의 사실로부터 배울

---

[239]R.E.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11.

[240]Ibid., 21-30.

수가 있었다.[241]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는 대량양육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여 봉사의 일을 할 훈련된 제자를 양육해야 할 것이다.

나. 순종과 섬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자들이었다 (마가복음 1:18,20).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영리하기 보다는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 시간이 지남에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지도자인 예수그리스도 (Jesus Christ)의 인격을 닮게 되기 때문이다. 순종은 생명의 원리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었다는 원리를 받아드리는 것이다.[242]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생애 (요한복음 15:15, 17:4, 8:14)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 (요한복음 16:33)과 천국열쇠(마태복음 16:9)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 [243] 그러므로 소수이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헌신과 순종의 제자도를 가르치고 주님의 것을 나누어야 한다.

다. 장성한 영적 아비의 모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요한복음 4:34; 5:30), 기도와 병고침과 가르치심 등의 시범을 보이셨다 (누가복음 9:29; 마가복음 1:41-44; 11:27-33).[244]

---

[241]Herman Horne, *예수님의 교육방법*,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179.

[242]Carl Wilson, *목회와 제자양성*,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81), 447.

[243]R.E.Coleman, 63-69.

[244]Sidney A.Weston, *예수의 발견*, 임종원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88), 142.

기도의 경우, 예수는 교훈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도록 하셨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사용하심으로, 제자들이 삶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분위기 속에서 전도의 방법을 저절로 배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간 예수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었다. 이 원리를 적용하여 양육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고린도전서 11:1),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245] 그들은 우리에게서 듣고 본 바를 행할 것이다(빌립보서 4:9).

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 때를 준비하셨다. 즉,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다음으로 어떻게 그가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셨다.[246]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마가복음 6:9). 그후 칠십인을 둘씩 팀으로 보내시기도 하셨다(누가복음 10:1-20).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온전히 투자하여 양육한 소수 정예부대인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완전히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이같은 위임을 주신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

[245]Robert E.Coleman, 83.

[246]Ibid., 85.

마. 일꾼 세우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한 후 돌아온 제자들에게 쉬게하시고(마가복음 6:31) 칭찬도 하였으나(누가복음 10:19-20) 잘못된 방법을 책망도하시며 (누가복음 9:54-56), 인내를 강조하면서(마가복음 9:38, 누가복음 9:55) 새로운 방법을 지시하셨고(마가복음 9:17), 제자들의 임무를 고무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마태복음 14:13-21; 마가복음 6:30-44).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가 경험을 갖거나 관찰케 한 후, 이것을 시발점으로 제자훈련의 교훈을 가르치셨다. 이러한 모든 감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목표를 향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으나 그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셨으며, 성장해 감에 따라 이것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셨다.[247]

예수의 점검 전략은 가장 효과적인 현장훈련이었으며, 당신 스스로 모범을 보였고 숙제를 부여하고 점검하는 교육방법으로 제자들의 장점을 계발하는 데 사용했다.[248]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양육자는 계속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제자양육의 성패는 개인적인 관리와 인내에 달려있다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249]

---

[247]Robert E.Coleman, 102-103.

[248]Ibid., 70.

[249]Ibid., 103.

바. 재생산을 통한 배가운동

예수님은 소수의 선택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화를 기대하였다. 곧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라면 세계 복음화는 시간과 제자들의 충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하루에 100 명씩 전도하는 전도자와 1 년에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1 년 후에 전도자는 36,500 명의 신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데 비해 제자훈련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2 명 밖에는 얻지를 못한다. 3 년이 되면 전도자는 26,500*3=109,500 명을 전도하게 되고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은 2=8 명의 제자를 얻게 된다. 초기 몇년간을 비교해보면 제자훈련자가 얻게되는 사람의 숫자는 전도자가 얻는 사람의 숫자와 비교가 안될 만큼 보잘것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을 하다보면 20 년 정도가 되면 제자훈련자가 확보한 제자의 숫자가 전도자가 회심케 한 신자의 숫자를 능가하게 되고 그 후로는 제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40 년이 되기 전에 세계의 모든 인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까지 된다.

주님은 교회에게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19)고 명령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부재라는 문제에 부딪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역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심자를 양육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차원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즉, 교회사역의 승패 여부는 얼마나 많은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양육시키느냐에 달려있다.[250]

---

[250]Ibid., 105-116.

B. 제자 훈련의 정의

제자훈련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자 삼는 사역이며, 성경의 원리와 목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제자훈련을 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셨다(마태복음 4:18-22, 누가복음 6:13-16). 양육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 아이로 계속 남아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므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자훈련은 사람을 키우고 변화시키는 훈련이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며,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가게 하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올바로 수행하는 교회로 만들어 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 년 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제자훈련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계신다.

결국 제자훈련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를 제자 삼아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사역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실제로 평신도를 양육하여 사역자로 세워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로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질적 양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의 심장부에 위치해야 한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예수를 닮고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각자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배우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거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인격과 삶이 새롭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분명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철학을 확립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진정으로 제자훈련이며 모든 어려움을 흔들림 없이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강하게 시켜 적어도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지도를 받을 또 다른 평신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C. 제자훈련의 기본적 필수 요건

가) 철저한 참석

어떤 이유에서든 제자훈련에 결석할 수 없다. 네비게이토, 선교단체, 그리고 D-12 의 제자훈련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모임에는 목숨을 걸고 참석하는 순종을 지켜야만 한다. 훈련이 기본이다.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이런 모습도 전통으로 이어지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언제나 100%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출석 관리는 제자훈련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나)과제물

성경 매일 5 장 읽기, QT. 중보 기도 등 이상의 과제를 매주간 내어 줌으로서 말씀과 삶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 교재에 대한 철저한 예습

제자훈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공부할 교재를 미리 예습해 오도록 한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생들이 있다. 교재에 대한 예습은 제자훈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예습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그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라) 말씀 적용

제자훈련의 생명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다. 말씀을 배웠으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줌으로 말씀을 통한 체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D.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두 날개의 제자 양육

가. 한 날개인 대그룹 날개는 축제예배의 날개.

축제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성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주일이면 풍성한 교회의 전 가족이 모여 축제예배와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탁월한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기에 풍성한 교회 예배는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가슴 벅찬 감동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있는 예배이다.

나. 한 날개인 소그룹

현 시대의 소그룹에 해당하는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구역, 가정교회, 셀, 순, 목장, 그리고 속회[251] 등이 있는데 열린 모임 등 풍성한 교회의 셀 그룹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나 을 체험하며, 전도, 정착, 양육, 훈련, 번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2 천 2 만 세계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모임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

그리스도의 임재는 찬양과 나눔, 말씀, 기도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체험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삶의 깊은 부분까지 나누게 되며, 그러한 나눔을 통해 상처가 치유 받고 회복되며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 응답을 통해, 치유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체험한다. 하나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한다 (고린도전서 4:20).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육신의 병, 심령을 묶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가 하면, 뜨거운 중보기도를 통해 날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생생한 체험의 현장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픈 셀인 열린 모임에 초청하고, 그들에게

[251] 소그룹의 시작은 연합감리교단의 속회라고 하는 band 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알수 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영접하도록 돕고 셀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라. 12 제자 사역 속에 전도, 정착, 양육, 훈련(제자, 기도, 치유), 번식의 지속.

셀 그룹 안에서는 열린 모임을 통해 전도가 이뤄지는데 열린 모임은 관계중심의 소그룹전도 전략으로 지역과 직장, 병원, 캠퍼스 등 각 삶의 현장에서 열리고 있다. 열린 모임 혹은 개인 전도를 통해 전도되어진 새 가족은 일대일 바나바 사역과 새 가족반을 통해 교회에 정착한다. 새 가족반을 마치면 12 주간의 양육과정이 이어지며, 양육반을 수료한 자들에 한해 각 12 주씩 3 학기 과정의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통한 훈련이 이뤄진다. 세계비전 제자대학은 강력한 주님의 군사인 셀 리더를 세우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한 이들이 또 다른 자들을 전도하여 세우는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마. D-12 의 핵심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모임.

육신의 가족이 혈육으로 맺어졌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가족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가족은 함께 모이고, 가족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가족은 서로를 책임지고, 가족은 기쁨, 슬픔, 고통, 아픔 등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모이지 않고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암세포이다.

셀 그룹은 가족처럼 돌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셀 그룹의 가족들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명과 비전을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성장시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전 교육과 훈련과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교회에 적용해 나아가는 훈련과정이 12 제자 양육시스템이다.

바. D12 의 핵심인 열린모임 (관계전도소그룹)

a) 열린 모임 실행 지침

전도에는 왕도가 없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많은 이론과 방법론이 제시되어 왔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전도의 이론과 방법론 속에서 전도소그룹 열린 모임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열린 모임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열린 모임이란 삶의 현장에서 3~4 명이 팀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소그룹 전도운동이다. 한 지역을 거점으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복음을 확장하여 지역을 장악해가는 침투전도로 예수님과 사도바울이 사용했던 복음적인 전도전략이다.
열린 모임은 또한 소그룹 관계전도운동으로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혹은 초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간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에 현대인의 정서에 거부감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전도전략이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이 소그룹 전도운동 인해 정복되었으며, 공산화된 동토의 땅 중국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열린 모임과 같은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전략에 눈을 뜨고 지역과 도시와 민족을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까지 열린 모임을 확장해 가야한다. 열린 모임이 땅 끝까지 화장될 때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열린 모임의 실행 치침은 모든 교회가 지역과 민속과 열방을 감당하는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을 그려본 것이다.

제 1 장 열린 모임이란 무엇인가?

제 2 장 열린 모임 사역

제 3 장 영혼추수주일 실행

제 4 장 12 주 열린 모임 진행

제 5 장 12 주 열린 모임 후속조치

b) 제 1 장 열린 모임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8-21)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방법이 연구되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의 진정한해답인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리고 있다. 답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학교, 공단, 직장, 사무실, 지역, 아파트, 병원등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누가 가서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은 지금 전도를 바로 이해한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여준비하는 것이다.

두날개 양육에서의 전도의 개념은 아래의 다섯 가지의 성경 말씀에 핵심을 두고 있다.

◆ 마태복음 10:6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 누가복음 19:9-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마가복음 5:25-29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 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c) 열린 모임의 의미와 중요성

ㄱ) 열린 모임은 소 그룹 전도 운동이다.

◆ 사도행전 19:8-10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ㄴ) 열린 모임은 소그룹 기도 운동이다.

◆ 마태복음 18:18-2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ㄷ) 열린 모임은 소 그룹 관계 전도 운동이다.

◆ 요한복음 1:39-42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ㄹ) 열린 모임은 소 그룹 배가 번식 운동이다.

◆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d)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예수님의 전략.

ㄱ) 너희

바로 훈련된 제자 (예수님은 3 대 사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태복음 28:18~20) 훈련된 제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자로 어느 곳에서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며 이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이다. 이 치유는 영, 혼, 육을 다 치유함을 의미하며 복음의 능력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교리적인 신앙이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다. 믿음의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아멘" 하면서 현실에서는 믿지 않는 기도와 응답으로 세상에서는 따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제자답게 믿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현실에 나타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샘물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지게 함으로 그것이 더욱 나타나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ㄴ)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함을 제자훈련은 강조 한다. 거점 전도라하여 삶의 현장에 나가 선교의 현장에 침투하여 거점을 잡아 전략적으로 전도해야 한다. 주부는 가정에서 즉 삶의 현장에서 전도해야 한다, 열린 모임은 바로 가는 것이다. 거점전도는 지역마다 거점을 정하는 것이다. 직장의 거점을 정하는 것이다. 전략 침투 이는 군사용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 군사라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강조한다. 군인도 여러 가지다. 논산 훈련소는 최고 병장 달고, 준사관은 준위를 달고, 사관학교는 장교가 된다. 독수리는 독수리를 만들어 낸다.

ㄷ) 제자삼아

먼저 제자를 삼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제자훈련으로 제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예수의 제자다. 문자적 예수가 아닌 능력의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된다. 초대 교회 생명과 바꾸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의 명부에서 파내어 하늘나라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세례를 주는 것이다 정말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이 바로 제자이다 즉 초대교회는

바로 생명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바로 로드 쉽 을 인정하는 것이다. 로드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즉 나의 모든 삶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로드쉽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은 바로 재생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ㄹ) 세례주고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 세례는는 흐르는 물속에 완전하게 잠기고 씻는 물은 흘러내려간다. 세례로 깨끗이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새롭게 사는 확증이다.

ㅁ) 가르쳐

재생산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가르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어야 한다.

ㅂ) 지키게 하라

재생산 즉 가서 제자를 삼는 것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생활화와 체질화가 되었을 때 생활로 실천을 하게 된다. 체질화를 위해서는 반복으로 실천을 하는 것을 강조하며 언행일치이자 신행일치의 신앙의 삶이 나타남이며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e) 열린 모임의 결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자라서 확장 (마태복음 13:31-32)되며,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으로 정복 되어지고 (사도행전 1:8),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며 (사도행전

16:13-15)), 셀 리더자들이 세워져서 (빌립보서 1:1), 세계 선교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마태복음 28:18-20)

f) 열린 모임 인도자의 4 가지 요건

ㄱ) 복음

로마서 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ㄴ) 구원

요한복음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ㄷ) 전도

사도행전 16:31-36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ㄹ) 선포

사도행전 13:47-49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g) 열린 모임의 성공을 위해 사역의 현장 장악

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장악.

히브리서 4:12-1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장악

고린도전서 2:4-5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ㄷ) 성령의 은사로 장악.

고린도전서 12:7-11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ㄹ) 주님의 모든 권세로 장악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ㅁ) 주님의 마음(Lord Ship)으로 장악.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E. 목회적 시대 평가와 제자훈련의 현 위치 (Ministeral Evaluation)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여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고, 돌보며, 관심을 베푸는 것이 소명이며 사명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영혼을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명이다. 서로가 깊은 통찰력과 자아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영혼을 돌보는 일을 이루게 됨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돌보는 준비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애씀이 중요한데, 특히 상처 받은 영혼이 먼저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것, 주님의 사역에 제일 먼저 이루셨던 사역으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혜로 영혼을

돌보며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고 융통성 있는 처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사명이며 목회자로 제자훈련을 통해이루게 된다.

가. 제자훈련을 통한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온 성도의 합심된 기도로 만이 가능한 것으로 주님 말씀의 위로와 은혜로 끝없이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줄 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계속적인 기도로 회복의 역사가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우리 안에 감동으로 이루어짐이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매일 회개하고 정결해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불신이 사라지고 서로가 투명하게 서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과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 성령의 능력을 제자훈련을 통해 이루게 된다.

나. 내적인 분석으로 사도교회의 사명을 지키는 사역

교회는 2000 년을 지나오며 문제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회개하며 개혁하여 사도적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신앙의 목표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같아야 항상 주님 가르침의 중심을 지키고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거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교회의 조직과 효율적 구조, 성도의 영성과 영적 성장, 교회의 효율적 재정 운영과 재정적인 현실, 교회의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의 균형 등 교회의 자체의 분석을 통해 주님의 사도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얼마큼 잘 감당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제자훈련을 하는 연구반과 함께 항상 점검하게 된다.

다. 영적 성장과 말씀 훈련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계선

치유와 회복은 영적 성장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 이를 위해 제자훈련으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에 맡겨진 내적 성장 (교회 안에 자신의 신앙적 성숙과 전도에 대한 열정)과 외적 성장 (선교와 지역 사회 참여)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교회는 내부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모습만 가지고 평가되어서도 안 되며 두 가지 모습이 조화를 이루며 성도 안의 관계 계선과 지역 사회와, 선교지와 관계를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쇄신하는 작업을 이루게 된다. 이 작업은 통해 목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며 또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세우는 작업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의 이미지를 바로 세움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사람을 세우는 목회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와 차세대 교육을 통한 미래형 목회를 이루어가야 한다. 사람을 키워야 교회의 미래가 있으며 교회는 주님의 역사 속에 움직인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계획과 재능에 좌우되기도 하나 그 총체적인 경영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총괄적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사람들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에 맞는 주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 감이 목회 사역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각 성도들의 장점과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찾아내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한다. 리더십 개발과 훈련, 청소년과 청장년을 위한 비전 심기 운동, 소그룹 인도 훈련, 은사배치 학교와 등을 통한 평신도 사역자를 찾아내고 양육하여 교회 지속적인 영적 흐름을 만들고 세우게 된다.

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갖은 성도와 교회

크리스천은 자신의 영성과 영적 행위를 성장시키고 개발하여야 하나 또한 동시에 자신의 관심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내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여 사도적 교회 회복으로 항상 선교하는 예배, 선교하는 교육, 선교하는 친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중점적이었다면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어야 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더불어 인생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 목적에 맞게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모범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비전이고 진정한 목회의 모습이다.

IV. 뉴욕 베델 교회 제자훈련의 실제

1. 뉴욕 베델 교회 제자훈련을 위한 사전 조치 및 선행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제자 훈련을 위한 것은 아니였으나 뉴욕베델교회에 부임한 이후 목회와 설교의 중심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참 백성의 삶과 제자로서의 자세였다. 그후 두 날개 시스템 세미나의 1 차 준비 세미나[252] 를 통해 김성곤 목사의 D-12, 두 날개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추구하던 하나님나라와 참된 제자양육에 대한 목회 철학과 많은 것이 나 자신이 추구하는 목회와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었으며 과거 신학대학 시절 접했던 자신 속에 잠자던 제자훈련이 깨어나게 되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목회의 모든 방향을 제자양육을 위해 재수정하게 되었고. 먼저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교인들에게 언급하고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1 년 기간의 교회 안에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기본적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며 토양화 작업을 실시했다.

A. 1 단계, 준비 작업 - 대예배를 통한 제자화의 필요성 제시

그로부터 1 년 뒤 최재호 목사의 2 차 준비 세미나가 있을 시 세미나 후에 본 교회에서 가족 세미나 기간에 특별강사로 모시는 사전 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고 주일 대예배의 설교를 통해 전 교인들이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과

---

[252]당시 임시 강사로 두 날개 시스템을 목회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서울 소재의 성현교회 최재호 담임목사를 모시고 뉴욕 어린양교회 (김수철 목사 시무)에서 목회자 70 여명이 참석했다.

제자훈련을 통한 인생의 가치변화와 신앙의 영적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먼저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외부 강사를 모심으로 성도들의 관심도를 증폭시키고 집중 시킬수 있는 효과를 내게 되었으며 제자 훈련에 대한 관심도에서 당위성을 보다 강하게 심어주고 보다 확실하게 결단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B. 2 단계, 준비된 영혼 깨우기 – 가족 수련회를 통한 결단의 시간

노동절이 함께한 주일에 전교인 대상으로 가족 수련회가 계획 되어 있었으며 예배 후 식사를 본 교회에서 마친 뒤 가족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며 성도들은 또는 다른 흥분에 휩싸일수 있었다 야외 수련회장으로 장소를 옮기는 설레임과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위한 기대감으로 이동을 하였고 경치가 아주 좋은 수련회 장소가 또한 가족 수련회의 시작을 조명해 주었고 30 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되었으며 최고조의 단합된 모습과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고 모두가 제자 훈련에 참여하여 신앙의 일신과 정진을 다짐하는 성공적인 수련회가 되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성도들은 접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며 따를 준비된 성도들로서 거듭나기 시작했고 강사 목사의 명령 하나에 바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제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순종의 삶을 체험하게 되었다.

C. 3 단계, 기초 세미나 –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 제자훈련 세미나

진정한 두 날개 양육 세미나의 시작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D-12 두날개 양육 시스템의 일반 개념과 개요, 즉 하나님 나라와 백성 (제자)를 위한 교회의 참 모습과 성도의 신앙 자세를 매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애찬과 친교 후에 세미나 식으로 준비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참여하여 주일 예배 위주의 성도에서 제자화 된 성도로의 전환의 필요성, 전통적 교회에서 21 세기 교회의 현실 직시, 교회 가치관의 재조명과 중요한 제자 훈련의 전체적인 내용을 15 주 동안의 강의를 통해 경험하게 하였다.

D. 4 단계, 설문조사 – 교인의 현재 요구와 현실 상황 고찰에 따른 자료 수집

교인들의 현재 자신들의 생활 상태와 교회 생활에서 요구 사항, 그리고 필요한 영적인 훈련에 관한 조사를 다음 설문지를 통해 조사했다. 이 설문은 뒤에 부록 1 에서 참고 할 수 있다.

2. 뉴욕 베델 교회 제자 훈련의 실행

A. 5 단계, 제자 훈련 1 기생 모집

제자 훈련의 원칙으로 따르면 주님의 방식을 따라 제자는 12 명을 스승이 선발하는 것으로 하나 이민 교회 특성상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하면 제자를 뽑는 목회자도 편애한 리더로 지탄을 받아 전체 목회가 어려워지고 또한 뽑힌 사람들도 목사파나 목회자 측근이란 눈총을 일반 성도들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움으로 공개 채용을 하였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제자훈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12 명을

기본 단위로 하였으며 비록 부목사나 전도사일 경우에도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 다만 수가 많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룹을 더 조직하는 것으로 기본 형태를 취했으며, 그 결과 제자훈련 1 기생을 모집했고 목회자 1 명, 장로 1 명, 권사 4 명, 집사 3 명, 일반인 1 명의 총 10 명의 뉴욕 베델 교회 1 기생들이 조직되었다.

모임의 시간은 모두가 가능한 주일 예배와 성가대 연습이 끝나는 2 시 30 분에 모였으며 시간은 1 시간에서 1 시간 30 분 정도였으며 기간은 두날개 양육 시스템 6 단계를 다 마치는 것을 끝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실행하여 2011 년 2 월 현재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있다.

B. 6 단계, 제자훈련 2, 3, 4 기생의 시작

제자훈련에 참가한 1 기생은 시작과 더불어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등록하여 알게된 사람들이 제 2 기 제자훈련을 요청하게 되었다. 또 다른 그룹은 국제 제자훈련반으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외국인들(중국과 일본 성도)을 위한 특별 제자훈련반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청년 중에 제자가 될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청년 제자훈련반을 구성하게 되어 제자훈련을 시작한지 6 개월을 넘어서면서 4 기에 해당하는 제자반들을 운영하게 되었다 2 기는 화요일 중보기도(오전 11 시)와 식사 후에 5 명이 모였으며 국제 제자반은 토요일 저녁(7 시)에 2 명이 모이게 되었고 청년 제자반은 토요일 오후 2 시에 2 명이 모이게 되었다. 이로서 4 그룹의 제자반을 담임목사가 스승이 되어 직접 제자들로서 키워 주님의 진정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 할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부름에 그들이 응하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목회자 4 명 중 3 명이 제자로서의 훈련을 선택하여 평신도와 함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 명	연령과 성	직분(신앙년수)	학력	전문분야
김동욱	63 (남)	장로 (10 년)	대졸	경제
김숙자	60(여)	집사 (10 년)	대졸	교사
김영동	26(남)	평신도(26 년)	대졸	자연과학과 신학
임명옥	44(여)	집사 (44 년)	대졸	언어(불어)

(제자훈련에 참석 중인 Site Team 명단)

C. 두날개 제자훈련 양육 단계 후의 평생 제자훈련

두날개 제자훈련은 6 단계 전도, 정착, 양육, 제자, 사도, 재생산 훈련이 끝나면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재생산으로 그들이 제자들을 선발하여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물론 자신의 능력 여부에 맞추어 가능한 제자들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나 훈련이 되었으매도 직접 제자들을 세우는 것과 어떤 그룹을 이끌고 가는 것과는 상당한 실제적 차이점을 갖게 됨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게 되어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들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수준과 충만함을 계속이거가기 위해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은 그 영혼이 인생을 다 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이 살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 헌신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함께 제자훈련을 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아직 본 교회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1 기생들의 제자훈련이 마치는 순간부터 그들은 평생

교육을 받고 스스로 훈련을 하게 된다. 그 평생 교육의 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해 성경을 개괄적으로 공부한 후에 성경 말씀 전체를 같은 기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성경 사전과 주석 등을 함께 참고하며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 나누며, 삶에 적용하며 자신들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고, 인간으로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주의 제자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모적으로 하는 것이다.

3. 뉴욕 베델 교회 제자훈련의 내용

A. D12 와 제자훈련 그리고 뉴욕 베델 교회

D12 의 김성곤 목사가 훈련 세미나에서 강조한 몇 개의 핵심적 그리고 D12 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말들이 있는데 "단순, 반복, 지속," 그리고 절대로 "똑같이" 이다. 단순, 반복, 지속은 훈련의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은 것이고 또한 복잡한 현대 시대에서효과적인 훈련 방법은 단순하여 배우기 쉽고,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해서 삶과 생각에 세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좋은 면 뒤에 창조적이지 못하거나 혹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이 달라야 할 순간에 자율적 생각 능력의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목회 상황은 아직도 가정의 아내들이 여유 시간과 언제 어디서나 같은 한국인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나 미국 그리고 뉴욕의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허덕이는 교민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뉴욕 한인 교회들로서는 D12 와 똑 같은 운영 방식을 취해서는 문제가 많음을 파악하여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배우고 선교회나 네비게이토 식 매일 성경 35 장과 정해진 기도 1 시간의

제자훈련을 조금 완화하여 성경 5 장과 기도 하루 전체 1 시간의 형태를 취하며 셀의 번식 처럼 1 년에 12 명식 증가하는 번식에서 소그룹을 제자화하는 목표로 성격을 완화하였다.

B. 제자훈련 전체 교육 내용

가. 1 단계: 전도(셀모임 12 주)

성경적 소그룹 전도전략인 셀모임은 3~4 명이 팀을 이루어 한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 지역을 장악해 가는 성경적인 소그룹침투전도이다. 주님(마태복음 28:18~20)과 사도 바울의 전도방법(사도행전 16:4)이었으며 21 세기 포스트 모던시대의 전도대안이다. 전도소그룹 셀모임은 12 주로 진행되며 개인전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팀전도로서 각 직장, 대학, 병원, 가정에서 관계를 맺어 전도하는 소그룹 전도법으로 이 시대에 적용가능한 전도전략으로 준비와 관심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오이코스 전도 전략으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합심해서 교회로 이끌어 열린모임까지 이끌어 오는 전도법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교재는 열린모임 비전과 실행 1 과 2 를 배우게 되는데 비전은 전도에 대한 열망과 소중함을 배우고 실행 1 과 2 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를 습득하게 된다.

나. 2 단계: 정착 (새가족반 4 주)

교회를 등록한 새가족이 섬김이를 통해 교회를 소개받고,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도우미를 새가족섬김이라 하며,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3 주간으로 이루어 지며 4 주째는 새가족반에서 담임목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교회의 비전을 소개한다. 섬김이 사역에 관한 교재를

통해 섬김이의 자세와 주의 사항 그리고 새신자에 대해 배려해야 할 내용을 터득하게 된다.

다. 3 단계: 양육(12 주)

양육반은 총 12 주 과정으로 내면의 상처와 쓴 뿌리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1 일 전인적치유수양회를 통해 영육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며, 이 과정에서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경건의 시간(Q.T)과 같은 내용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성령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려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균형잡힌 일꾼이 되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양육과정이다.

라. 4 단계: 제자대학 1 학기-제자훈련(12 주)

한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제자요 평신도사역자인 소그룹의 리더로 양육하는 훈련과정이다. 1 학기 제자훈련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쉽(Lordship)과 제자도를 훈련하며, 이 과정을 마치면 전도소그룹인 열린모일을 인도하는 셀그룹의 인턴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 5 단계: 제자대학 2 학기-군사훈련(12 주)

제자대학 2 학기 사역훈련은 리더수양회로 시작되는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나아가는 사역훈련(소그룹리더, 셀리더 훈련)을 통하여 한 사람의 탁월한 평신도사역자가 되어 번식하도록 세우는 양육과정이다.

바. 6 단계: 제자대학 3 학기-재생산훈련 (12 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자를 세워갔 듯이(디모데후서 2:2)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리더훈련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역훈련을 받고 가정, 직장, 캠퍼스등 각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초대교회 사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 훈련받는 고등 과정이다.

C. 뉴욕 베델 교회의 제자훈련 목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따르던 제자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아 훈련된 제자가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을 때 그러나 달아나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었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야 제자들은 능력이 넘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도로 바뀌었다. 주님의 제자는 따르는 제자, 달아나던 제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된 제자로 그 단계를 구별하여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의 반열에 든 참제자가 되는 것이다. 뉴욕 베델 교회 제자훈련의 목적은 D12 도 아니고 선교 단체의 제자훈련도 아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사도와 같은 제자가 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D. 뉴욕 베델 교회 제자훈련 교재와 내용

본교회 제자훈련 교재는 D12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D12 두날개 훈련 교재는 네비게이토와 많은 선교 단체들을 통해 제자훈련에 사용되었던 교재들, 그리고 그간에 사용되었던 전도훈련 교재를 중심으로 일대일, 바나바, 새신자 관리, 은사 발견, 리더십에 관련된 교재 등 수 많은 교회 관련 교재를 잘 집대성하고 거기다가 각 교재와

훈련 단계마다 사용법인 실행지침서까지 갖추어져 있다. 훈련은 교재가 중요하지만 그 교재를 어떤 철학과 신학, 그리고 영성으로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교재의 특이성 보다 교재의 활용성에 중심을 두고 교재 연구에 전력하기 보다 주님의 제자훈련에 보가 가까운 내용을 전하기에 노력했다.

제자훈련은 주님이 주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사고 개념, 사람과 율법의 관계 등을 먼저 가르치셨지 성경 말씀을 외우고 강론하지 않으셨다. 제자훈련의 장점은 바로 이것으로 제자들의 신앙인으로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의 활성화

제자는 제자를 계속해서 양육해 내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제자들을 양육해야 한다. 먼저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바로 닮는 자가 되어야 하고,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죽는 날까지 배움의 도를 다해야 한다. 또한 제자를 양육한다는 개념은 학생이나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넘어서 더 예수를 바로 아는 스승을 능가한 제자를 만들어 냄에 목적을 둔다.

뉴욕 베델 교회는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이면서 한국 감리교회의 신령직제도와 속회 조직을 갖추고 있다. 살아서 성장하는 모든 물체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세포조직을 통해서 존재하고 세포분열을 통해서 자라난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이상의 교회로 조직이 살아 존재하며 활성화 되어 성장해야 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세포처럼 분열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본 교회의 기본 단위인 속회가 일정한 지역에 10-15 명을 한 단위가 되어 속이라는 세포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속회가 자체 활동을 통해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작은 교회가 살아서 번성하고 함께 모일 때 대교회로 살아 움직이고 또 성장하게 된다.

교회의 이 조직은 지역별로는 교구로 뭉치고 한 교구에 두, 세 속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나누어 운영할때 종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당회의 지도를 받게 되고, 횡적으로는 성도들끼리 화친, 단결, 협력의 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의무를 이행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회가 지역조직의 중요성이나 조직과 관리, 속장과 인도자의 교육 미비나 활동의 결여 및 속회예배의 진부함으로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A. 소그룹 운동의 활성화의 중요성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시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살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깊숙이 파고들어 갈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 소그룹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평신도는 모든 시대와 환경을 통하여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또는 교회의 지도에 순응한다는 것으로 극히 본질적인 자신의 존재로 있음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객체 (Objects)로서의 평신도가 아니라 주체자 (Subjects) 혹는 행위자로서의 평신도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훈련자이나 나가서는 전도자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는 이러한 평신도의 훈련의 필요성을 알아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시켜서 의식을 개발하고 있다. 추호의 모호성이 없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 그들을 다시 유혹과 죄에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선교의 긴급한 명령에 복종하며 사명을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대 교회들 안에 소그룹 조직이 없는 교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과연 조직된 그 구역들이 얼마나 교회 성장과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왔느냐 하는데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발견되고 있다. 본 교회도 속회나 선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그냥 매일 똑 같은 모습으로 아무런 감동과 활성화 없이 지내는 모습을 갖고 있거나 생활에 영적 생동감을 잃고 반복적인 모임만을 어렵게 유지하는 모습이 그래도 낳은 조직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맥을 지키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의 기능도 달라진다. 따라서 교회라는 조직 역시 시대의 요구에 민첩히 따라야 하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법만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 중요한 핵심 요소를 다시 부곽시키고 새롭게 중심에 새기는 일에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교회 제자훈련은 그 핵심인 성도의 본질을 살려내고 조직의 공동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리더로 하여금 소그룹을 돌보고 이끌어 나가며 지역을 부흥시키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이 땅에 생명을 소유한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처럼 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훈련된 새 제자들에 의해 새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의 원리를 따라 성장하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소그룹의 조직 교육 훈련, 활동, 영적 준비를 제자훈련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여 소그룹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B.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활성화 중요점

생명은 살아서 성장하는 것은 그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조직을 통해서 존재하고 세포분열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교회도 조직이 생생하게 살아 활성화 된다면 성장하게 된다.

뉴욕 베델 교회는 두 개의 큰 조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속회며 또 하나는 선교회이다. 속회는 일정한 지역에 8-15 성도가 한 단위가 되어 자신들이 정한 이름의 속회를 구성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다. 또 선교회는 나이별로 혹은 자신들의 취미에 따라 모이며 선교에 뜻을 두고 자체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성장하게 된다.

교회의 이런 조직은 지역별로는 속회로 나누고, 한 두 세 개의 속회가 모여서 교구를 이루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나누어 운영할때 종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당회의 지도를 받게 되고, 횡적으로는 성도들끼리 화친, 단결, 협력의 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의무를 이행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가. 소그룹 인도자의 소명과 사명

제자훈련을 통하여 먼저 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변화 되어야 한다. 인격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말씀을 연구하여 말씀을 잘 먹여야 하고, 기도로 늘 깨어서 속회와 소그룹 회원들을 보살펴야 한다. 이들을 통해서 속회, 선교회와 소그룹의 한사람 한사람을 제자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훈련된 지도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소그룹 조직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인도자가 무능하면 조직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항상 생동하는 구역조직이 되기 위해서 구역에는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해진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로서 소그룹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소명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신다(로마서 1:5,6). 소명이 있는 리더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오늘날에도 내가 자원하여 소그룹의 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택한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16)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직분으로 나를 불러 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중보역활을 감당하였던 제사장과 같은 직분으로 리더를 세우신 것이다. 성경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9)라고 하였다. 또한 선한 청지기로 불러 주셨다. 성경에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42)고 말씀하셨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더 나아가 재생산 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신 것이다. 성경은 “예수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3)로 부르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소그룹을 감당하는 인도자의 사명은 세포의 핵과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과, 회원의 질적인 신앙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양적인 소그룹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모범된 사명을 가지게 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부흥의 꿈을 갖는 인도자가 된다.

나. 새신자와 관계 맺는 인도자 훈련

성숙한 주의 일꾼들은 새 그리스도인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가 스스로 말씀을 깨달으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섬김이가 되며 또한 새신자가 제자훈련에 참여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

새 신자 육성의 두번째 중요한 이유는 새신자의 신앙 성장에 있는 것이다. 새신자는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새신자 육성을 통하여 지도와 육성을 받아 이러한 변화의 기회와 속도가 크게 더 해지는 것이다. 또한 새신자 육성을 실천함으로 제자들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새신자 육성은 새신자의 생활에서

제자로서의 속도와 확률을 크게 더 해주고 있다. 새신자 육성의 전체적인 사업에서의 제일 큰 목표는 제자훈련인 것이다.

다. 영적인 번식의 성취

새신자 육성의 촛점이 영적인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생산에도 있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번식 시키는 자가 되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번식시키는 자를 정의해 보면, 번식시키는 자는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들이 재 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는 제자를 말한다.

제자 삼는 사역의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제자를 얻는데 있지 않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제자 삼는 일은 복음전도의 결과인 동시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한 방법과 수단이 된다. 제자를 삼는 일을 통해서 지역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며 말씀 중심으로 일하는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주님이 뜻하셨던 바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된다.

라. 수레바퀴의 삶

수레바퀴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기본 진리들을 기억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열쇠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삶을 지배 하실 때 그 생활은 균형잡힌 효과적인 생활이 된다.

a) 중심되신 그리스도- 바퀴를 돌리는 힘이 축에서 나오는것 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하는 능력도 중심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온다.

b) 그리스도께 순종- 수레바퀴의 테는 전심으로 매일 매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

c) 말씀- 수레바퀴의 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자의 삶에 작용하는 말씀을 보여준다. 제자는 수직의 살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유지한다. 말씀은 영적인 전쟁을 위한 검일뿐 아니라, 영적양식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살이다.

d) 기도- 말씀의 살 반대편은 기도의 살이다. 제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필요에 대한 공급을 받게 된다.

e) 교제- 수레바퀴의 다음 살은 제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믿는 사람들과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도를 통하여 관계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하여 필요한 활력소를 얻게 된다.

f) 증거- 그 다음에 말한 세가지 살은 제자가 주님께 받은 모든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마. 제자 공동체의 관계성

소그룹(속회) 조직은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특히 제자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직이란 질서나 구조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관이나 몸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조직이란, 크게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두의 협동체를 이룬 모습을 말하고, 작게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하좌우의 질서관계를 그 지위(Position)와 기능(Function)을 규정하며, 일체적인 협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에베소서 1:23).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린도전서 1:21).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도는 서로 연관되어 조직된 구조이다.

바. 제자훈련은 신앙생활의 훈련

신앙훈련은 기도, 헌금, 전도, 간증, 봉사훈련 등 성도와 인도자들의 훈련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며 당연한 것이 되겠지만 제자훈련에서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헌금의 의미가 새로워지며, 섬기는 삶의 즐거움과 고마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Lordship is Leadership, [253]으로 자신이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기에 모든 관계와 삶의 가치와 질이 주님 중심으로 다시 재정립되어 삶의 형태와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의 훈련방법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내용 가르치시기 보다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제자훈련은 바로 이것을 따르는 것이다.

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감 있는 예배

첫째, 예배는 성도의 친목이나 어떤 유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둘째,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은혜와 크신 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셋째, 예배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성도간의 교제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간의 유익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성장을 이루어 감을 말한다. 넷째, 예배는 회개를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섯째, 예비는 봉사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권자이시며 절대자 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53]제자훈련의 4 단계 교재인 제자의 삶에 단원 2 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주재권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리더의 로드쉽이 주님께 있으면 자신이 인도하는 제자들도 저절로 따르는 리더쉽을 말하고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나 좀 더 예배가 식상적으로 틀에 짜여진 모습에서 주님의 참 모습을 품은 자연스런 주님과의 만남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소그룹에 참석한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받도록 예배에 힘쓰도록 한다. 그러지 않고는 모임이 성장될 수 없다. 잘 준비된 영감어린 예배와 의미가 있고 오직 인도자 한 사람의 주관된 예배가 아닌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를 주로 찬송, 기도, 성경, 그리고 말씀으로 구성하여 형식에 따른 모습을 따랐으나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 하다 그 문제를 위해 기도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 말씀에 따라 간증을 나누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열린예배의 형태와 교제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간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영적인 제사로서 인간창조의 목적이요 인간본연의 의무가 만들어진다.

5. 제자훈련에 대한 평가

A. 제자훈련 시작 전 결과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 전체 세미나로 제자훈련을 소개할 때에 32 명의 성도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254] 그 결과 응답자의 99%[255] 1 개 이상 교회 부서와 소그룹에 참여하여 활동있었으며 1 개 이상 행정부서에 관여한 사람들은 39.4%였으며, 1 개 부문 이상 자원봉사자들은 58% 였다. 교회 참여의 중요한 이유는 예배(50%)가 단연 우선이었으며, 친척과의 관계(39), 가까운 지역(38%), 주일학교와 교육 프로그램(36%), 목회자와 관련(32%), 자발적인 참석(25%)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결과는 곧 교회에 관여하는 이유들이었다. 다만 교회음악이 중요한 관여 요건으로 다음 질문에 응답했다(30%). 여기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한 관계 전도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게 향한 헌신의 표현이 (66.6%)로 단연 가장 큰 주제였고 봉사하며 관계하는 것이 다음으로 (12.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영적 선물과 능력을 사용하는 길과 교회가 필요한 것을 누군가 해야 하기에 관계하게 된 것은 9.4%씩으로 나타났다.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간의 제약(41.41%)이였으며 이것은 제자훈련 후에서도 다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다음으로 13.8%를 차지하여 이것은 훈련을 시켜야할 목회자의 책임과 더불어 성도의 책임이 함께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개인의 일과 가족상의 명목(10.3%)을 들었고, 교회와 사역자들의 일(10.3%)로 돌렸다.

---

[254]부록 1 제자훈련 설문 조사서 (시작 전)을 배포하여 통계를 내었다.

[255]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였던 것 같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헌금을 하는 요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이 93.9%로 절대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십일조로 드리는 개인의 서약 (48.5%), 교회에 대한 자신의 서약 (27.3%),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24.2%), 교회에 대한 임무의 충성(21.2%),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18.2%)로 나타났다. 헌금은 재물이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 교회의 모습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교회가 당면한 커다란 도전적인 면으로 청소년 교육(41.9%)을 꼽았고, 성도들의 돌봄(29%), 도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전도 목회(25.8%), 교회가 아닌 사람을 향한 방법 (12.9%) 등의 순서로 중요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떠나는 사람과 비협조 성도들(30.8%)로 봤으며, 새신자들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관심(19.2), 낡아가는 설비(15.4%), 적은 자원봉사자, 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많지 않은 조건들, 나이들어가는 성도들(11.5%)로 보고 있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내재한 문제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또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2 중고에 교회는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나 그러나 분명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오랜 세월을 들여서라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일꾼을 생산해 내어야만 한다.

B. 제자훈련 참가자들의 평가

제자훈련을 받은 제자반 참가자들은 생활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가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회 생활에는 만족하는 사람이 60% , 그렇지 않은 사람이 20 % 그저 그런 사람이 20%였다.

제자훈련을 마친 제자들은 100% 제자훈련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일치하고, 성경적이며, 교회제도로 꼭 필요하고, 신앙성장과 영적 성장이 꺼다란 도움이 되며,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한 것으로 봤고, 21 세기 교회에 필요한 운동이며, 신앙 성장에 도움 이 된다고 고백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자신의 생각과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바뀐 것을 이구동성으로 외쳤다.[256] 그들은 오랜 시간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며 자신들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배우고 변화되게 되었으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60%이상 제자훈련을 통해 얻게된 것은 은혜의 체험, 자신의 죄를 발견, 신앙의 큰 도전,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의 문제를 해결에는 100%의 해결 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교회 성도들과의 문제 해결에는 40%의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 제자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가고 있어도 역시 개인의 삶은 잘 다스릴 수 있으나, 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겠다.

제자훈련의 문제점으로 교육 기간의 문제(시간적 비중)를 거론하였다. 원래 두날개 시스템은 2 년에 마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 상황과 개인 상황 문제로 2 년 6 개월가량이 되었다. 이것은 좀 더 축약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신앙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대부분 보며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교회 생활과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소그룹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어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증거일 것이다.

---

[256]논문 평가시 site team 원들이 참석하여 모두가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때 표현했던 것이다.

V. 결론과 제언(Conclusion and Suggestion)

본 연구는 제자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화하는 목회 방안으로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 소그룹이 활성화하고 이로인해 교회성장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속회와 선교활동을 이루는 연구이다. 본 논문의 주제는 질적인 교회의 부흥보다는 외적인 양적 부흥에 초점을 두고, 진리를 수호하기 보다는 성공지상주의에 발맞추어 나가는 있는 현시대의 교회들이 깊게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야할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현대 가능한 제자훈련을 통해 이루려는 마음의 자세요 시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대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는 없다고 생각한다.[257]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 푯대를 세우고 한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드문 것이 현재의 교회역사의 현실인 것이다.

이상에서 연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늘의 교회는 각 교회가 소그룹활동으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들을 통해 교우들을 돌보아야 할 목회자의 수는 적고 많은 교우들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돌보아 주며 교우전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목회자의 목회활동의 일부를 도와주게 됨으로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사람이요,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257]물론 새신자나 교회 신앙 생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제외되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조직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서가 아니라 나태하거나 쉽게 가려는 신앙생활과 목회 철학, 그리고 신앙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긴장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취와 완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현재 성도로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의미하며 왕적 권세로 그 백성을 포함하며 어떤 영역이나 영토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현실적인 삶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 받음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자들의 행실인, 소위 덕 윤리적인 행함과 불가분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시대에 따라 경건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도와 성서 연구에 치중하는 것이며, 현실의 역사를 종식 시키고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기도 했고,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여 국가적 강성함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윗 왕조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적인 도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도 국가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의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다 현대에 들어서며 교회가 성례전적 사귐을 통해서 인류의 이상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되기 시작했다. 개인과 사회의 반목의 최종적 해결은 인간 역사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종말론적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지배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만 비로소 사람의 사람에 의한 지배와 관계되는 정의롭지 못함이 끝이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사람의 사람에 대한 지배가 없는 사회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종국을 하나님 나라 성취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다스리는 삶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실현되었고 미래의 최종적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희생의 사랑(agape)을 세상에 계시하였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실재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세상을 어두운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여 복음 선포를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달하기 위한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세상에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가르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주는 생활의 모습을 갖추고, 인생의 참 자유와 정의가 강같이 그들의 삶에 흘러 인간이 갖는 품위와 사람답게 사는 권리가 보장되는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예수의 자기희생적 사랑의 원리가 실현되는 사회에까지 이르도록 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되게 하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매개하는 교회의 일은 그 공동체 자체가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의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 나라는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국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루는 것이다. 그러한 곳은 주의 다스림과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지키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록자들 모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된 영적인 몸으로서 성장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조직인 것이다.

이 모임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인생의 좌표를 삼고 나아가는 곳이다. 주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도를 다하는 것이다. 이 제자의 도가 자신을 거듭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변화는 자신의 살아온 과거와 습관, 성향 등을 뛰어넘어 주님의 모습, 가치, 인격, 그리고 영으로 완전히 바꾸어짐을 말하는 것으로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전이 되도록 세상과 함께하나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모습은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타인을 향한 성전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세상과 때로 정의로 대립하나 서로의 다른 문화적 배경 등을 반대로 수용하고 뛰어 넘는 희생의 공동체로 성숙되어 가는 곳이다.

이 표징인 교회가 단순히 성도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여 그리스도인의 미래적인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령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고린도후서 5 장 1 절)을 위한 보증일 뿐(고린도후서 1 장 22 절; 5 장 5 절) 아니라 장차 영광의 처음 익은 열매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장래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의 근거(로마서 5 장 5 절; 8 장 10-11 절)가 되고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는 현실에서 벌써 생명(로마서 8 장 10 절)의 지분을 갖고 받은 은사로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는 주의 사명자요 일꾼들인 것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은 자를 현실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구원의 보증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구원의 현재 및 미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육신적인 세상에 속한 것만이 아닌 영적 세계에 있으므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적 관계를 올바로 맺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요 섬김과 헌신인 것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천국생활을 거룩한 주의 제자로서 이루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바로 이 나라를 이루고 이끌어 가는 원동력을 키우고 이루는 신앙생활 훈련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을 주님의 인격과 삶으로 닮아가도록 돕는 모든 교육적 과정을 말한다. 제자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할 신앙의 길이다. 제자란 주님이 성도를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자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과 사람, 공동체를 스승으로 사용하시며, 이 때 쓰임받는 지도자에게는 각 사람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골로새서 1:29-29), 각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단계에 따른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야 한다. 지도자의 필요가 아니라 훈련받는 그들의 필요를 찾아 다음단계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자의 영적 성장의 단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도자들의 독특한 부분을 사용하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제자화의 과정을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교회공동체 속의 환경 속에서 제자훈련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12 명이라는 소수의 제자 그룹에게 쏟은 열정과 시간은 남달랐으며,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지상명령을 감당케 하셨다. 제자는 각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가지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과 더불어 평신도 지도자로 자신을 개발하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써 자신을 세워야 한다. 제자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계보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훈련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평신도 사역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확인하는 과정과 이들을 훈련하며 돕는 과정, 그리고 이들을 배치하는 과정에 조직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평신도 사역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의 역할에 의지하는 성도에서 목회자와 사역을 실행하는 역할에 자신을 감당하도록 무장시키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자삼는 사역은 목회자와 더불어 목회를 책임지고 분담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는 새 관계를 맺는 것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내는 길은 단순히 영적 성숙에 관한 과정이나 강의에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자나 성숙에 관한 책이나, 성경구절, 숙제를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 역시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의 개념이 짜여진 틀 속에 주물을 붓듯이 만들어가는 잘못 인식된 패러다임으로 잘못 굳어져 가는 것은 제자훈련의 원리 가운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허나 준비되고 훈련된 제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활동이 효과적인 목회활동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의 변천에 따라 도시안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어야하며 바쁜일과 속에서 살아감으로 성도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가고 있다. 모이지 못하고 만날수 없으므로 성도의 교제가 잘 안되고 있다. 신앙생활이 잘 될려면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단위로 소그룹 단체인 속회 모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속회나 선교회활동을 하지않으면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알수 없다. 그룹활동을 잘하면 이사오는 교인을 자기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사가는 교인들도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의 교제 생활이 소 집단인 속회와 선교회별로 활동함으로 회복된다. 성도의 교제가 잘되면 신앙에 큰 힘을 얻게되므로 열심도 생기고 전도와 섬김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 지고 목회가 잘 움직이게 된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한 리더를 세우고 그룹활동을 통하여 초신자를 교육하는 일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을 읽고 기록하며 기억하게 되며, 성도들의 예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배울수 있게 된다. 교육적인 파급 효과를 얻게되고 평신도가 교회의 사역의 역할을 분할하고 참여하여 각 지역과 그룹을 맡아서 목회의 일을 돕는 길이 된다. 예수님의 사역정신과 같이 서로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화를 통해서 그룹과 교회 사역을 함께 성취해가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로 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방법을 이루어 왔다. 제자훈련을 잘하면 평신도 자원의 이용과 교인 그물망같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교회 전체적 활동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제자훈련을 통한 그룹 리더자 세움이 교역자나 평신도들이 다같이 활동하는 목회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 세움을 통한 목회의 비전과 효과적인 목회활동을 통해서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이다.

부록 1 제자훈련 설문 조사서 (시작 전)

가. 태어난 년도에 표시하십시오.

□ 1901-1924 □ 1925-1942 □ 1943-1960 □ 1961-1981 □ 1982-2002

나. 성별 □ 남성 □ 여성

다. 다음 선택 사항에서 가족에 관해 가장 잘 표현된 문항을 선택하십시오.

□ 1. 독신 (65 세 이하)

□ 2. 부부가 함께 동거

□ 3. 자녀와 함께 동거

□ 4. 부부가 자녀와 함께 동거

라. 결혼 상태

□ 독신 (결혼한적 없음) □ 재혼 (두 번 혹은 이상) □ 이혼

□ 결혼 (첫 번)□ 미망인

□ 재혼 (첫 번)□ 별거

마. 아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나이의 자녀들이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까?

□ 신생아에서 4 세 □ 15-19 세□ 24 세 이상

□ 5-14 세□ 20-24 세

바. (여성만 답하시오) 몇 명의 18 세 이하 자녀가 당신의 가정에 살고 있습니까?

□ 1. 한 명□ 2. 두 명□ 3. 세 명□ 4. 네 명□ 5. 다섯 이상 □ 없음

사. 가족 전체 수입을 표시하시오.

□ $ 7,500 이하 □ $ 25,000 - $ 34,999□ $ 75,000 - $ 99,999

□ $ 7,500 – $ 14,999 □ $ 35,000 – $ 49,999□ $100,000 – $149,999

□ $15,000 – $24,999 □ $ 50,000 – $ 74,999□ $150,000 이상

아. 다음에서 현재 당신의 고용 상태를 표시하시오.

□ 정규직 □ 무직 (일 찾지 않음) □ 은직 (무직)

□ 비정규 사원 □ 은퇴 (근무) □ 학생

□ 정규직 주부 □ 무직 (직장 찾음) □ 무능력자

자. 주당 몇 시간을 당신은 일하십니까?

□ 20 시간 이하 □ 20-30 시간 □ 30-40 시간 □ 40-50 시간

□ 50 시간 이상

차. 주일에도 직장에서는 당신에게 일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 전혀 □ 격주 □ 매주 □ 경우에 따라 □ 거의 매주

카. 당신의 고용 형태 (다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은퇴한 경우는 마지막 고용직을 표시하시오.)

□ 이사직과 관리직 □ 봉사직: 보호직 (경찰, 소방, 경호 등)

□ 전문직 (박사, 선생, 예술, 상담 등) □ 봉사직: 그 외 (건강, 미용, 보모 등)

□ 기술직 (건강,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 □ 정밀기술자 (기계, 기술, 수리 등)

□ 판매직 □ 기계 조정사

□ 행정 지원 (부기, 비서, 부원 등) □ 수송과 운송 (트럭 운전, 버스 운전 등)

□ 봉사직: 개인 가정 (청소, 잡역 등) □ 노동 (공사, 화물 운송, 창고직 등)

타.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고용 형태에 대해 표시하시오 (다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은퇴한 경우는 마지막 고용직을 표시하시오.

□ 이사직과 관리직 □ 봉사직: 보호직 (경찰, 소방, 경호 등)

□ 전문직 (박사, 선생, 예술, 상담 등) □ 봉사직: 그 외 (건강, 미용, 보모 등)

☐ 기술직 (건강,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 ☐ 정밀기술자 (기계, 기술, 수리 등)

☐ 판매직 ☐ 기계 조정사

☐ 행정 지원 (부기, 비서, 부원 등) ☐ 수송과 운송 (트럭 운전, 버스 운전 등)

☐ 봉사직: 개인 가정 (청소, 잡역 등) ☐ 노동 (공사, 화물 운송, 창고직 등)

파. 당신의 최종 학력에 대해 표시하시오.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 대학 중퇴

☐ 전문대학 학위 ☐ 학사 학위 ☐ 석사 학위 ☐ 석사 학위 수료

☐ 박사 학위

하. 이 지역에서 산 년 수를 표시하시오.

☐ 0-2 ☐ 3-5 ☐ 6-10 ☐ 11-20 ☐ 20 년 이상

갸. 이 교회에 다닌 년 수를 표시하시오.

☐ 0-2 ☐ 3-5 ☐ 6-10 ☐ 11-20 ☐ 20 년 이상

냐. 이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해서 다닌 년 수를 표시하시오.

☐ 0-2 ☐ 3-5 ☐ 6-10 ☐ 11-20 ☐ 20 년 이상

댜. 당신의 성장기 때 참석한 교회의 성도 출석은 대충 몇 명 정도였습니까?

☐ 50 명 아래 ☐ 151-350 명 ☐ 교회 배경이 없음

☐ 50-150 명 ☐ 350 명 이상

랴. 이 교회에 다니게 된 당신의 종교적인 가입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개혁 ☐ 감리교 ☐ 장로교 ☐ 침례

☐ 루터교 ☐ 다른 개신교 ☐ 로만 카톨릭 ☐ 성공회

☐ 없음

먀. 당신이 사는 거주지 형태

☐ 단독 주택 ☐ 아파트 (10-20 세대) ☐ 콘도

☐ 아파트 (20 세대 이상)　☐ 아파트 (2-9 세대)　☐ 이동집

뱌. 당신의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샤. 교회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떨어져 사십니까?

☐ 1 마일 이내　☐ 1-3 마일　☐ 3-4 마일　☐ 5-10　☐ 10-15

☐ 15 마일 이상

야. 교회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집이 위치해 있습니까?

☐ 북쪽　☐ 동쪽　☐ 남쪽　☐ 서쪽　☐ 북동쪽　☐ 남동쪽

☐ 남서쪽　☐ 북서쪽

쟈. 어떤 자료를 통하여 당신은 뉴스, 정보,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접하게 됩니까?

☐ 1. 일간 신문　☐ 3. TV 뉴스 채널　☐ 5. 인터넷

☐ 2. 유선 방송　☐ 4. 라디오　☐ 6. 우편

<u>교회 참여도</u>

가. 당신은 이교회 정식 회원입니까?

☐ 예　☐ 아니오

나. 교회의 어떤 부서들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일 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

☐ 하나　☐ 둘　☐ 셋　☐ 넷　☐ 다섯 이상　☐ 없음

다. 몇 개의 행정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 하나　☐ 둘　☐ 셋　☐ 넷　☐ 다섯 이상　☐ 없음

라. 당신은 교회에서 자원으로 몇 개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까?

☐ 하나　☐ 둘　☐ 셋　☐ 넷　☐ 다섯 이상　☐ 없음

마. 당신이 참여하는 소그룹 수는 (15 명 이하)?

☐ 하나　☐ 둘　☐ 셋　☐ 넷　☐ 다섯 이상　☐ 없음

바. 이 교회에 관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표시하시오)

☐ 1. 친척이 데려왔다 ☐ 7. 음악 프로그램 ☐ 13. 위치

☐ 2. 친구 초청 ☐ 8. 특별 목회 ☐ 14. 신학적 입장

☐ 3. 내 스스로 ☐ 9. 지원 그룹을 발견 ☐ 15. 사회적 구제활동 목회

☐ 4. 자녀 프로그램 ☐ 10. 목회자 목회 ☐ 16. 소년단 활동

☐ 5. 교단 ☐ 11. 소그룹 목회

☐ 6. 청소년 프로그램☐ 12. 예배☐ 17. 주일학교, 성경공부

사. 당신이 이 교회에 계속해서 관여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친척이 데려왔다 ☐ 7. 음악 프로그램 ☐ 13. 위치

☐ 2. 친구 초청 ☐ 8. 특별 목회 ☐ 14. 신학적 입장

☐ 3. 내 스스로 ☐ 9. 지원 그룹을 발견 ☐ 15. 사회적 구제활동 목회

☐ 4. 자녀 프로그램 ☐ 10. 목회자 목회 ☐ 16. 소년단 활동

☐ 5. 교단 ☐ 11. 소그룹 목회 ☐ 17. 주일학교, 성경공부

☐ 6. 청소년 프로그램 ☐ 12. 예배

아. 당신이 듣기 좋아하는 음악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택하시오)

☐ 1. 컨츄리송 ☐ 4. 블루스 ☐ 7. 째즈 ☐ 10. 현대 민요

☐ 2. 쉽게 듣는 것 ☐ 5. 밴드음악 ☐ 8. 쇼

☐ 3. 록 ☐ 6. 클래식 ☐ 9. 오페라

자. 당신이 성도들과 관여하는 가장 최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 향한 나의 헌신의 표현 ☐ 봉사를 요청

☐ 영적 선물과 능력을 사용하는 길 ☐ 교회가 필요한 것을 누군가 해야 하기에

☐ 교회의 목회를 강하게 믿기에 ☐ 이일을 아무도 하지 않기에

☐ 우리 교회의 일이요 선교(임무)이기에

차. 당신이 성도들과 좀 더 관여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 가능한 시간이 없어서　　☐ 일, 가족, 공동체가 나의 우선적 봉사 장소이기에

☐ 효과적으로 돕는데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기에

☐ 사람들의 삶에 다른 것을 만들도록 요청되지 않아서

☐ 내 선택이 아니라서　　☐ 교회의 일과 임무

☐ 봉사에 요청되지 않아서　☐ 자격이 없다 느껴서

카. 당신 가족이 교회에 연간 헌금하는 액수를 선택하시오.

☐ $ 100 아래　　☐ $ 1,000 - 1,499　　☐ $ 3,500 - 4,999

☐ $ 100 – 249　　☐ $ 1,500 - 1,999　　☐ $ 5,000 - 7,499

☐ $ 250 – 499　　☐ $ 2,000 - 2,499　　☐ $ 7,500 - 9,999

☐ $ 500 – 999　　☐ $ 2,500 - 3,499　　☐ $ 10,000 이상

타. 만약에 교회가 긴급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다면 얼마 정도 당신은 헌금을 더하시겠습니까?

☐ 전혀 없음　☐ 1%　　☐ 2-3%　　☐ 4-6%　　☐ 7-10%　　☐ 10% 이상

파. 만약 교회가 믿음 없는 곳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새로운 공약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까지 당신은 헌금을 올리겠습니까?

☐ 전혀 없음　☐ 1%　　☐ 2-3%　　☐ 4-6%　　☐ 7-10%　　☐ 10% 이상

하. 청지기 신앙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신이 교회에 헌금 드리는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세 가지 선택하시오.

☐ 1. 교회에 대한 나의 서약　　☐ 6. 십일조에 대한 개인적 서약의 충만

☐ 2. 나의 재능 (달란트)　　☐ 7.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 3. 교회를 위한 나의 시간 투자　☐ 8. 교회에 대한 나의 임무의 충만

□ 4. 교회 외부에 대한 나의 자선 □ 9. 목적에 대한 느낌을 나에게 주어서

□ 5. 하나님 감사에 대한 나의 표현

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난 해 동안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초대했습니까?

□ 전혀 없음 □ 한 명 □ 둘에서 다섯 □ 여섯 이상

냐. 친척을 제외하고 교회에서 좋은 친구로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 전혀 없음 □ 한 명 □ 둘에서 셋 □ 넷에서 여섯 □ 일곱에서 열 □ 열 이상

댜. 어떤 것이 교회가 당면한 커다란 도전적인 면을 잘 표현한 것입니까?

□ 1. 성도들 돌봄 □ 7. 어린이 사역

□ 2. 보다 강력한 재정적 청지기 □ 8. 청소년 목회

□ 3. 새롭게 향상 설비 □ 9. 장년과 노인 목회

□ 4. 도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전도 목회□10. 강력한 음악 목회

□ 5. 교회가 아닌 사람을 향한 방법 □11. 새로운 소그룹 창조

□ 6. 더 필요한 땅과 파킹장 □12. 방과후 학교

□13. 20 대에서 40 대 독신과 결혼한 사람에게 매력적인 방법 발견

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면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1. 낡아가는 설비 □ 2. 충분하지 않은 공간

□ 3. 충분하지 않은 땅 □ 4. 위치 □ 5. 재정적 자원들

□ 6. 적은 스탭들 □ 7. 너무 적은 자원봉사자

□ 8. 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너무 적은 조건들

□ 9. 새신자에 대한 너무 □ 10. 너무 많은 포기나 비협조자

□ 11. 너무 적은 인도자 □ 12. 너무 빠른 성장

□ 13.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 □ 14. 전혀 없음

부록 2 제자훈련 설문 조사서 (훈련 후)

＊ 제자훈련에 관한 의식 조사 ＊

＊ 개인의 일반적 신상에 대한 질문들(1-8 번)

1.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30 세 이하　□ 40 세 이하　□ 50 세 이하　□ 60 세 이하
□ 70 세 이하

2. 가족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혼자산다　□ 부부만 산다　□ 자녀와 한 세대　□ 자녀와 부모 3 대가 산다

3. 가족 수는 얼마나 됩니까?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이상

4. 현재의 가정 생활은 만족한가?

□ 만족한다　□ 만족하지 못한다　□ 모르겠다

5.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 상류층　　　　□ 중류층　　　　□ 하위층

6. 신앙을 가지신지는 얼마나 됩니까?

□ 1 년　　□ 3 년　　□ 5 년　　□ 6-10 년　□ 10 년 이상(

□ 20 년 이상

7. 교회생활은 만족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보통이다

8.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다

* 제자훈련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의식 (9-18 번)

9. 지금까지 신앙훈련이나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10.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았다면 몇 번 정도 참석해 보았나요?

1-2 번　　3-5 번　　　6-10 번　　11-15 번　　　기타

11. 제자훈련이 교회제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12.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장과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13.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14. 제자훈련이 21 세기 교회에 필요한 운동이라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15. 제자훈련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일치한다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16. 제자훈련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17. 제자훈련의 기간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 너무 길다 너무 짧다

18.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문제들이 치유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 제자훈련과 개인신앙의 관련에 관하여(19-25 번)

19. 제자훈련을 통하여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0. 제자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1. 제자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2. 제자훈련이 본인의 신앙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3. 다음 제자훈련이 있다면 또 참석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4. 다음 제자훈련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시고 인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5. 제자훈련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 제자훈련의 문제점들에 대하여(26-35 번)

26. 제자훈련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시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7. 제자훈련의 문제점은 강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8. 제자훈련에서 회비를 모으는 것이 비성경적 일까요?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29. 제자훈련의 문제점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사의 문제　　　교재의 문제　　　기간의 문제(시간적 비중)

창의성의 결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숙제의 가중

기타 개인적 의견:

30. 제자훈련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문제는 무엇인가?

31. 제자훈련에서 추구해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회심과 회개　신앙의 결단　교회생활과 충성　　축복받는 삶에 대한 강조

사회적 책임문제　　교회의 문제 해결　　가치관의 변화　　　영적 성장

기타:

32. 제자훈련 받은 제자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신유의 능력　　　　사랑의 은사

미래를 제시하는 비젼

기타

33. 제자훈련에서 좀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일까요?

개인신앙문제　　　　말씀과 기도의 강조　　　　문제 해결제　　　　비젼 제시

교회화합

기타

34. 제자훈련이 교회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한 성경적 운동이다　　　　필요는 하되 경우에 따라서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시들해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35.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후 프로그램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계속 해야 한다　　　　필요는 하되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필요 없다

잘 모르겠다

참고 문헌 (Bibliography)

사전과 주석류(Dictionary and Synthesis)

깔뱅, *로마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민영진, *성서 백과 대사전 4 권*, 군산: 성서교재 간행사, 1991.

Cross, *The Oxford Dictiono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 Oxford University, 1963.

Smith, J. B. *Greek-Englisch Concordance To the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1955.

한국서적(Korean Books)

고용수, "교회의 사회봉사와 기독교 교육적 이해" ,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고양: 도서출판 NCD, 2001.

김성곤,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교회 이야기*, 서울: 브니엘, 2007.

김성곤, *D 12 비전*, 서울: 도서출판 두날개, 2007.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김재수,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자유출판사, 2008.

류영모, 셀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 성남: 도서출판 NCD, 2004.

박영호, *선교학* , 서울: 기독 문서 선교회, 1988.

박철수 외, *교회의 본질과 모습, 오늘의 기독교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서울: 대장간,

1991.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1987.

유구웅, *기독교사회복지의 근거로서 예수의 행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신학대학원, 1993.

은준관, *칼바르트의 교회론 이해*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이동원,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서울: 두란노, 2006.

이상근, *고린도전서,*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3.

이상근, *로마서,*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4.

이상용,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연구*, 서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이종윤 외 공저,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6.

이형기, *교회와 사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7.

이형의, *교회와 신학, 유대 묵시문학에 있어 이방인의 시판과 구원,*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9.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0.

전경연외 4 인, *신약성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조선출, *그리스도교 사전*,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2.

채은수, *선교와 문화 (Missions and Culture)*, 서울: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90.

채은수, *선교 이슈들* , 부산, 광야출판사, 1988.

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서울: 두란노*,* 1999.

번역서적(Translated Books)

Adolf, Nicolas. *해방신학에로의 초대, 자유에의 소명*, 서울: 분도출판사, 1977.

Barclay, William. *산상수훈 강해*, 이희숙 역, 서울: 종로서적, 1988.

Barclay, William.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희숙 역, 서울: 종로서적, 1990.

Bavinle, H.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Berkhof, Louis.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Bonhoeffer, Dietrich.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Bonhoeffer, Dietrich. *옥중서신,*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Boss, Gehalder *하나님 나라*, 정정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1.

Bright, John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4.

Bright, John.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서울: 컨콜디아사, 1990.

Calvin, John. *로마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Coleman, R.E.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Conzelmann, H. *신약성서신학*, 김철손외 2 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Cox, Harvey. *세속 도시*,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Foroster, W. *신구약 중간사*, 문희석, 서울: 컨콜디아사, 1981.

Gardner, Howard. *체인징 마인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7 가지 지렛대*, 이현우 역 서울: 재인, 2005.

Guthrie, D.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 이중수 역, 서울: 한국 성서 유니온, 1989.

Helm, Paul. *하나님 나라 섭리*, 이승구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2007.

Henry, Matthew. *마태복음 상*,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8.

Hoekendijk, J.C. *흩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Horne, Herman. *예수님의 교육방법*,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Kerry Inman, V. *당신의 천국 개념은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이길상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Kingsbury, J. D. *예수의 비유*, 김근수 역, 서울: 도서 출판 나단, 1991.

Kistemaker, Simon. *예수님의 비유*, 김근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Ku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7.

Kung, Hans. *Die Kirche (교회)*, 장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Ladd, G. E. *신약 신학*, 신성종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2.

Ladd, G. E.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Ladd, G. E.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신성종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92.

Ladd, G. E.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성수,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9
.

Lindgren, A. J. *교회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Lingenfelter, Sherwood G. and Mayers, Marvin K. *문화적 갈등과 사역*, 황태종 역,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89.

Maltens, Elmer A. *하나님의 계획*, 김의원,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1.

Miller, Donald.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Moltmann, Jürge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외 4 인역,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0.

Moreland, J. P. *Kingdom Triangle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 홍병룡 역,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08.

Niebuhr, Richard H.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Pixley, G. V. *하나님 나라*, 정호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Ridderbos, Herman.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Ridderbos, Herman, *바울신학*, 박영희 역, 서울: 지혜문화사, 1985.

Ridderbos, Herman. *하나님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Robertson, G. P.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원, 1983.

Stott, John. *땅끝까지 이르러*,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2.

Walker, Willistern.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외 3 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Warren ,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3.

Weber, Holbert E.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Weston, Sidney A. *예수의 발견*, 임종원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88.

Williams, C. W. *교회 (The Church)*,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Wilson, Carl. *목회와 제자양성*,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81.

Wright, Thomas N.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09.

외국어 서적(Foreign Language Books)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V/3.* Edinburgh: T.S.T. Clark, 1962.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y on Psalm*, 118:25 & W. Pannenberg,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Cushing, Richard C. *The servant church*, (Boston: Daughtes of St. Paul, 1966.

Dalman, Gustaf. *The Words of Jesus,* Edinburgh: T.and T. Clark, 1909 .

Friedrich, G.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Michigan: Eddermans, 1973.

Harrington, D. J. *God's people in Chris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Hawkins, Greg L. and Parkinson, Cally. *Reveal Where Are You?,* South Barrington, IL: Willow Creek Association, 2007.

Hessel, D. J. *Social Ministr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Latourethe, K. S. *A History of the Eopansion of Christianity: Three Centuries of Advance, 1500AD to 80AD,* Michigam: Zandervan,

1970.

Moltmann, J. *Theology of Hope,* London: SCM Press, 1967.

Pannenberg, W. *The Church,* Keith Crim,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Pannenberg, W.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Perrin, Norman. *The kingdom of God in the Teaching of Jesus,* London: S.C.M. Press, 1985.

Rookmaker, H. *The Creative Gift* (Westchester, Ill. : Cornerstone Books, 1981.

Schmidt, Karl Ludwig. *Theologisches Wrterbuch zum Neuen Testament,* hrsg,von Gerhard Kittel; Stuttgart: Kohlhammer, 1949.

Smith, J. B. *Greek-Englisch Concordance To the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1955 .

Torrance, T. F. *Kingdom and Church: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6 .

W. C. C. "Diakonia Consultation" *,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Diakonia*, Geneva, Switzerland, WCC Publication, 1983.

Willow Bank Report, *Gospel and Culture*, Willowbank, Bermuda: Somerset Bridge, 1991.

신문 / 잡지/ 인터넷 자료(Newspapers/ Magarzines/ Internet Materials)

권혁률, "위기의 한국교회" 한겨레신문*, 보수로 우향우*, 2006 년 7 월 27 일.

김명용, "성서에서의 정의" , *교회와 신학 24 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2.

김성재, "민중교육 방법론 연구" , *민중과 한국신학*, NCC 신학연구위원회 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김성환, "기독교 선교에 관한 연구" 서울: 총신 대학 부설 설교 연구소, 1990.

김영한, "기독교적 문화이해", *신학사상* 39 집 겨울, 1982.

김용복, "문화선교의 신학과 그 과제", 기독교 사상, 1983.

김의원, "예레미야 31:31-34 에 나타난 새계약의 새로운 면 연구", *신학지남* 203 호, 8.

김종렬, "섬기는 교회상의 회복과 정립", 기독교 사상, 1989.

박봉랑, "교회의 신학(2)", *세계와 선교* , 서울: 한신대학 발행 27 호, 1972.

박재순, "본회퍼의 교회이해", *신학사상 55 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서광선, "디아코니아의 현대적 의미" , 서울: 기독교사상, 6, 1983.

채은수, "문화적 측면에서 본 선교", 신학지남, 여름, 1983.

채은수, "선교와 문화", 신학지남, 봄호, 1983.

C. C. A., "Diakonia consultation" , 말레이지아 포트닉슨 사회봉사협회, 1984

Kettel, R. "왕, 왕권 *" , 월간목회*, 고영민 역, 10, 1990 .

http://www.amennews.com/com/com-1.html, 08:52, 3.21, 2011.
김기홍, "교회와신앙의 소망 잃어버린 희망과 부흥의 꿈 한국교회에 돌려주고 싶다," 교회와 신앙.

http://hirr.hartsem.edu/research/fastfacts/fast_facts.html#sizecong
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Approximate Distribution of U.S. Protestant and Other Christian Churches by size" (excluding Catholic/Orthodox).

http://jesus119.net/html/news06_view.html?&page=4&page=4&id=215 (09. 28, 2009) 크리스탼 뉴스, "올바른 전도 교회 성장 이끈다!" JESUS 119 .

http://www.nyc.gov/html/dcp/html/census/popcur.shtml,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Population, Current Population Estimates.

http://en.wikipedia.org/wiki/The_Bronx, Wikimedia Foundation, Inc. "브롱스: 브롱스 역사" 1 January 2011 at 01:26.

http://withchrist.org/mjs/packer.htm
Stanford, Miles J. "DR. JAMES I. PACKER Rediscovering Holiness" .

논문(Dissortation)

오병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고신대학논문집 14 집,* 부산: 고신대학 출판부, 1986.

홍은해, *교회성장과 사회봉사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장신대 대학원, 1989.